

「2011 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결과보고서 」

2012. 1.



제 출 문

성남문화재단 귀하

본 연구물을

'2011 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년 1 월

책임연구위원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연 구 원 이초영 (가치창조공동체 곰곰꼼꼼)

가치창조공동체 곰곰꼼꼼 대표 이 초 영

차례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결과 보고서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시작하며	7
I.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개관	9
1. 지원사업의 목표	9
2. 지원영역에 따른 구분.....	9
3. 지원사업의 절차	10
II.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개관	11
1.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제안 이유	11
2.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의 목표	11
3. 평가연구 진행과정	11
4. 모니터링 대상 사업.....	12
5. 모니터링 진행과정	12
6. 모니터링 현장평가지 구성	13
7. 모니터링 현장평가 진행 과정.....	14
8. 현장평가지 제출 수.....	16
9. 피드백	16
III.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자체평가	17
1. 기획지원사업	17
2. 일반지원사업	65

IV. 향후 과제.....	159
1. 제언	159
2. 향후 과제.....	161
V. 부록	166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를 시작하며

2011년 1월,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원사업이 결정난 후, 성남문화재단은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었다. 2008년 시민모니터링단이 활동했을 때, 보여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라도삼, 전수환 박사님을 책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가치창조공동체 곰곰곰곰이 연구기관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역할을 맡았다.

5월, 시민모니터링단 모집이 시작되었다. 1개월 간의 모집기간 동안 30 여명의 지원자들이 지원했고, 면접을 통해 총 15명의 시민모니터가 선정되었다. 연령, 사는 지역, 현재 직업과 과거 직업 등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했으며, 면접 시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내보이는 시민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6월, 첫 만남. 처음 만난 사람들, 모니터링 활동도 처음인 요원들도 대다수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시작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긴장되는 것이 당연했다. 설레임으로 시작된 총 3차례의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잘 마무리되었고, 교육을 마친 모니터링단은 ‘내가 살고 있는 성남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며 감탄했다. 앞으로 1개월에 1회, 다같이 모여 모니터링 정보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여러 문화현장에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와 활동가들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렸다. 모든 의사소통은 웹카페에서 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연구진은 현장평가지를 만들었다. 사업수행, 예술성, 지역적 공헌, 지속적 역량의 4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장평가지의 배점을 항목별로 세분화시키지 않았다. 시민들의 보는 눈을 키우고 스스로 역량이 어떻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선 자세히 기술하여 작성하는 평가내용이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했다. 모니터링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7월, 6월의 끝자락부터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 모니터링이 시작되었고, 하나 둘씩 현장평가지가 제출되었다. 8월이 휴가철이라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8월 네트워크 파티를 앞당겨 비가 많이 오던 7월 27일에 열었다. 1개월 동안 작성되어 제출된 현장평가지를 함께 공유했다. 전수환 박사님을 모시고, 현장평가지와 모니터링의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8월, 제출된 현장평가지를 바탕으로 보완, 최종수정을 거쳐서 현재의 현장평가지가 탄생하였다.

9월, 가을로 들어서자 지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니터요원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본 평가연구 중간보고가 있었다. 9월 네트워크 파티는 첫 이야기꾼으로 독립기획자 김상윤 대표(내용연구소)를 모시고 홍대앞의 유래부터 현재 홍대앞에 대한 ‘홍대앞, 그 문화를 읽다’를 들었다.

10월, 6개 모듬은 기획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일반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많은 수의 행사와 공연이 11월에 기획되어 있었다. 10월 네트워크 파티는 울동생태학습원에서 가졌다. 두번째 이야기꾼, 문화기획자 겸 평론가 안이영노 대표(기분좋은 트랜드하우스 QX)를 모시고 ‘모니터링의 중요 요소’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 후, 모니터요원들은 울동공원 잔디밭에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고 담소하며 오후 늦게까지 가을날을 만끽했다.

11월, 어느 때보다 일반지원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고 기획지원사업들의 최종 발표회도 열렸다. 그만큼 모니터링단의 활동도 활발했다. 11월 네트워크 파티의 이야기꾼은 김지연 대표(프락시스, PRAXIS)였다. 강연 전, 김지연 대표님이 진행한 ‘자기소개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는 ‘모니터링은 앞선 놀이처럼 타인을 알고자 하는 노력, 헤아리는 따뜻한 시각이 기본’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12월, 연구진들은 취합된 현장평가지를 토대로 본 평가연구의 방향과 더불어 성남시 지원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나눈 후, 보고서 집필에 들어갔다. ‘201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보고대회’ (주최 성남문화재단)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원사업 선정단체와 모니터링단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 기획지원사업 6개, 일반지원사업 4개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2012년 1월, 6차 회의를 거쳐 본 평가연구의 결과보고를 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결과보고서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금은 미숙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순수한 시민의 시각을 통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했는지, 두 가지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

끝으로 이 결과물들이 사업단체들과 모니터링단 모두에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개관

1. 지원사업의 목표

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자 시행된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과 지역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를 지원하는 ‘기획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일반지원사업’ 목표

-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기반 조성 및 창조적 활동역량 강화
- 지역문화의 발전과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확대
- 신진예술가 발굴 및 지원

‘기획지원사업’ 목표

-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 조성
-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문화예술인의 공공예술 전문성 강화

2. 지원영역에 따른 구분

지원영역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규모
일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예술분야의 발표사업 - 전시, 공연, 출판 등 	성남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	200 만원 ~ 6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별 문화예술 사업 - 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별 문화예술 사업 - 작은축제, 다문화활동 등 		

기획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공간 가꾸기 사업 - 지역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 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성남시를 사업장소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	300 만원 ~ 1,5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 커뮤니티 인문학 등 동네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 		

3. 지원사업의 절차



II.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개관

1.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제안 이유

- 2008년 성남문화재단 주최, 주관으로 ‘5대 문화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 진행한 바 있음.
-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고, 지역 문화향수 확대와 공동체성 회복의 견해를 가진 20~60대 성남시민 20명이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프로그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지 등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제출함.
- 시민 중심의 정책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둘러보며 조언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활동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향후 지역활동의 주체로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기획했으나,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유지되지 못함.
- 2011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의 협력시군 매칭사업이 성남문화재단과 시작되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시행됨.
-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단체 및 기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2011년 모니터링단’을 재조직함.

2.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의 목표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단체 및 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긍정적인 면과 개선점, 보완점을 찾아 제안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고민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으며 현장 전문가의 개발을 위한 첫 발판으로 삼을 예정임.

3. 평가연구 진행과정

2011. 4. 10.	본 평가연구 관련 1차 미팅 (연구진, 성남문화재단 실무진)
2011. 4. 22.	1차 회의 (연구진, 성남문화재단 실무진)
2011. 5. 18.	2차 회의 (연구진, 성남문화재단 실무진)
2011. 6. 9.	3차 회의 (연구진, 성남문화재단 실무진)
2011. 6. 10. ~ 29.	평가지표 및 현장평가지 개발
2011. 8. 15. ~ 30	평가지표 및 현장평가지 2차 수정하여 확정
2011. 9. 5.	본 평가연구 중간보고 및 4차 회의

2011.12. 5	5차 회의 (연구진, 성남문화재단 실무진)
2011.12.19	201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보고대회 (주최 성남문화재단)
2012. 1.18	6차 회의 (연구진, 성남문화재단 실무진)
2012. 1. 31	본 평가연구 결과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4. 모니터링 대상 사업

총 29개 사업 중, 사업포기단체 사업 1개와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지원받은 2개 행사 제외하여 기획지원사업 6개, 일반지원사업 20개로 모니터링 대상사업 수는 26개임.

5. 모니터링 진행과정

2011. 5. 18. ~ 6. 5.	모니터링단 모집
2011. 6. 10.	모니터링단 면접, 15명 선발
2011. 6. 15.	모니터링단 1차 교육 - 성남시 문화예술정책 및 문화예술지원사업 이해
2011. 6. 22.	모니터링단 2차 교육 - 모니터의 역할 및 현장평가지 작성법
2011. 6. 29.	모니터링단 3차 교육 - 향후 활동계획 및 향후 운영프로그램계획 수립
2011. 6.30. ~ 12.10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26개 사업) 모니터링
2011. 7. 27.	1차 네트워크 파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내용 공유, 이야기꾼 : 전수환)
2011. 9. 7.	2차 네트워크 파티 ('홍대앞, 그 문화를 읽다', 이야기꾼 : 김상윤)
2011.10. 7.	3차 네트워크 파티 ('모니터링의 중요 요소', 이야기꾼 : 안이영노)
2011.11. 9.	4차 네트워크 파티 ('모니터링의 기본', 이야기꾼 : 김지연)
2011.12.19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보고대회 참여

6. 모니터링 현장평가지 구성

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용 검토 후 기재	배점
사업 수행 (30)	사업의 달성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의 실현 정도를 평가합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사업내용대로 추진하는지, 만약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이 사업목표에 부합되는지 살펴봅니다.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표와 실제 행사의 실현 정도는 어떠한가?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내용과 실제 행사의 실현 정도는 어떠한가? (예산, 프로그램 내용 등)	30 /
	진행의 수월성	행사 홍보, 행사 진행 및 행사장 편의시설에 대해 평가합니다. 전체적인 행사진행에 무리가 없는지, 계획서 상의 홍보계획과 일치하는지, 행사 장소의 접근성과 시설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토합니다. - 전체적으로 행사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는가? - 홍보용 배너 및 현수막 게시, 안내책자 비치,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친절했는가? -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휴식공간 등의 이용이 용이했는가?	
예술적 내용 (25)	예술적 완성도	행사내용의 예술적 측면을 평가합니다. 행사내용이 독창적인지, 다양한 시도를 하려 노력했는지, 예산과 대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과 완성도를 검토합니다. - 행사내용이 참신한가? 다양하고 흥미로운가? - 기획, 구성 등 형식적인 완성도는 어떠한가? - 예산대비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어떠한가?	25 /
	대중적 호응도	사업대상의 참여도와 홍보효과, 관객 수를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이 때, 아마추어 동호회의 참여가 있을 경우, 동호회원 또는 가족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대중들의 호응도는 어떠한가? - 행사시기와 장소 등이 적절한가? - 특정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을 위해 대중적인 접근을 노력하고 있는가?	
지역적 공헌 (25)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돕고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는지, 지역 내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 지역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 진행되었는가? - 지역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획, 진행되었는가?	25 /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적 토대가 보다 탄탄해져 지역문화예술 환경이 풍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했는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살펴봅니다. - 지역문화자원(지역의 콘텐츠, 장소, 아티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이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 진행되었는가?	

지속적 역량 (20)	사업주체 역량측정	<p>행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인 면을 검토한 후 사업주체의 역량과 적극성을 가능하여 향후 사업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평가합니다. 자원 및 후원의 실현 정도, 행사참여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등을 검토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및 후원확보의 실현이 이뤄졌는가? - 사업 참여자가 사업성격에 알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타 단체가 참여한 경우, 단체 구성 및 네트워크는 잘 이뤄졌는가? 	20 /
	프로그램 지속성	<p>정기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의 여부, 향후 사업의 확장·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내용인지를 검토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또는 상설 프로그램인가? 일회성 프로그램인가? - 행사 프로그램 내용이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 가능한 내용인가? -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가? (ex. 신입예비단원 육성, 참여회원모집, 꾸준한 연습 등) 	
총 점			100점

7. 모니터링 현장평가 진행 과정

1) 현장 모니터링 절차

■ 현장 모니터링 신청

- 기획공모지원사업의 경우, 모둠 편성하여 1개 사업씩 부여
- 일반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웹카페(<http://cafe.naver.com/snmornitoring>) 게시판 이용하여 신청



■ 현장 모니터링 준비

- 사업지원금 신청서, 교부신청서 확인 및 내용 분석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사업실행장소 방문 모니터링
- 참여자 및 관객 등 인터뷰 (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 서면 인터뷰 실행)
- 홍보물 수집, 사진 촬영 등 자료 수집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정리

- 현장 평가지 작성
- 인터뷰지 작성



■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 현장 평가지 및 인터뷰지 제출
- 홍보물 및 사진자료 첨부

2) 모니터링단 활동

■ 기획지원사업

- 사업기간이 중장기인 기획지원사업의 특성상 모둠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개인별, 지역별 인맥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각 2~3명의 모둠을 6개조로 편성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함. 사업의 흐름상 중요한 행사 및 교육, 활동이 있을 때, 함께 모여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함.
- 개인당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웹카페에 조별로 게시판 생성하여 사업일정 및 정보공유, 모니터링 일정 등, 의견나눔.
- 인터뷰지는 각자 질문을 취합, 작성하고 연구원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 최종작성했음.
- 모둠원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각자 모니터링의 시각을 가지게 됨.

■ 일반지원사업

- 20개 사업에 각 1~3명이 모니터링을 진행함.
- 개인당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웹카페에 공지 후, 선착순 댓글로 신청을 받은 후, 최근 활동이 적은 모니터 요원에게 우선 활동권을 부여함.
- 인터뷰지는 각자 질문을 취합, 작성하고 연구원의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 최종작성했음.

3) 모니터링단 육성

■ 총 3차 교육

모니터링에 임하기 이전, ‘모니터링의 이해’,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사업’, ‘성남문화예술지원금 사업에 대한 이해’ 등, 3차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음.

■ 월별 네트워크 파티

- 1개월 1회, 총 4차 네트워크 파티를 가짐. 모니터 요원들의 전체 만남을 주선하여 현장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기획함.
- 월별로 일선에서 활동 중인 문화기획자들을 이야기꾼으로 초대하여, 모니터링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을 들은 후, 1개월 간 활동과 느낀 점에 대해 편안하게 의견 나눔.
- 각자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 시간을 가짐.

■ 웹카페

- 웹카페를 소통 채널로 이용함.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nmonitoring>)
- 일반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신청을 웹카페 댓글로 일원화함.
- 현장 모니터링을 다녀온 후, 후기 및 소감을 작성하고 사진 첨부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함.
- 사업단체 인터뷰 전, 질문을 미리 등록하여 함께 모니터링을 가는 요원 및 연구원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질문지 수정하여 실제 인터뷰 진행함.
- 웹카페에서 작성글이 가장 많은 모니터 요원에게 포상함.

8. 현장평가지 제출 수

기획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총계	
사업수	평가지 제출	사업수	평가지 제출	사업수	평가지 제출
6	25	20	38	26	63

9. 피드백

1) 사업단체에게 현장평가지 송부

- 사업종료 후, 제출된 현장평가를 사업단체 대표 및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작성자, 점수는 삭제)
- 사업단체는 지원금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과 질적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게 함.
- 모니터링단은 본인의 의견이 사업의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성남시 문화정책 및 환경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보고회

- 사업단체와 모니터링단이 함께 모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음.
- 3명의 모니터요원이 현장 모니터링의 경험과 소감 및 향후 모니터링 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와 제언을 직접 발표함.

III.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자체평가

1. 기획지원사업 : 총 6개 사업

분야(장르)	사업명	사업단체명	사업내용 요약
교육·통합	어린이 창의예술 교육프로그램 '2011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한국라반 움직임연구소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 움직임을 주제로 하는 예술체험교육
교육·영상	실버미디어교육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	다울영상미디어연구회	노인대상 미디어교육, 사진과 영상촬영 기능 익히기
공공미술	골목길 페이스 오프 '색깔있는 골목, 칼라대문!'	그림마을	본도심 골목 30개 대문 채색 및 그림 그리기. 3가지 테마로 골목특색 살림.
교육·통합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	학교밖 청소년들의 예술교육 진행 후, 매월 거리발표회 개최.
공동체 활성화	중앙시장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중앙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시장상인회, 지역작가, 주민들과의 공동체 만들기. 음악회,대동놀이,에어로빅,목공강좌 등 실시.
교육·연극	판story교	사) 연극놀이터 해마루	어머니(학부모)들이 모여 연극과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동네이야기를 만듦.

* 기획공모지원사업별 모니터 인원

번호	사업명	사업단체명	모니터 인원	제출된 현장평가지
1-1	어린이 창의예술교육프로그램 '2011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한국라반 움직임연구소	3명 (실 활동 2명, 개인사정 1명 미활동)	3개
1-2	실버미디어교육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	다울영상미디어연구회	2명	4개
1-3	골목길 페이스 오프 '색깔있는 골목, 칼라대문!'	그림마을	2명	3개
1-4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	3명	6개
1-5	중앙시장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중앙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3명	4개
1-6	판story교	사) 연극놀이터 해마루	2명	4개

1-1. 실버미디어교육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 _ 다울영상미디어연구회

프로그램명	우리동네 생생뉴스
주관단체명	다울영상미디어연구회
사업기간	2011년 6월 3일 ~ 10월 1일
사업장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사업참여인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노인 15인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뉴스로 만들어 이웃 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와 이웃, 지역이 함께 가까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노인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편집기법 습득 등의 미디어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확대하고, 지역 내 명소 출사와 인터뷰 등은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찾는 역할을 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8월 ~ 11월 : 14차시 교육

11월 28일 : 최종 15차시 교육 및 상영회, 종강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 우리동네 생생뉴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동네에서 알리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 ② 인터뷰 및 촬영장소를 정한 후, 함께 촬영한다. ③ 촬영된 영상을 기초로 편집, 녹음, 자막 작업을 한다. ④ 상영회를 가진다. <p>- 인생 소개 동영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자기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짚어보며 이야기있는 동영상의 기초를 정리한다. ② 정리된 이야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사진 파일로 바꿔 수정·편집한다. ③ 정리된 사진을 이야기 구성에 맞고 재배열한 후, 음악과 본인의 나레이션을 추가하여 자서전 동영상을 완성시킨다. <p>- 미디어 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윈도우즈 무비메이커, 프리미어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편집 및 자막, 배경음악의 삽입을 교육받아 UCC를 제작한다.
-----------------	--

인력계획	책임강사 1인, 보조강사 1인	
교육내용	1차시	인사, 소개, 영상감상
	2차시	그림책 읽기 : 그림책 읽었던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기.
	3차시	전 교육에 읽었던 책의 내용과 질문을 노래로 구성하여 게임하기.
	4차시	각 조의 주제 선정 후, 다음시간의 그림실습을 위해 각자 맡을 역할과 장면을 정함.
	5차시	각자 맡은 장면 그림 그리기.
	6차시	각 조끼리 모여 컴퓨터로 옮겨진 그림 편집,
	7차시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배경음악 및 자막 삽입방법 교육.
	8차시	완성된 작품 감상, 다음시간의 동네뉴스 영상작업 주제 선정 및 역할 분담.
	9차시	동네뉴스를 위해 각 조끼리 사진 촬영
	10차시	사진 편집, 배경음악 및 자막 삽입.
	11차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들을 준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생을 재구성.
	12차시	인생 다큐멘터리 감상 및 소감 나누기. 프리미어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기.
	13차시	나레이터가 되어 녹음하기. 완성된 나레이션을 동네뉴스 영상에 추가하기.
	14차시	동영상 완료, 대용량 첨부 메일로 보내는 법 배우기, 작품 공유를 위해 네이버 카페 내에 작품을 공개하고 동영상 CD를 기관관계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15차시	최종 연합 발표회를 열어 평가 및 피드백.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9월 26일, 11월 7일, 28일	9월 26일, 11월 7일, 28일
모니터 횟수	3회	3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중앙공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의 달성도	1 차	-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공원에서 실사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목표와 적합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역사적 명물 장소를 찾아가

사업수행				취재하고 인터뷰하여 사회 속에서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는 면에서는 사업목적과 일치하였다.
		2,3 차	- 노인들이 컴퓨터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리였으나 새로운 기계나 매체를 활용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좋았다.	- 공동 창작이나 미디어 창작 발표회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며, 노인들에게 도전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기획의도와 잘 맞다고 보여진다.
	진행의 수월성	1 차	- 회원들이 자신의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는데 강사가 한 분이라 힘들어 보였다.	- 출사장소를 진행자가 답사하지 않았고, 정확한 위치파악이 안 되는 등 사전 촬영에 대한 기초적 지식조차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사하여 진행과정상에 철저한 준비가 없어 보였으며,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2,3 차	- 회원들이 손수 프로그램을 완성해보고 그것을 컴퓨터에 옮겨 실행해 보는 것까지 했으나 교육이 끝나는 시점까지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문제였다.	- 사업 신청기간은 5 월이 시작인데, 사실상은 7.25 일해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중간시점인 11.7 일에도 폴더를 못 여시는 어르신부터, 이미 마무리 단계인 분들도 있어서 다음 교육에서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내용	예술적 완성도	1 차	-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직접 사진에 담아보는 것이 마음 속에 예술적인 감수성을 불러 일으켜서 좋았다.	- 행사내용은 직접 인근 지역 명소를 찾으신 면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흥미로웠다.
		2,3 차	- 서로 서로 협력하고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좋았다.	- 11,12 명 중에 발표자는 4~5 명에 불과했고 각자 교육수준차이가 심하고 영상에 말이 나오거나 자막처리는 거의 없어 아쉬웠다.
	대중적 호응도	1 차	- 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끼리 서로 모델이 되어주고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느라 애썼다.	-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들고 지역명소를 찾아, 카메라 앵글을 통해 들여다보시는 모습만으로도 진지함과 열정이 돋보여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2,3 차	- 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끼리 마지막 발표한 것이므로 대중적인 호응도는 없다.	- 어르신들의 활동이라 더 관대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발표회에 적어도 다른 동우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가족, 친구분들의 초대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1 차	- 뉴스를 잘 만들게 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었고,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 사진으로 남겼다는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2,3 차	- 고령이신 회원들이 서로 도우며 친목하는 일이 지역 주민들이 교류하는 역할이 되어 차츰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 질 것은 기대된다. 지역 현안 등을 다루고자 내용의 깊이와 작품 홍보가 미흡하다.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1 차	- 그 연령대의 문화를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 지역 명소를 직접 찾았고, 행사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여 평가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하겠다.
		2,3 차	-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는 의욕은 이미 그 연령대의 문화를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고 지역간 계층간의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 지역 주민이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모로 소극적으로 보인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 주체 역량 측정	1 차	- 열심으로 가르치는 강사님의 노력에 비해 회원님들이 준비가 덜 된 느낌이라서 좀 안타까웠다.	- 사업주관단체의 타 인원의 참관이 적고 담당 강사와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차	- 헌신적이며 열심인 강사님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나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주체인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강사와 학생들 간의 교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지속성	1 차	- 현재의 회원들을 좀 더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 어르신들의 열정이 있고,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 특히 돋보인다.

		2,3 차	-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뉴스를 만들 수 있겠고 회원들의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어르신들께서 더 발전된 작품을 원하시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	--	--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1차	-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새로운 매체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실내에서 벗어나 지역 명소를 찾아 나오신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으며, 직접 손에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찾으시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였다. 하지만, 진행상의 준비가 좀 미흡하며 교육내용이나 시기가 변동되었고,출사장소의 답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의 충분한 준비 자세와 참여자들(어르신)에 대한 배려 등이 아쉽다.
2,3차	- 성남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장소가 좋아서 나름 진행이 수월했다고 본다. 그러나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면 선행 교육이 제대로 된 상태가 필수이며 회원들이 직접 뉴스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겠다. 기타의견> 회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고, 각자 손수 다루어 뉴스를 실행해보는 것이 좋았다. 이런 것을 계기로 생활의 활력을 찾고 더 건강해지리라 믿는다.	- 수업 참관과 발표회를 본 후 느낀 점은 사업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강사에게 모두 부담지어진 듯 했다. 사용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어 교육기간동안 강사와 수강자 모두 애를 먹었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미디어수업의 결과물인 공연(발표)에서 성취감,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 및 자존능력의 회복, 즐겁고 철저한 교육 운영으로 자유로운 표현방법을 찾으면서 순화되는 자신을 체험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우리'가 공존한다는 사고를 일깨운다.
- ② 함께 이루어낸다는 의지와 단합으로 '함께'임을 인식하며 자부심을 이끌어 내 가족과 사회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찾는데 중점을 기울였다.
- ③ 긍정적인 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적극적이고 올바른 자기표현방법을 이끌어 냈으며 모임 안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복지관과 예술단체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였다.

⑤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 노인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였으며 기관 실무자에게 노인문화예술교육의 인식 수준을 제고시켰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동네의 이슈를 소재 삼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를 나누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주민이자 또래들의 유대감을 높였다.

② 동네뉴스 및 인생 이야기 등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하려 노력했으며 새로운 매체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노인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신·구세대간 문화격차를 좁히며 소통의 고리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③ 교육 정도와 습득 수준에 따라 수업진도 조절과 그에 따른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 향후 노인대상의 교수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사업목표 설정 시, 노인들의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능교육으로 기획할 지, 아니면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의미를 둔 사회문화교육에 중점을 둘 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1-2. 골목길 페이스오프 ‘색깔있는 골목, 칼라 대문!’ _ 그림마을

프로그램명	골목길 페이스오프 ‘색깔있는 골목, 칼라 대문!’
주관단체명	그림마을
사업기간	2011년 10월 10일 ~ 11월 13일
사업장소	수정남로 66, 68번길, 탄리로 45번길, 23호 주택의 대문 30개 작업 진행.
사업참여인원	40명(작가,지역 미술대 학생, 사진작가 등)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성남시 구 시가지의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진동 내 골목 3곳을 선정하여 각 집의 대문을 예술적으로 변화시켜 골목길의 표정을 바꾼다. 꽃과 하늘, 동물, 전통문양의 3가지 테마로 각각의 골목길을 조성하며 작업이 끝난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골목잔치를 진행하여 지역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획하였다.

- 사업추진일정

2011. 5.10. : 그림마을 자체 답사

7월 : 그림마을 자체 2차 답사

8.12. : 미술작가 참여 답사

9월 : 수진동 주민센터 담당자, 통장 면담 요청했으나 업무협조 불가와 면담불가 통보 받음.

직접 대상지역을 다니며 통장 면담 진행. 통장들의 도움으로 장소선정, 주민섭외 진행.

9. 15. : 5개 골목으로 선정대상을 줄인 후, 최종 3개 골목 선정.

9월 말 : 주민의견 청취, 홍보물 2차례 배포, 신청자 모집 현수막 설치

2011. 10.10. : 참여미술작가 회의

10.12. : 참여자 전체회의 (전문작가,신구대 및 이화여대 미술대 학생,사진작가,코디네이터)

10.17. : 대문작업 시작

10.29. : 대문작업 종료. 23호 주택의 대문 30개 작업 진행.

11.13. : 칼라대문 오픈식 개최.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 색깔있는 대문</p> <p>① 3가지 테마로 진행 : 꽃과 하늘의 골목, 전통문양의 골목, 동물의 골목</p> <p>② 노후되었거나 녹슨 대문을 새롭게 칠한 후, 대문에 맞는 디자인을 집주인과 함께 상의 후, 선정하여 작업.</p> <p>- 아트 우체통</p> <p>① 칼라대문을 돋보이게 하는 우체통을 총 20개 제작하여 대문에 설치.</p> <p>- 벽화</p> <p>① 인연이 있는 주민의 요청으로 대상지역 내에 있는 담벼락에 벽화작업을 진행했다.</p> <p>② 8m 거리의 벽에 사물놀이를 주제로 하여 제작.</p> <p>- 골목잔치</p> <p>① 일시 및 장소 : 2011. 11. 13. 오후 4시, 수진동 수정남로 66번길</p> <p>② 작가들과 주민들 지역인사 등 약 100여명 참여</p> <p>③ 풍물 길놀이, 대금연주, 사물놀이 공연 등 문화공연 진행.</p> <p>④ 다과와 음식을 준비해 골목 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김.</p>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10월 10일, 21일, 27일 11월 13일	11월 5일, 11월 13일
모니터 횟수	4회	2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수정남로 66, 68번길, 탄리로 45번길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1 차	- 작가회의 :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목표와 내용으로 진행계획하고자 의논함.	-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9월 달에 회의를 하고 10월 중순부터 대문 작업에 들어갔고 오픈식은 11월 13일에 이루어졌다. -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골
		2~5 차	- 사업 계획에 따라 오래된 건축물로 어두운 골목길에 색을 입혀 칼라가 있는 골목길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했다. 사업기간은	

	진행의 수월성		2 주로 계획했으나 작업현장의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 지연되었다. - 마지막 오픈식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과를 나누며 작가와의 만남시간과 축하공연, 또 현장관람도 함께 잘 이뤄졌다.	목길 재정비 사업은 잘 이루어졌다. - 기존 신청서에 있던 화단 만들거나 아트 벤치는 만들지 못했지만 대신에 칼라 대문과 어울리는 우체통을 10 개 정도 만들어서 대문에 달았다.
		1 차	- 현수막을 게시하여 신청자 모집. 주민의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획단을 구성하여 작가회의를 통해 현장진행 관련해 의논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준비작업을 거쳤다.	- 칼라 대문 섭외는 골목길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현수막을 보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오픈식 때 미처 현수막을 보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골목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 사물놀이패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처음엔 오픈식을 잘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해 있던 주민들도 풍물패와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오픈식 장소로 이동해서 오픈식을 즐겼다.
		2~5 차	- 성남 구시가지의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바꿔준다는 취지를 전단지과 현수막으로 게시 후 신청 받았다. 하지만, 주인이 외지인인 경우는 섭외가 어려웠으며 집주인인 경우는 대환영하는 분위기였다. - 대문이 낙후되어 사전작업이 필요했다. 작업 중, 골목길의 변화를 직접 본 주민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어 이후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 지역주민들의 사전 참여율이 처음에는 저조했으나 진행과 더불어 변화된 골목길을 본 후 참여가 높아져 사업계획보다 대문수가 많아졌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1 차	- 오래된 건축물로 어두운 골목길에 색을 입혀 칼라가 있는 골목을 만들고자 했다.	- 수정남로 66번길은 전통문양, 수정남로 68번길은 동물, 탄리로 45번길은 하늘과 꽃을 주제로 대문을 꾸몄다. 또한 대문을 단순히 아름답게 색칠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식이 된 대문은 직접 작가들이 보수 작업을 한 후에 그림을 그렸다. 또, 대학생 작가들이 10개 정도의 걸이식 우체통을 만들어서 칼라대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2~5 차	- 어두운 색깔의 대문을 분홍 초록 보라 연두 등 밝은 색으로 입히고 동물과 꽃 문양을 넣어 동화 속의 골목길로 변화되었다.	

				- 골목마다 있는 하수구 뚜껑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페인트로 칠해서 골목에 아름다움을 더했다.
	대중적 호응도	1 차	- 주민참여 신청안내 현수막 게시한 후, 신청가구의 위치파악 및 주소확인하여 작업 진행했다.	- 오픈식 행사도 단순히 먹을 것을 같이 나눠먹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금 연주회, 풍물놀이 공연을 통해 문화 공연 향유를 도왔다.
		2~5 차	- 처음 의구심으로 바라보던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주민들간의 소통도 이뤄지고 생활환경도 개선되었다.	- 오픈식을 골목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20~30여명)이 아름다운 칼라 대문을 볼 수 있었고, 참여하기도 수월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1 차	-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 칼라 대문 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재개발로 지정되어 낙후된 골목길을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없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예술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2~5 차	- 벽화 같은 공공미술 작업의 어려움을 대문으로 대신해 색깔있는 골목길로 변화시켜 테마공간으로 만들었다.	- 칼라 대문 참여 가구 인터뷰 결과 대문이 예뻐졌다며 다들 만족했다.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1 차	- 지역 아티스트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 4명의 친구대 학생들을 학생 작가로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했다.
		2~5 차	- 지역 아티스트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공공 미술 사업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도 그림 마을이 칼라 대문을 보며 공공 미술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 주체 역량 측정	1 차	- 이미 그림마을 사업자로 벽화, 무대미술, 미술장식 등의 작업을 하는 단체로 사진작가와 전문작가 지역작가의 네트워크가 원활하다.	- 작가와 관계자들이 골목 선정, 가구 섭외부터 대문을 어떤 주제로 색칠할 것인지 여러 번의 회의와 탐색,

량		2~5 차	오래된 경력과 전문작가, 지역작가들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섭외한 작가 이외에도 여러 인맥을 통해 봉사자로 참여한 작가도 있었다.	견학을 통해 신중히 결정했다. - 작가들이 미술을 배운 경험이 있거나 전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 그림마을은 학교 벽화, 복지관 벽화, 아트 평상 제작 등 공공 미술 사업 경험이 여러 번 있다.
	프로 그림 지속성	1 차	- 주민들의 반응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역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림마을은 98년도부터 성남 구시가지지를 대상으로 공공 미술 사업을 해왔다. 칼라 대문은 그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로 14년째를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2~5 차	- 지역 아티스트들이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으로 대문에 칼라를 입혀 공공미술의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애郷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여건이 된다면 칼라 대문 사업을 지속해 나갈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p>- 주인집보다는 세입자가 많아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p> <p>- 오픈식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 그리고 작가와 만남시간 클럽 공연도 함께 이뤄져 골목길의 축제가 되었다. 성남 구 시가지의 어두운 골목길에 색을 입히는 작업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p>	<p>- 오픈식 행사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이 직접 참여했다. 작업기간 동안에도 협조했다고 들었다. 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목길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p>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성남 구도심을 매개로 한 새로운 공공미술의 시도로서 도시 노후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의 필요성과 인식을 제고시켰다.
- ②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에 대한 애郷심 고취에 기여했으며 낙후된 환경 개선으로 상실된 주민들의 정서적 치유를 도왔다.

- 문제점과 한계

- ① 재개발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재개발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과, 어차피 재개발이 될 텐데 뭐하러 일을 벌리냐는 주민들의 시각들이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가진 구도심은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받아야 할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 ② 대문의 형태가 그림작업을 하기에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이 2배로 늘었고, 신청하는 가구 수도 늘어나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 ③ 공공커뮤니티 사업은 장기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미술영역의 특성상 작업기간이 대부분이라 주민, 동네, 작가들의 지속적인 커뮤니티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개선 및 요청사항

- ① 재개발과 구 시가지에 대한 문화예술을 적극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 ②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영역의 사업을 진행 시, 공공기관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 이 때, 지역 관청 및 문화재단 등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기존 공공미술로 행해졌던 벽화작업과 색다르게 지역의 현안에 한 발 더 다가간 프로젝트로 지역환경개선과 더불어 재개발 이슈를 극복하고 실행 전체 과정에서 주민들의 화합을 꾀하기 위해 노력했다.
- ② 사업 실행 전, 대상지의 꼼꼼한 답사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 반영, 실제 작업 시의 성실함 등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③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인력(전문작가, 지역작가, 사진작가, 미술대 학생)을 활용하여 공공미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주민들에게는 친근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④ 지역을 기반으로 전문작가 및 지역예술인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본도심과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관심이 있다.

5) 프로그램 사진



1-3. 어린이 창의 예술 교육프로그램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_ 한국라반 움직임연구소

프로그램명	어린이 창의 예술 교육프로그램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주관단체명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사업기간	2011년 7월 ~ 11월
사업장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친구지역아동센터
사업참여인원	어린이 1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일반 아동들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이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예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표현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어린이들은 무용,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체험하며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 사업추진일정

2011. 6월 : 프로그램 계획 및 홍보

7.12.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교육 시작 (장소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7.15. : 친구지역아동센터 교육 시작 (장소 : 태평4동 주민센터 강당)

7월~9월 중순 : 미술과 움직임, 동화와 움직임, 과학·수학과 움직임, 음악과 움직임 연계 교육

9월 중순 ~ : 공연준비 및 리허설

10. 4. : 친구지역아동센터 발표회 ‘기호가 움직여요!, 악기가 되었어요!, 신나게 춤을 춰요!

나는야 발레리나’ 공연

10. 14.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발표회 ‘내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본 프로그램은 성남지역 내 청솔종합사회복지관과 친구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6차시의 예술체험 수업과 8차시의 공연 리허설, 최종공연 1차시까지, 총 25차시의 교육과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인력계획	책임강사 1인, 보조강사 4인

교육내용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친구지역아동센터	
	1차시	움직이는 미술관	불어! 들어! 조각상 만들기	움직이는 미술관	불어! 들어! 조각상 만들기
	2차시		움직이는 조각상		비밀기호카드
	3차시	-미술과 움직임	과거로 떠나는 그림여행 (김홍도)	-미술과 움직임	허수아비에게 춤을
	4차시		칸딘스키와 함께 떠나요.(점,선,면)		유명화가와 만나요.
	5차시	몸으로 읽는 동화 -동화, 신화와 움직임	전래놀이 '윷이 춤춘다'	몸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과학, 수학 교과연계	물의 여행
	6차시		허수아비에게 춤을		색깔있는 물이 되어보자
	7차시		엄마 게와 아기 게		심장여행
	8차시		그리스 신화 이야기		식물의 성장과정
	9차시	몸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과학, 수학 교과연계	물의 여행	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음악과 움직임	징검다리를 건너요
	10차시		색깔있는 물이 되어보자		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11차시		심장여행	작품 만들기 - 수업 시간에 표현했던 움직임을 작품으로 만들기	발레를 배워요 1
	12차시		식물의 성장과정		작품만들기 1
	13차시	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음악과 움직임	몸으로 노래해요		발레를 배워요 2
	14차시		움직임 정간보		작품만들기 2
	15차시		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발레를 배워요 3
	16차시		작은 예술가들의 신나는 예술여행!		작품만들기 3
	17차시	공연 리허설	발레를 배워요 1	공연연습	작품연습 1. 기호가 움직여요! 2. 악기가 되었어요! 3. 신나게 춤을 춰요! 4. '나는야 발레리나' - 백조의 호수
	18차시		공연리허설 1		
	19차시		발레를 배워요 2		
	20차시		공연리허설 2		
	21차시		공연리허설 3		
	22차시		공연리허설 4		
	23차시		공연리허설 5		
	24차시		최종리허설	리허설	분장 및 드레스 리허설
	25차시	발표회	'내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 공연	발표회	발표회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9월 8일, 29일	7월 26일, 8월 23일
모니터 횟수	2회	2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태평4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 모니터 1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교육 참관, 모니터 2는 친구지역아동센터 교육 참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1,2 차	움직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자기표현 향상과 창의적 움직임, 감성개발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는 매시 교육 주제에 따라 교사들이 움직임을 유도하는 형태로 아동들은 몸의 창의적 표현력보다는 수동적으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창의력 및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본 사업은 . 수업에서 아이들이 직접 움직임을 창조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무대 위에 올라가 자신의 공연을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 하지만, 단기프로젝트로는 창의력 제고 및 자존감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더라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인다.
	진행의 수월성	1,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강사 외에 1 명이 열심히 지도하고 있었으며 복지관 담당교사, 대학생 자원봉사자선생님들도 참관했다. 따라서 진행의 어려움은 없어보였다. - 대상아동이 1~6 학년 초등학생이어서 수업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 4 동 주민 센터는 위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본 사업의 대상 기관 (맑은샘 지역아동센터, 친구지역아동센터)이 참여아동들을 한데 모아 주민센터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업은 지하 일층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교실 자체는 넓고 큰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만한 공간이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1,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과학 동화 음악이란 매체로 아동들을 감성을 깨우치고 표현력을 향상에 기여하고 발표회를 통해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적 완성도는 높다고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라반 기호를 통한 움직임을 가르치며 아이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나간다. 매번 그 주제가 바뀌는데 2~4 명씩조를 이뤄 움직임을 창조한다. 짧은 연습 시간 이후 각자의 발표 시간이 주어진다. 한 회차의 수업에 준비 운동부터 모든 아이들의 발표 준비, 본 발표까지 이루어졌다. - 본 교사와 보조 교사가 역할 분담을 통해 번갈아가며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는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대중적 호응도	1,2 차	<p>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참여아동들이나 참관자, 보조교사,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다. - 기호를 통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 다른 친구들의 발표 시간에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인상 깊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1,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예술교육에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아동들이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접하며 창의성을 키우고 자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했다고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할 것이다.
		1,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인원의 한정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아쉬우나 대상아동의 가족들, 발표회를 겸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젝트는 대상인 성남 지역 내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접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본 단체가 성남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콘텐츠나 아티스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 속 적 역 량	사업 주체 역량 측정	1,2 차	- 몇 번의 수업모니터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 은 현장의 수업 상황이어서 사업주체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사업 신청서상의 계획서 내용에 비해 단순한 움직임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 본 단체는 2004 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왔다. 현재 프로젝트 대상 기관인 친구지역주민센터와 청솔종합 사회복지관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프로 그램 지속성	1,2 차	- 동작과 움직임에 약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 이 사업에 보다는 효과면에서 더 비중있는 사업에 지원 되었으면 한다.	- 본 단체는 7 년 동안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는 신뢰성을 얻는다. 하지만 이후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p>- 사업계획서를 읽어보고 아동의 창의성과 감성 등의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조금 미흡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p> <p>-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동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으며 교사의 지도나 수업의 밀도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 움직임 수업이라면 기초 동작 등을 가르쳐 준 후, 활동주제를 주고 아동들 스스로 동작을 만들어보는 수업 형태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 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진행 과정을 바라보면 성공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시키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하는 데에는 뛰어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본 사업 자체의 달성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 교육은 단기간의 활동만으로 높은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p>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문화예술교육이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표현 및 창의력 향상

을 위해 기획되었다.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합적으로 배워 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수업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다.

② 청솔종합사회복지관과 친구지역아동센터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도는 몹시 높았으며 이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③ 사업기간이 짧아 과정 중심의 통합적 예술교육을 추구하는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두지 못했다.

- 개선 및 요청사항

① 지원기금이 축소되어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공연에 기본적인 조명, 무대 등에 책정이 어려워 아동들이 준비한 공연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② 통합적 예술교육을 추구하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쉬운 가운데,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기획한다면 성남지역의 여러 대상에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모니터 대상이 각각의 기관에 참여아동들이 서로 다르고, 2명의 모니터가 각자 활동하였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움직임과 미술, 과학, 수학, 이야기, 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된 통합적 예술교육으로 참여아동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② 강의 한 회차마다 주제가 바뀌고 각자 발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의 수업방식은 과정을 통해 결과까지 완성하는 구조를 체득하며, 마지막의 발표시간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아동들의 모둠활동은 서로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적절한 의사표현, 수용적인 태도 등을 학습하여 협동성과 사회성을 길러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④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으며, 교육 및 활동 노하우가 있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술교육은 단기 프로젝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5) 프로그램 사진



1-4.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 _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

프로그램명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
주관단체명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
사업기간	2011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업장소	디딤돌 학교 및 수진역, 신흥역, 분당구청 잔디밭 등.
사업참여인원	약 30 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디딤돌학교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배움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성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길을 바로 찾아가는 지역사회배움터이다. 학교밖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달이 발표회 형식으로 공유한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생활 공간을 세대 간의 만남과 공감의 장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와 관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 사업추진일정 (세부일정 및 내용은 진행과정 참조)

2011. 6월~11월 : 문화예술교과 교육 시작 (이전 3월부터 진행됨.)

7. 30. : 1회 달거리 발표회 (디딤돌 미술전시회 : 공예작품과 그림전시 / 수진역 지하상가)

8. 9. : 2회 달거리 발표회 (옹알이 음악회 : 음악팀 발표 / 주민신탁 생활관)

9. 24. : 3회 달거리 발표회 (음악의 ABC : 음악 발표, 악기 체험부스 진행 / 분당구청 잔디밭)

10. 29. : 4회 달거리 발표회

(학교란 무엇인가, 미디어로 소통하기 : 사진 길거리 전시 / 신흥역 종합시장)

11월 : 발표회 준비 캠프

12. 8. : 5회 달거리 발표회

(청소년 길거리파티 : 거리공연, 전시 등의 거리축제 / 수진역 1번 출구)

12.21. 최종 발표회

(디딤돌 2011년 세번째 백일학교 발표회 '유기농 콩.콩.팥.팥.' / 수진동 성당 Angel's)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달거리 발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팀 구성 : 7월 ~ 11월 - 참여인력 : 상근교사 2인, 학생 대표 2인, 문화예술교과 강사 - 내용 : 발표회 학생대표 선발, 사업 내용 공유 및 기획, 준비모임, 준비조직 구성, 발표회 진행 및 평가회의 - 7월 30일 수진역 지하상가, 8월 9일 주민신탁 생활관, 9월 24일 분당구청 잔디밭, 10월 29일 신흥역 종합시장, 12월 8일 수진역 1번 출구에서 개최. <p>② 발표회 준비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11월 21일 ~ 25일, 청평자연휴양림 - 지난 학기 진행된 수업과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게시물, 영상, 상황극을 만듦. - 집중적인 발표회 준비 <p>③ 최종발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12월 21일, 수진동 성당 Angel's - 디딤돌 2011년 세번째 백일학교 발표회 '유기농 콩.콩.팥.팥.' - 미술, 미디어 작품 전시회, 오카리나, 플루트, 통기타, 드럼, 쥬메, 피아노, 보컬공연 - 영상 작품 상영, 글쓰기 작품이 담긴 문집 판매 등. <p>④ 1인 1악기 익히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7월 ~ 11월, 디딤돌학교 - 오카리나, 플루트, 통기타, 드럼, 쥬메, 마림바, 피아노, 보컬. <p>⑤ 문화예술 교육활동 _ 미술 1 (중등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3월 ~ 11월, 모람아지트, 나무미술 - 총 20차시, 중등과정 전체 학생이 참여 <p>⑤ 문화예술 교육활동 _ 미술 2 (고등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1월 ~ 12월, 디딤돌학교 - 총 14차시, 고등과정 전체 학생이 참여 <p>⑥ 신나는 학교만들기 _ 움직임 신체활동 (중등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3월 ~ 12월, 모람아지트 - 몸을 통한 표현능력 향상, 감정 몰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총 16차시, 중등과정 전체 학생이 참여 <p>⑦ 신나는 학교만들기 _ 미디어 (고등과정 신입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5월 ~ 8월, 디딤돌학교 -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며 자기분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총 13차시, 인터뷰 기법, 자기표현훈련 등. <p>⑧ 신나는 학교만들기 _ 애니메이션 (중등과정 동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3월 ~ 12월, 모람아지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를 매개로 스토리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생각과 과정을 표현하는 체험 - 캐릭터 그리기, 말풍선 채우기, 사진을 활용한 만화만들기, 조트로프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개인작품 만들기, 발표회 <p>⑨ 신나는 학교만들기 _ 사진 (중,고등과정 동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3월 ~ 12월, 디딤돌학교, 모람아지트 - 미디어교육, 사진읽기, 사진찍기, 사진편집, 사진전 <p>⑩ 신나는 학교만들기 _ 마음쓰기 (글쓰기 과정, 중·고등과정 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2011년 3월 ~ 12월, 모람아지트 - 다양한 글쓰기로 주체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 강화. - 총 34차시 진행.
인력계획	디딤돌 교사 및 문화예술교과 강사, 그 외 학생들.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모니터 일시	7월 30일, 8월 29일 9월 24일, 12월 8일	8월 9일, 12월 8일	7월 30일, 8월 29일 12월 8일
모니터 횟수	4회	2회	3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수진역 지하상가, 분당구청 잔디밭, 디딤돌 학교 내, 수진역 1번 출구	성남 태평동 주민실험 생활관 3층 강당	수진역 지하상가, 디딤돌 학교내, 수진역 1번 출구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표회인 7월 30일 수진동 지하상가의 발표회는 완성도가 미흡했지만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남은 발표회의 준비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티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딤돌 백일잔치’는 자기성장보고서 발표에 중점을 두었다. - 스스로 지난 시간 동안의 모습에 대해 글 쓰고 발표하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 기대효과 중 ‘몰입과 성취의 기쁨을 느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 발표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일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양케이트를 하고 쿠키를 사례로 주는 등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자기주도, 사회학습 과정을 익힌다'는 목적에 알맞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표회인 7 월 30 일을 시작으로 12 월 8 일까지 총 5 회의 발표회가 진행 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인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자립심과 사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 사업이었고 점차 아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려는 시도가 보였다. - 하지만 문화예술의 교육적 부분은 미숙했다. 공연의 내용이 좀더 기술적으로 향상되었더라면 아이들의 만족감이 더욱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배운 악기(기타, 오카리나, 피아노 등)을 거리에서 공연했다. : 부족한 연습으로 훌륭한 실력은 아니었으나, 발표회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의 특성상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에서 발전있었음을 확인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동안 매월 마지막 주에 발표회를 하였으나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미디어, 문학, 애니메이션 등 교육의 결과물들이 짜임새 있게 발표가 이루어 지지 못 했다. - 12월 8일 마지막 발표 회에도 음악발표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웠다.
	진행의 수월성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발표회여서 진행은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우선 상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시를 해야 했다. 이미 사전에 약속이 되었지만 전시 당일에 상인들이 불만을 가져서 행사시간을 1 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홍보가 부족했다. 다행히 이벤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전시 작품을 대중들에게 크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의 진행이 수월했고, 학생들의 참여 의지도 보였다. -홍보용 현수막 2개가 설치되었고, 홍보용 리플렛도 비치되었다. -버스정류장이 가깝고 시내 중심가라서 행사 장소의 접근성 좋았다. - 행사장의 편의시설(화장실,식수) 편리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진역 지하상가에서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가 되었음에도 상인들의 항의로 인해 전시시간을 50% 축소하는 등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진행되었던 시간 동안은 몇몇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관심을 보였고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당구청과 신흥생활관의 발표와 진행은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시간이 지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회가 순서에 의해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발표 후 준비하고 다음 발표를 하는

			<p>장소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디딤돌 학생들이 작품을 잘 전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길거리공연을 한 수진역 지하상가와 출구 주변의 공터도 학생들과 사람들이 제법 많이 다니는 곳이었지만 작품을 관람하고 공연을 함께 공감하기에는 장소가 어색했다. 지하상가에서는 상인들이 눈치를 주었고 공터에서는 추위와 날씨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p>	<p>-추운 날씨로 야외공연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날씨 때문에 관객들이 별로 없었고, 공연하는 학생들도 힘들어 보였다.</p>	<p>형식이어서 거리공연임을 감안하더라도 어수선하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아쉬웠다.</p>
--	--	--	---	---	--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1 차	<p>- 아이들의 검정고시가 2 주 남겨진 상황에서 진행한 발표회에서 1 학기에 준비한 미술작품만 전시가 되었고 악기공연은 연습부족으로 공연을 할 수 없었다. 이 사업의 목표가 예술적인 완성보다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이어서 발표회의 예술적 완성도는 높지 않았다.</p>	<p>- 행사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 음악수업 발표회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 준비기간이 단 3번의 수업이었으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p>	<p>- 예술성을 판단하기 힘든 프로젝트이다.</p>
		2 차	<p>- 마지막 공연은 크게 예술적으로 완성된 것은 없었다. 다만 아이들이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고 학교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이 발표회를</p>	<p>- 공연이 연습부족인 듯 보여 아쉬웠다.</p>	<p>- 연습이 많이 부족했고 발표회를 위한 준비는 특별히 하지 않은 것 같다. 연습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발표를 했을 때 자신에게 느끼는 감동과 자기정체성을 찾게</p>

	대중적 호응도		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끼리 좀더 깊이있는 관계를 맺은 것이 이 발표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되는데 별 긴장감 없이 발표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아심이 들었다.
		1 차	-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떠돌다가 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무척 서툴렀다. 특히 아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지하상가에서 이루어진 전시는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1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 관객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 외부인사였다. - 함께 했던 친구들의 보고서발표와 음악발표 때문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 디딤돌학교를 알리고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흡수하기에 수진역 지하상가에는 청소년보다는 할아버지들이 많았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다.
		2 차	- 역시나 학생들의 부모님 참가는 마지막까지 볼 수 없었다. 12 월 8 일 날 한 거리공연은 디딤돌 학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한다. 공연시작 전에 몇몇의 학생들이 와서 준비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사진촬영과 인맥도 그리기 등 몇 가지 이벤트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다.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서 40 분의 공연을 모두 관람하고 가는 학생들이 적었고 디딤돌 주체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자축으로 공연은 마무리가 되었다.	- 추운 날씨와 늦은 시간으로 관객이 별로 없었으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호응도는 높았다.(다만, 디딤돌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인 경우가 많았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디딤돌 아이들과 몇몇 친구들만 있었다. 발표를 하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무대에 집중하여 응원해주었고 박수 쳐주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1 차	-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어떤 문화교육활동보다 크다고 본다. 학교 밖에서 제대로 성장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다. 또한 한 한달에 한번의 발표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탈선문제와 범죄를 예방하고 바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적 공헌이 큰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큰 기여하고 있다.	- 성남의 자퇴율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결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아이들이 학과공부를 비롯해 예술교육을 함으로 정서적 치료와 사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크게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게임중독, 대인기피 등으로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가 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이것은 우리지역 사회가 반듯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디딤돌학교가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길거리 공연 등,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청소년들에게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잠재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1 차	-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만큼 완성된 발표회는 아니었다. 지역 단체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 이 날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미술교육을 받는 것이 지역문화에 기	- 실제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작기 때문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참여해서 지도해 주시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발표회로 성장은 가능하다.	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 차	- 지역 내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문화행사발표회가 열린다. 하지만 디딤돌 학교학생들의 실력과 기획, 진행이 부족해보였다.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한다.	- 길 한복판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도록 함. -지역사회 단체에서 간식사업해주시심. : 지역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보였음.	-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있다면 큰 발전과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역량측정	1 차	- 2001 년에 설립된 학교이고 10 여년의 경험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의 역량은 크다. - 비슷한 성격의 대안학교가 생기고 지역단체와 연결되어 신입생 모집도 대부분 소개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상근교사 6 인이 아이들의 멘토역할을 한다. 학기별로 신입생이 계속 모집이 되고 수료를 하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은 충분해 보였다.	-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발표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의 비협조적인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의 참여 없이는 발표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1년 동안 이어 왔고 여러 대안학교나 청소년 단체, 심터들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상근교사들의 열정과 예술강사님들의 봉사정신이 앞으로도 디딤돌학교 잘 이끌어 갈 것이라 생각된다. - 다만, 아직 열악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만이 더 오래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차	- 오랜 경험이 있는 단체이고 여러 번 본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적극성을 보면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학교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을	- 달거리 발표회 때, 다른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돋보였다.	- 사업을 잘 이끌어 왔고 그 동안의 노하우가 쌓여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도와주시려는 모습도 보았다.		
	프로 그램 지속성	1 차	- 학교설립은 10 년이 되었지만 달거리 발표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여러 미숙한 부분들이 보였으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문제이고 사업의 목표가 아이들이 자신을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사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표회를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 ‘학교’인 만큼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 현재는 매달 준비와 발표를 하기에 바쁜 면이 있으나 달거리 발표회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므로 점점 노하우를 쌓는다면 지속적으로 달거리발표회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차	- 계속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오지 않는 학생들의 집으로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셔서 학교에 다니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업단체가 ‘학교’인 만큼, 학생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기획부터 실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 매달 발표회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교육에 초점을 두어 아이들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시켜 발표회를 하면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기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1차	- 첫 발표회여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발표회가 끝난 뒤에 아이들에게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발표회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으로	-	-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술적 가치나 사업의 역량을 판단하기 보다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현재 본인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와의 소통이 기획의도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목표에 어느 정도

	부터 소외되고 자신을 보여주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좋은 문화예술교육이다.		도달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차	- 5개월 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발표회를 통해 몇몇의 참가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에도 관심이 없었던 아이가 기타를 치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없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표회를 마치는 모습이 이 사업의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에 의의를 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발표회인 만큼 완성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지역공동체 안의 다른 단체들과 꾸준히 함께 하는 발표회라면 더욱 다양한 발표회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디딤돌학교의 달거리 발표회를 통해 얻어지는 점도 있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발표회를 더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디딤돌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 변화가 있길 소망한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문화예술 수업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학교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의 방법과 언어를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 ② 특히 1인 1악기 익히기는 반응이 좋았는데, 한 가지 악기 연주를 목표로 6개월 이상 꾸준한 배움을 제공받은 것은 그들에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 ③ 수업 시수가 적고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이 많아서 기능적인 실력 향상은 예상보다 느렸으나 스스로 과제를 정하고 발표회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몰입과 성취의 기쁨을 느꼈다. 이는 완전한 자기 주도의 사회학습 과정이자 긍정적 자기 인식의 경험이 되었다고 본다.
- ④ 총 5회의 달거리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진행 및 회의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동안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익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이 확충되고, 문화적 경험의 나눔과 소통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다.
- ⑤ 다달이 진행되어야 하는 발표회 기획이 캠프나 검정고시 등 여러 학생일정과 겹쳐 무리인 점이 있어, 시간에 쫓겨 발표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⑥ 이 행사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과 디딤돌학교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거리학교나 일일학교 등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와 배움의 형식을 모색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런 활동의 확대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기 삶과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미래를 전망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의 정서를 치유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 사회와 소통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찾기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② 매월 거리공연 및 발표회 형식의 시도는 매우 참신하고 좋으나, 학사일정, 공간섭외, 촉박한 준비시간 등,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었고, 그 결과 미숙한 기획과 진행이 아쉬웠다. 타 행사의 벤치마킹, 지역 내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등으로 행사를 차츰 보완한다면 공연의 측면에서나 학생들의 기획력 향상 면에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인다.

③ 예술 기능교육이 부족하여, 발표회의 질이 떨어졌고 참여의 의미만을 부여하는 발표회가 되었다. 향후,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발표회가 된다면 학생들의 성취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④ 사업단체의 역량이 충분하며, 앞으로 지역공동체 안의 다른 단체들과 꾸준히 함께 도모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더욱 다양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5) 프로그램 사진



1-5. 중앙시장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중앙 ‘通’시장_중앙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프로그램명	중앙시장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중앙 ‘通’ 시장
주관단체명	중앙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기간	2011년 6월 22일 ~ 11월 16일
사업장소	중앙시장
사업참여인원	약 200 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대형마트 등의 등장으로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사그라지고 있는 이 때, 상인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작가들이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을 꾀하며 지역공동체의 단초가 되고 시장 내 유후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다. 여러 시도들은 시장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사업추진일정 (세부일정 및 내용은 진행과정 참조)

2011. 6월 : 상인 및 주민의견취합 (상인 45명, 주민 93명 응답)

: 시장 내 유후공간 정비, 소규모 무대 겸 휴게시설 구비

7. 24. : 본 프로젝트 오픈식. (길놀이, 고사, 지역예술인 공연)

8. 25. : 시장음악회 개최

9.23. : 주민노래자랑 ‘나는야 시장통 가수왕’ 개최

10.20. :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한 마당 - 시장 문화예술제 개최

8월~11월 : 시장 커뮤니티 강좌 진행 (건강 에어로빅,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목공강좌)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시장 내 유희공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6월 27일 ~ 29일 - 간이공연장 조성 - 조성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휴게시설 구비 <p>② 생활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설문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6월 22일 ~ 30일 - 상인 및 주민의견 취합 (상인 45명, 주민 93명 응답) <p>③ 시장 커뮤니티 강좌 _ 에어로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8월 24일 ~ 10월 말 - 상인들과 함께 하는 건강 에어로빅 (매주 2회, 상인 20여명 참가) - 10월 행사 시 공연 참가 <p>④ 시장 커뮤니티 강좌 _ 목공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1월 26일 ~ 12월 26일 - 1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취사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11월에 진행. - 지역주민과 학생 6명 참여. <p>⑤ 공연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오픈행사 : 7월 24일. 길놀이 고사, 지역예술인 공연, 사업소개 - 8월 시장음악회 : 8월 25일, 노래공연, 판소리 등, 주민 200여명 참여 - 9월 주민노래자랑: 9월 23일, 주민노래자랑,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주민400여명 관람. - 10월 시민 한마당 : 10월 20일, 시장 문화예술제. 가족요리경연, 문패만들기, 주민노래자랑, 시장상인 에어로빅 공연, 영화상영.
인력계획	중앙시장 상인회, 우리소리연구회 솃대, 지역작가 및 지역예술가 다수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모니터 일시	7월 24일, 8월 25일, 9월 23일, 10월 20일	7월 24일, 8월 25일, 9월 23일, 10월 20일	7월 24일, 8월 25일, 10월 20일
모니터 횟수	4회	4회	3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중앙시장		

* 모니터 3은 현장평가지 미제출.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어 곳의 점포에 들러 상설무대를 물어보았는데 잘 모른다는 대답을 했다. 홍보가 다소 미흡한 편인 것 같다. - 대부분의 점포는 일인운영이 많아 행사의 참여도가 떨어졌다. 우선은 상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더운 여름에 오픈행사를 하게 되었으나 개막식행사시간이 오후이고 그늘막 설치 등의 보완점이 있었다. - 시장입구에 오픈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인 인터뷰결과 오픈행사를 알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미리 홍보가 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우리마당, 솟대 등 지역내 예술단체가 행사에 참여하여 초기 사업계획대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2~4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전통시장보다 활기차고 프로그램의 구성을 잘했다. 또한 상인들의 협조는 여전히 대단하다. 더 이상 잘 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사업과 몇 가지 내용면에서 변화가 있으나 전통시장발전 및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는 커다란 역할을 했다. - 단적인 예로, 7월 오픈행사부터 10월 마지막 행사로 넘어갈수록 프로그램내용이 점점 풍성해졌으며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다.
	진행의 수월성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은 원활 하게 잘 되었다. 사회도 매끄럽게 보았고 막힘 없이 원활한 진행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1시간 전부터 도우미학생들이 전단을 나눠주며 홍보했다. - 주택가이고 버스정류장에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했다. - 상설무대옆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 시장내 행사환경으로는 우수했다. - 행사순서 등의 안내장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행사순서를 미리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 행사 중 다음 달에 있을 행사에 대한 공지했다.
		2~4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빛나 보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무대주변, 시장상가, 자동차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 매회마다 구경은 사람들이 많아 서서 관람하거나 바닥에 앉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1 차	- 출연자들 자체가 전문적인 예술가라서 그런지 분위기도 좋았고, 수준 또한 높았다.	- 민요, 사물놀이, 사자춤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오픈행사 공연비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대비 참여한 예술인들의 수나 프로그램을 보면 알찬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장소에 걸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 같다.
		2~4 차	- 한 마디로 만족스럽다. 가훈 써주기, 문패 만들기 등 새로운 맛이 있다.	- 처음 음악회는 지역예술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들이 공연을 하였다. 오픈행사 이후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상인들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주민잔치한마당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 예산대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한 것 같다.
	대중적 호응도	1 차	- 대중의 호응은 너무 좋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참여연령: 유,초등생 소수와 60대이상이 다수, 그리고 중년층이 중간층을 이루어 약 100여명정도가 모였다. - 상인들을 위한 에어로빅프로그램은 개별인터뷰결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 관객이 무대 가까이 나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다만, 최신댄스,가요 등 2~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웠다.
		2~4 차	- 바쁜 와중에 상인들이 직접 참여도가 높았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좋았다.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관객은 적게는 100여명부터 많을 때는 200여명이 넘어 보였다 여러 공연 및 주민참가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엿보였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1 차	-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꽤 괜찮은 편이다. 전통시장이라면 우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한다. 뭔가 전통시장의 모습을 잃어가는 요즘 꼭 필요한 공연이었다.	- 다양한 오픈행사로 인해 중앙시장에 가면 볼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재래시장에서 문화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마련했다고 본다. - 지역 내 대형마트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여건개선에 도움이 되고, 시장상인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4 차	- 전통시장에 걸맞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인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	- 상인회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준비, 활동함으로써 지역사랑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히 직접 행사 후 뒷정리나 먹거리 마련하는 모습은 전시용 행사가 아닌 나의, 우리의 잔치임이 느껴졌다.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1 차	- ‘문화’ 라고 하면 특정인들만 즐긴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 성남의 다른 재래시장의 귀감이 될 수 있으며 모란장과 더불어 성남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거라 사료된다.
		2~4 차	- 전통시장이라는 단점을 보완한 프로젝트로 내부보다 외부에서 만족도가 더욱 높았으며, 행사로 인해 지역과 시장을 알리는 효과가 컸다.	- 지역 내 예술인에게는 공연활동의 장소가 제공되며 중앙시장상인 및 인근주민들에게는 손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 전문예술인뿐 아니라 학교댄스동아리, 문화센터 수강자들의 공연장소로도 적합하여 주민들이 자주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어줌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위자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 주체 역량 측정	1 차	-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숨겨진 뭔가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 해주는데 큰 역량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첫 시장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행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묻어나는 것 같다. 행사진행이나 관객을 몰입시키는 면에서 능숙함을 보여줬다. - 행사 후 뒷풀이에서 지켜본 바

				참여단체회원들 끼리의 끈끈한 유대감이 돋보였다.
		2~4 차	- 사업주체의식을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 보이며, 지역의 네트워크 능력이 뛰어났다.	- 매월마다 진행된 행사에서 각각의 특색이 드러나 꽤 고심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연령대별의 프로그램구성 및 프로와 아마추어공연의 배분 등도 적절히 잘 짜여졌고 특히 참여한 여러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지속성	1 차	- 오픈 행사를 비롯해, 우선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시장상인들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 질지가 사업성공의 열쇠라고 보여지나 그 과제를 극복하면 좋은 성공프로젝트의 예가 될 수 있다.
		2~4 차	-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행사 횟수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중앙시장 상인회 및 부녀회 등의 의지가 강하고, 올해 주최측의 열정도 돋보인다. - 기획총괄자가 사회적기업 등 다른 구상을 하고 있어 재원마련의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초기 정착할 때까지 좀 더 안정적이고 확고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올해 사업로 중앙시장이 상설공연장의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써 내년에는 훨씬 수월하게 여러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1차	-	- 시장 오픈행사에 걸맞는 흥이 나는 무대였고 행사 후 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여 예술인이 많은 편이었는데, 예산이 적어 안타까웠다.
2~4 차	무엇보다 상인회가 매우 열성적이었다. 특히 상인대학을 수료한 후, 이어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예상롭지 않은데 2 세대도 상인의 대를 이어 받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는 말에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 중앙시장의 공동체만들기사업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중앙시장의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장과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안정과 열정의 장으로 바뀌었고 주최측만의 행사가 시장상인들과 주민참여로 ‘우리’의 행사로 변화하였다. 제한된 자원으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주최측의

		<p>역량이 놀랍다.</p> <p>기타의견 > 행사의 규모와 참여인력을 볼 때, 적절한 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p>
--	--	---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무대설치로 공연과 휴식이 가능한 시장 내 문화공간이 형성되었고 무대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물자의 유통공간에 그쳤던 시장은 문화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② 정기적인 음악회로 문화예술이 가미된 시장을 형성했다. 더불어 시장 내에서 문화프로그램(에어로빅)을 진행함으로써 여건이 어려운 상인들이 직접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했다.
- ③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의 여건을 마련했다. 공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재개발 추진 시 시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었다.
- ④ 열악한 재래시장의 조건이지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며 시장에 대한 인식재고의 기회 마련했다.

- 호응도

- ① 상인 : 진행사업들을 적극 도와주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잘 될지 의문을 가졌으나 진행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진행 작가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수록 신뢰가 높아졌다.
- ② 주민 : 주변지역 주민들은 시장을 많이 이용하며 시장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중장년층은 시장의 이용과 관심이 많은 반면 젊은 층은 관심이 적은 편으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 ③ 참여예술인 : 본 사업을 통해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

- 개선사항

- ① 장기적인 비전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상인회, 지역주민, 지역예술가들이 사업주체로 모여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라 보여진다.
- ②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상인 및 주민 대상으로 요구조사가 선행된 점과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한 월별 행사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점 등은 타 사업과 변별력을 가지며 성공적 사업수행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 ③ 사업주체로 모인 각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그들 스스로 '우리'의 사업이라고 인식했기에 사업의 달성도, 예술성, 호응도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④ 사업주체의 역량이 매우 충분한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로 이어나가길 바라며 사업규모에 알맞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1-6. 판STORY교 _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프로그램명	판STORY교
주관단체명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사업기간	2011년 6월 3일 ~ 10월 1일
사업장소	보평초등학교
사업참여인원	보평초등학교 학부모 6인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마을을 공간으로 다리를 놓아 ‘마을 공간 다시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가진 ‘판STORY교’는 내가 사는 동네에 다양하게 흩어진 곳곳의 공간을 찾고 판교의 이미지를 재창조, 재생산해낸다. 이 과정은 연극과 미디어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마을공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로 다리를 놓아 여러 공간들을 의미있는 장소로 재탄생시킨다. 여기서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1월 : 보평초등학교 코디네이터와 보평초 학부모들과 사업논의

3월 : 보평초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역할과 전망 참여 및 논의

4월 : 참가 학부모 회의 및 사업방향 논의

5월 : 학교 문화예술코디네이터와 협의 및 향후 학교사업과 연계 논의

6월 : 첫 모임으로 수업시작 (6월 10일)

7월 ~10월 : 15차시 교육진행

10월 : 공연 (1회 : 10월 1일, 보평초 시청각실 / 2회 : 보평 아라리오 마을축제 야외공연)

참가 학부모, 보평초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출연진 등 평가회의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만남 : 연극놀이를 통해 문화예술로 만나는 소통을 만끽하고 마을에서의 자기 정서와 욕구 만나기 ② 이야기의 발견 : 마을의 공간을 조사하고 현재의 터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그림, 이야기, 글, 시, 사진, 영상, 설치물들로 재생산하고 나눈다. ③ 다리 놓기 : 위의 활동을 종합하여 노래가 있는 이야기 극을 만들어 마을공간과 주민이 재생산해낸 의미와 이야기들을 다리 놓아 공유한다.	
인력계획	책임강사 1인, 보조강사 2인, 외부전문강사 1인, 기록, 음악작곡	
교육내용	1차시	연극놀이를 만나는 나와 우리 / 연극놀이
	2차시	몸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소통
	3차시	나의 자서전 이야기
	4차시	마을과 만나는 우리의 일곱 빛깔 무지개
	5차시	마을 스케치 : 마을공간 탐험 / 사진 및 그림
	6차시	마을 지도 만들기과 공간 의미 찾기
	7차시	공간에 이야기 옷 입히기
	8차시	공간과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 찾기
	9차시	공간·소통을 위한 작업과 공유 / 초등학교 학생, 주민들
	10차시	공간이야기의 변신 1 - 노래, 시, 사진으로 디자인하기
	11차시	공간이야기의 변신 2 - 노래, 시, 사진으로 디자인하기
	12차시	공연 연습
	13차시	공연 연습
	14차시	공연 나누기 / 봇들 마을 축제 (보평초)
	15차시	사업결과 보고 나눔 및 합평회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7월 8일, 9월 2일, 10월 1일	7월 8일, 9월 2일
모니터 횟수	3회	2회
교육 및 행사 장소	보평초등학교, 나들이공원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1 차	- 사업계획서와 실제 진행되는 교육의 실현 정도는 잘 이뤄지고 있음. 교육내용도 계획서상 계획된 내용을 교육했다. 당시 참여한 참여자들의 의욕도 보임. 단, 참여인원 부족하다.	- 사업 완성도 면에서 아직까지는 매우 부실한 단계로 보인다. 현재 참여 학부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 차	- 마을축제 연기로 공연도 연기되었다. - 경원대와 연계하여 행사를 준비했다.	-1차 참관과는 사뭇 다르게 상당히 사업(공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디어 드로잉'으로 구체화되는 작업을 보면서 공연의 가능성을 느꼈다.
		3 차	- 보평마을축제추진위원회와 연계 - 주민 약 250~300 명이 관람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에 맞는 주제로 주민들과 소통하였다. 단독 공연과 전시가 아닌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진행의 수월성	1 차	- 담당강사의 교육(내용, 예시 등)과 보조강사들과 실습 및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 교육장소가 학교이다보니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졌다.	- 작업 중간 중간 화이트 보드에 그 날의 숙지 내용 및 작업에 따른 내용 등을 강사가 정리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2 차	-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는데 무리한 점은 없었고 공연 및 전시에 필요한 내용 창작은 완료 되었으며 마지막 기획·연출 단계에 들어갔다.	- '미디어 드로잉'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었는데 사업 담당자의 열의와 참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관심으로 '미디어 드로잉' 프로그램은 즐겁고 정감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3 차	- 팸플렛과 배너, 현수막 등 비치. -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에 문제없었다. 다만 보평 아라리오 축제의 진행이 미숙하여, 공연장비(전기시설) 부족, 본 행사로 유도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웠다.	-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담당강사도 그에 따른 많은 자료를 보여줌으로 참신하고 흥미롭게 작업하였다. - 신청금액보다 적은 지원금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예산에 맞는 범위 내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프로그램들은 흥미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요소들을 어떤 일관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작품 창작형식이 아닌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의를 했다. 장면을 연출한 후, 미디어 드로잉 기법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등 독창성과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드로잉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기법이 참신함. 무엇보다 주어진 틀 없이 자유자재로 신체를 움직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템이 흥미롭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고 본다. '함께하는 재미'에 초점을 뒀다.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에서 미디어드로잉과 판교의 이야기가 잘 어울려져 참신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로 연출했다. - 지도에 따라 기획, 연출, 음향, 연기 등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전시부분에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참신한 전시품을 만들었고 참가자가 낸 아이디어와 각각의 주제가 어우러져 수준있는 전시가 되었다. 	-
	대중적 호응도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자의 호응도로 평가하자면 참여자의 수가 3~5 명에 그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준비 단계라 대중의 호응도를 단언하는 것은 무리이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기법과 소재로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감상 할 수 있었다. - 교육 참여자인 학부모들과 학부모의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며 재밌게 참여했다. - 소재 또한 특정대상에 치우치지 않은 '학교'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참관을 통해 5~6명의 학부모들의 정성을 확인. 참관한 모니터 두 명도 미디어드로잉 재미에 빠져 함께했다. - 미디어 드로잉은 타 사업에서도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로운 연출로 어린이들은 재미를 느꼈고 중·장년층은 옛 추억을 느끼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 여러 연령층이 공감할 수 스토리텔링기법이 돋보였다. - 행사시기와 장소는 주말 저녁 가족들이 나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와 마을 중심의 공원으로 접근성이 높았으며 마을의 공용자원을 잘 이용했다. 	-
--	--	-----	---	---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목적으로 볼 때 신도시인 판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보인다. - 신도시의 특성상 지역주민과 같이 어울릴 기회나 여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공간에서 학교를 통한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학교생활의 추억, 자녀들이 학교, 그리고 동네의 여러 생활공간을 활용함으로 교육진행에 있어 참여자가 지역에 대한 애정도를 높일 수 있게 기획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업의 지역적 선택은 적절하다고 보임. 그러나 판교 ‘신도시’라는 특징은 농촌 사업으로 생각됨. 각종 첨단 융합 기술연구시설, 인텔리전트 빌딩, 금토천과 운중천, 나들목이 있는 신도시 특색을 이번 사업에 추가 반영했더라면 舊+新의 효과를 봤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끼리 소통이 적은 삭막한 도시’ 라는 점을 참여자들도 잘 알고 주민간의 커뮤니티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법으로 참여자 스스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창작활동을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교의 ‘역사, 토대 없음’에 대한 측면이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판교의 역사 스토리를 만든다는 취지가 판교 주민들에게 지역愛를 갖게 하는 사업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가능하다고 보인다.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이 끝난 후 사업 참여자들과 아는 지인들과 공연을 매개로 서로 대화가 이뤄졌으며 또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사업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판 STORY 교의 활동이 이를 연계하였다고 보여진다. - 지역이 소재가 되어 자신의 동네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판교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 애정도가 높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주제로 학부모들의 학교생활과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연관시켜 부모와 자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벗들마을축제’와 연계하여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장소를 탐방하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했다. 	- 기본 프로그램이 다소 추상적이라서 지역문화자원을 어떤 시각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아직 미약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 이번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과 지역커뮤니티가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면 충분히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됨. - 경원대 미술대학과 연계한 것은 대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고 분야의 준전문가인 학생들의 활동 모습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보다 판교인들의 단합을 끌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좋은 학교와 벗들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공원을 이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또한 참여자 중 미술을 전공한 회원이 있었고 참여자 대다수, 자신의 전공 및 기술, 능력을 활동에 기여했다. 	-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차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역량측정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진행자는 참여자들을 믿으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작품에 크게 기대했다. 참여자들이 의욕적. - 사업단체의 오랜 경험이 돋보였다. 지역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라 보임. - 참여자 대부분 학부모회원들이며 학교를 통한 네트워크가 잘되어있음. 또한 <p>‘놀마루(http://cafe.naver.com/pankyonollmaru)’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 교육시 필요한 자료 및 내용을 공유하며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체에서는 행사 지속을 원하고 있다. - 사업단체 내에 전문가 활동 중인 미술가, 도예가, 연극인 분들이 후원 배치되어 있으나 그 분들의 행사 지속성 의지는 아직은 명확히 모른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평초등학교와 경원대 시각매체디자인학과와 연계하는 등 사업적 역량과 지역 연계성을 확장하고 있다. - 공연·전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참여자들도 의욕을 가지며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을 주민인 참여자들은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길 바라며 지역커뮤니티의 단초가 되어야겠다고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서는 사업에 대한 세세한 아 이템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평가하기 어렵다.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체의 전반적인 기획력이 돋보였고 참여자들도 활동에 자부심을 느꼈다. 지역문화발전과 커뮤니티 형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의견을 들었다. 	-
	프로그램 지속성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다고 보인다. 신도시 안의 삭막함을 해소 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지속될 시 지역 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주체적인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도 있었다. - 참여자들의 의지와 참여의도는 좋으나 좀 더 확대될지에 대한 가능성은 차후 지켜봐야 할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참신성, 새로움이 적어 향후 계속 진행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진행자의 마음가짐과 참여자들이 마을에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욕구가 있으나 이번 공연·전시가 끝난 후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된다.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구심점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서는 사업에 대한 세세한 아 이템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평가하기 어렵다..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프로젝트로 1 회 공연과 전시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준비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의 커뮤니티와 풀뿌리 지역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신입단원을 모집하는 등 지속을 위한 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동호회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으며 이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있다면 프로그램은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1차	계획서 상의 인원만큼 모집되지 않았고 분명한 매체(연극이면 연극, 미술활동이면 미술활동)가 없지만 다장르의 총체적인 경험으로 공연까지 준비하는 사업단체와 참여자들의 마음이 돋보이는 사업이었다.	이번 사업은 ‘판교’라는 신도시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적게 되는 판교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마을애와 자기애를 갖게 할 목적으로 보이며, 기획의도는 좋다. 그러나 사업내용과 현재의 준비과정을 보면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다. 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프로그램의 연계가 부족해 보인다.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준비 마무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판교 지역 내 문화예술커뮤니티를 구성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뿐만 아닌 참여자들도 사업의 중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각자의 역할의 중요함을 느꼈다. - 미디어 드로잉이라는 독특한 매체를 이용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동아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 	-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헌과 예술성, 대중 호응도에 대체적으로 성과가 높게 보인다. 마을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참여자 대상의 교육 및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 	-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학부모, 마을주체자로서의 담론 형성

교육연극, 이야기를 통한 주체 찾기, 글쓰기와 예술적 표현의 작업방식을 통한 학부모 삶의 의미와 판교에서의 생활 단면들을 성찰하고 이야기함으로 이 곳에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살아가야 할 문화주체자로서의 담론을 형성했다.

② 학부모 동아리의 자발적 진행

공연과 전시의 주체를 해마루 쪽에서 제시하였으나 이후 실제 작업에서는 학부모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 전시와 공연을 진행했다. 사업종료 되었으나 학부모 동아리인 '놀마루'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속될 지역 내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③ 구성원들의 삶을 예술로 풀어내기

학부모 동아리의 구성원들의 어린 시절과 현재 판교에서의 삶을, 전시와 미디어 드로잉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간의 심리적 역동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동아리와 구성원들간의 애착이 형성되었다. 전시와 공연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했다. 삶과 밀접한 예술, 예술을 통해 이야기하는 삶에 대해 다양한 예술방식으로 접근했다.

④ 네트워크와 협력지원

보평초 주최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마을축제 위원회, 학교교사 및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마을 만들기 사업팀, 경원대학교 시각매체디자인과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지원으로 전시설치 및 공연전반의 도움, 학교 문화예술지원 사업인 학교 공간읽기 프로그램 연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협력자원, 지원이 원활했다.

- 호응도

① 동아리 구성원 :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동아리와 그 구성원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한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시와 미디어 드로잉 퍼포먼스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부적인 활동 전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자발적인 연구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② 외부 반응 : 전시와 공연에 대한 학부모, 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이 컸다. 진행과정에서는 구성원들의 지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전시와 공연 후에는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호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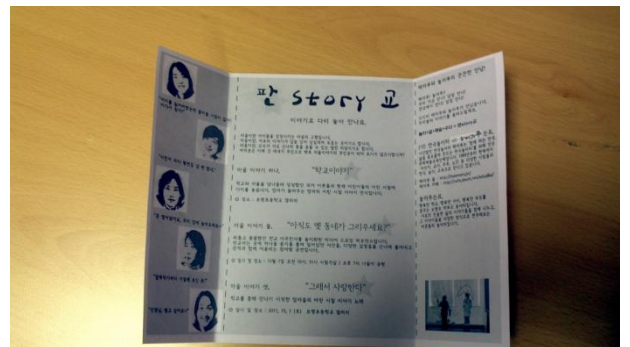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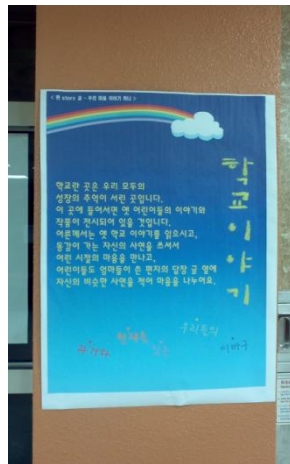
- 특기사항

보평초등학교에서 경원대 미술대학과 MOU를 맺어 판STORY교 전시와 홍보물 디자인에 함께 참여했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동네’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하고 공연까지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향상시켜 지역 내 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2명의 모니터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미디어드로잉, 연극 등 다양한 매체의 결합은 문화예술향상을 통한 지역 내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작업은 개개인의 소통과정을 경험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 ③ 지역학교와 지역대학생을 연계하고 생활권과 근접한 공공근린시설을 이용한 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상호 공동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④ 본 사업을 통해 주민커뮤니티(놀마루)가 꾸러졌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모임을 지속할 의지가 분명했다. 향후, 동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의지가 강한 만큼 자립방법을 연구하여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커뮤니티로 자리잡을 가능성 있다. 또, 마을중심의 문화공동체, 커뮤니티로 발전하기 위해선 참여자 대상의 교육 및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 일반지원사업 : 총 23개 사업

분야 (장르)	사업명	사업단체명	사업내용 요약
공연·기타	서울기타과르텟 10주년 연주회	서울기타과르텟	음악전공한 전문연주인의 정기연주회
공연·합창	다문화합창단 Uangel Voice Jr.의 ‘동요야 놀자’	재)유엔젤보이스	유엔젤보이스 주니어들의 정기발표회
공연·양상블	양상블 ‘오감’과 함께 하는 ‘AH~!merica’	양상블 ‘오감’	국악전문 연주단체의 정기발표회
공연·오케스트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성남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발표회
전시·회화	도시에 핀 들꽃전	들꽃미술가회	전문 미술가들의 들꽃 그림 전시회. 어 린이들의 그리기 체험코너 마련.
공연·전통 예술	2011 문정숙의 색 - 70년을 돌아본 색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	사사받은 전통연희 설장구, 40년 활동 에 대한 발표회
공연·전통 예술	2011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소리사랑회	국악을 배우는 동호회의 발표회
공연·창작극	뱀-한국편	창작그룹-오기	전문연극집단의 창작극 발표
공연·합창	제16회 이듀스마스터 코랄 정기연주회	이듀스마스터코랄	교사들로 이뤄진 합창단의 16번째 정 기발표회
공연·전통 예술	여름방학 어린이 국악콘서트 ‘한마음’	민족음악원 분당지부 운풍헌	어린이 국악교육기관, 정기발표회
공연·연극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연, 이미지 음악 인형극-소금인형	극단 로.기.나.래.	전문극단의 공연발표회
공연·아가 펠라	아카펠라와 만나다! 아카펠라 그룹 ‘젠틀브리즈’ 창작공연	젠틀브리즈	아카펠라 동호회의 발표회
전통 음악	송규정의 정가	소석가악원	전통음악 ‘정가’ 발표회

공연· 뮤지컬	청소년창작뮤지컬 ‘네버랜드’	성남뮤지컬컴퍼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교육 후, 공연.
공연· 플루트	코리아메이저플루트 오케스트라	코리아메이저 플루트 오케스트라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발표회
공연· 뮤지컬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지컬	EPPL (Ever Play)	청소년들에게 뮤지컬 교육 후, 공연.
교육· 시각 예술	사회소외계층 중학생대상 미디어 여행 프로젝트 ‘길이 나에게 묻다.’	사진모임 ‘찬란한 일상’	일반 직장인동호회에서 지역청소년들 과 함께 여행을 떠나 사진, 스케치로 소통. 상영회 가짐.
영화· 교육	행복한 영화	포토펠리스	지역노인들과 함께 영화촬영. 상영회 가짐.
교육	마을배움터 형성을 위한 10대 창의예술아카데미	성남청소년 창의스쿨	청소년대상으로 전통문화 시연 교육 및 토론회 개최
교육	은행주공아파트 ‘제5회 문화배움터’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주부들의 커뮤니티. 쿼트, 수채화 배 움. 이후 문화품앗이 진행
작은 축제	제3회 줌나날다	성남여성회	여성회 내의 작은동호회의 발표 및 전 시
교육· 신문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어린이기자단	어린이들이 만드는 동네신문.
공연· 통합	2030 토크콘서트 ‘청춘불패’	성남청년회	사업포기

*** 일반공모지원사업별 모니터 인원**

번호	사업명	사업단체명	모니터 인원
2-1	서울기타콰르텟 10주년 연주회 Historie du Quartet	서울기타콰르텟	2명
2-2	다문화합창단 Uangel Voice Jr. ‘동요야 놀자’	재)유엔젤보이스	3명
2-3	양상블 ‘오감’과 함께 하는 ‘AH~!merica’	양상블 ‘오감’	2명

2-4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2명
2-5	도시에 핀 들꽃전	들꽃미술가회	1명
2-6	2011 문정숙의 색 - 70년을 돌아본 색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	3명
2-7	2011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소리사랑회	1명
2-8	뱀-한국편	창작그룹-오기	1명
2-9	제16회 이듀스마스터코랄 정기연주회	이듀스마스터코랄	2명
2-10	여름방학 어린이 국악콘서트 ‘한마음’	민족음악원 분당지부 윤풍현	2명
2-11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연, 이미지 음악 인형극-소금인형	극단 로.기.나.래.	1명
2-12	아카펠라와 만나다! 아카펠라 그룹 ‘젠틀브리즈’ 창작공연	젠틀브리즈	1명
2-13	송규정의 정가	소석가악원	3명
2-14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지컬	EPPL (Ever Play)	3명
2-15	사회소외계층 중학생대상 미디어 여행 프로젝트 ‘길이 나에게 묻다.’	사진모임 ‘찬란한 일상’	3명
2-16	행복한 영화	포토펠리스	2명
2-17	마을배움터 형성을 위한 10대 창의예술아카데미	성남청소년 창의스쿨	2명
2-18	은행주공아파트 ‘제5회 문화배움터’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2명
2-19	제3회 줌마날다	성남여성회	2명
2-20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어린이기자단	1명
비고	- 청소년창작뮤지컬 ‘네버랜드’, 코리아메이저플루트 오케스트라는 모니터 사업 이전에 사업완료. - 2030 토크콘서트 ‘청춘불패’ (성남청년회)는 사업 포기.		

2-1. 서울기타과르텟 10주년 연주회 ‘Historie du Quartet’ _ 서울기타과르텟

프로그램명	서울기타과르텟 10주년 연주회 ‘Historie du Quartet’
주관단체명	서울기타과르텟
사업기간	2011년 8월 28일 오후 7시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사업참여인원	6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클래식 기타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공연을 하고 있는 서울기타과르텟은 1999년 7월 창단된 후, 기타로 작곡된 곡 이외에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편곡, 연주하여 다양한 레퍼토리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기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사업추진일정

2011. 7월 : 월 악보 편곡 작업 시작, 연주회 연습 시작

8월 중순 :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내 광고문 기재, 보도자료 배포

8. 28. : 연주회, 오후 4시 리허설, 오후 7시 본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연주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 월 악보 편곡 시작, 연주회 연습시작 - 8월 : 본 공연 <p>②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중순 :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내 광고문 기재, 보도자료 배포 - 동호회, 관련 학원 등에 연주회 자료 배포 - 관련 인사들에게 초대권과 안내문 배포 - 대행사 : 연주회 홍보 및 공연장 스텝 보조, 포스터 기획 및 배포, 인터넷 홍보 등 대행
-----------------	--

2) 현장평가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8월 28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씨어터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대중적 관심이 많아진 시점에서 열린 클래식 기타 연주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본 사업의 목적이 클래식기타의 대중화와 고전부터 현대까지의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여 연주함으로써 클래식기타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해서 대중들이 친숙하게 듣는 것이다. 연주자중의 한 분이 곡을 설명하고 기타 연주기법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게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시켜주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내용과 프로그램이 일치하고 클래식기타의 대중화라는 취지에 맞게 공연 중과 공연 후에 해설 및 팬 싸인회등의 구성이 돋보였다. - 방학중 공연이라 청소년들의 관람이 용이했으며 자체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센터의 공연진행은 워낙 자연스럽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공연 중 진행도 자연스러워서 순회공연을 많이 한 공연팀임이 증명된 듯했다. - 다만 아직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라서 객석의 30%정도 비워져있었고 기타 4중주의 음악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이 되어서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그리고 초중고생의 학생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인터넷과 언론의 홍보는 잘 되었지만 인근 주민을 위한 홍보는 좀 부족해보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장소인 앙상블씨어터 지하1층에는 공연포스터가 보이지 않아 측면에서 들어오는 관객은 공연장소를 찾는데 어려웠을 것 같았다. 포스터, 팸플렛, 티켓 등 신청서대로 집행되었다. - 현수막과 전단지 등의 홍보가 부족했지만 관객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및 클래식기타동아리를 통한 홍보는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공연 중간중간에 곡해설이 이루어져 초보자와 후반부에 들어온 관객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 아트센터 내 화장실등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 공연 전 관객에게 공연취지를 설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으나 가을에 어울리는 탕고곡 선곡도 좋았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오디션 붐으로 인한 기타의 관심을 무척 대단했다. 꽤 많은 매니아들의 관객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1 부의 공연은 클래식기타의 고전적인 이미지와 여러 연주 기법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 잡았다면 2 부는 친숙한 이미지로 집중력이 흐려진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예술적 완성도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매우 훌륭했다.	-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공연중간 다양한 클래식기타주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뒀다. - 직접 편곡작업하여 줄어든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연 완성도가 높았다. - 연주자 개개인이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적 호응도	- 여자 고등학생이 혼자서 인터넷으로 공연 일정을 보고 티켓을 사서 올 정도로 매니아 층이 있었다. 20 대의 기타 동호인과 50 대 이상의 중년의 부부들로 이루어진 관객도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다른 공연과 다르게 관객의 집중도는 굉장히 높았다. 마지막 앵콜에 대한 호응도 객석이 만석일 때처럼 신나게 이루어졌다.	- 어린이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 인터미션동안 관객인터뷰를 했는데 처음 기타공연을 접한 사람부터 아마추어까지 반응이 좋았다. - 공연에 후원회의 회원이 아마추어연주자로 참여함으로써 클래식기타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 초등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으로 약 200석이 채워졌으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난 관객이 거의 없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지역의 기타 동호인들에게 충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매니아층으로 이루어진 관객들로 대중적인 공연으로는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지역적 공헌은 기대하기 어렵다.	- 인근 초중고 학생들 및 주민들에게 클래식기타공연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타공연에 비해 저렴한 티켓비용이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꾸준한 클래식기타 공연으로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요즘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기타반이 신설되고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때에 공연이 지속적으로 열린다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져 소규모 문화활동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본다.	- 성남지역에 클래식기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켰다. 국내에 전문 클래식기타공연이 거의 없으므로 매년 연주회가 성남시의 클래식기타 매니아의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가 성남주민으로 성남지역에서의 활동 및 공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1999년 7월에 결성, 서울과 지방 공연, 음반 발매, 일본기타중주콩쿠르에서 1위를 입상 경력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정을 받았다. 연주자 여섯분 모두가 교수와 전문 연주인으로써 역량이 대단한 분들이었다. 또한 한국기타협회, 기타문화연구소, 원음기타, 평택대학교로 후원을 탄탄히 확보했다.	- 10년 이상 연주를 해온 단체로서 지원서에서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했다.
	프로그램 지속성	- 1년에 30회 정도의 순회공연을 하는 단체로 지속적인 공연 의지는 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입예비단원의 육성과 참여회원의 모집여부는 알 수 없었다.	- 급격하게 대중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클래식기타동아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10년째 정기연주회를 지속하여 팬층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 - 매년 관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지속이 가능하다 보인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 연주 내용과 진행이 모두 최고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지역단원을 모집해서 초보자들의 연주도 함께 했으면 보다 대중적인 접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주단체라 연주내용이나 전체 프로그램진행에 있어서 편안한 점이 돋보였다. 이 지역의 클래식기타 대중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공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연장소도 어려운 여건들이 있겠지만 지역 내 카페, 공원 등 조금 더 대중과 밀접한 공간으로 나가면 좋겠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이번 연주회는 서울기타콰르텟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로 다양한 레파토리를 선보였다.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한 클래식 곡부터 플라멩고,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음악적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② 연주회 중, 음악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애썼다. 관객들의 높은 호응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③ 직접 편곡하는 등, 공들여 준비한 만큼 많은 것들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연주회여서 우리 단체는 만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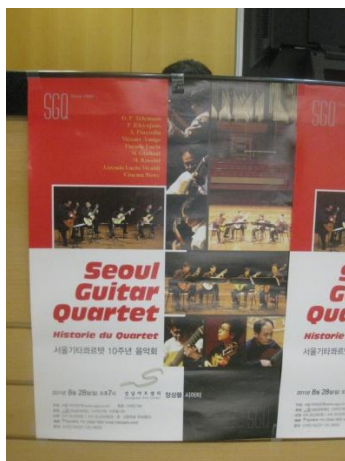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지속적인 정기공연을 가지고 있는 본 사업단체는 구성원 모두가 전문 연주인으로, 뛰어난 연주기량과 무대매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②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도록 곡의 소개, 계절과 어울리는 대중적인 음악의 선곡 등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③ 클래식기타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공연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고 단체의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매니아층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2. 유엔젤보이스 주니어의 ‘동요야 놀자’ _ 유엔젤보이스 주니어

프로그램명	유엔젤보이스 주니어의 ‘동요야 놀자’
주관단체명	유엔젤보이스 주니어
사업기간	2011년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사업참여인원	24명 (찬조출연 포함 총 120명 / 관람 350명 이상)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어린이들 및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통해 문화를 배우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합창단 유엔젤보이스 주니어를 창단하고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모든 문화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건전하고 밝은 또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각국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와 민요를 통해 스스로 꿈을 갖길 바라며 한국과 외국의 동요와 민요를 안무와 함께 부르며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3월 : 공연기획 (출연진, 프로그램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홍보시작

4월 : 단원모집 완료, 음악회를 위한 집중연습

5월 : 언론 홍보 시작 (보도자료 작성)

6월 :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 유엔젤보이스 주니어 외, 스윙걸즈, 유엔젤보이스, 사랑애중창단의 찬조출연.</p> <p>① 연주회 오후 2:00 무대셋팅 (음향, 조명 포함) 3:00 리허설 6:30 공연준비 7:30 공연</p>
-----------------	---

	② 공연레파토리 - 스윙걸즈 : SoulBossanova 외 - 유엔젤보이스 주니어 :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외 - 유엔젤보이스 남성중창단 : 대 성당들의 시대 외 - 유엔젤보이스 주니어(예비반) : 아기염소 외 - 사랑애중창단 : 고향의 노래 외. - 다함께 : 보물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모니터 일시	6월 30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씨어터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사업목표와 실제 행사의 실현 정도는 다양한 문화의 어린이들과 함께한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좋았다. -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유엔젤보이스의 공연팀과 사랑애중창단과의 공연구성이나 연출 등 공연내용에 짜임새가 있었다.	- 사업목표인 다문화 아이들과 한국의 아이들이 함께 우리동요와 외국의 동요를 불러 너와 내가 함께라는 소통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잘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 프로그램상 동요는 모두 한국의 동요만 선곡되었고 다문화의 아이들이 단원으로 약 5명 정도였다고 관객도 대다수가 한국인이었다.	- 다양한 문화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함께 연습하고 큰 무대에 올라 공연한 점이 좋다. 어린이로서 1시간의 프로그램을 채우기 어려워 유엔젤보이스 공연이 함께 이루어져졌는데 친근한 음악으로 즐거운 공연이었다. - 예산이 줄었지만 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대로 진행했다고 한다.
	진행의 수월성	- 전체적으로 행사는 매끄럽게 진행됐다. 특히 사회자로서 지명도 있는 탤런트 선우재덕씨의 편안한 공연진행은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성남아트센터의 공연이어서 진행은 탁월했다. 공연시간에 임박해 사람들이 몰렸지만 아트센터의 진행요원의 원활한 지시로 혼란스럽지 않았다.	- 아트센터 내에 진행요원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시간 안에 공연이 시작되었고 화장실 사용 등 이 용시설이 깨끗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의 방식을

		<p>다. 홍보용 안내 책자나 안내원 배치 등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포스터나 현수막은 공연장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p> <p>- 공연장소가 성남아트센터여서 화장실, 주차장, 휴식공간 이용에는 불편이 없었다.</p>	<p>- 홍보용 포스터는 티켓 교부처에 5장 정도 전시되었고 초대권을 받을 때 팸플렛도 같이 받을 수 있었다. 배너와 현수막은 예산축소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p>	<p>제공받아 적극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p>
--	--	--	---	----------------------------------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p>- 행사내용도 참신했고 다양했으며 흥미로웠다. 예산 대비해서 기획이나 구성, 프로그램 완성도 역시 높았다.</p>	<p>- 유엔젤보이스의 공연은 워낙 알려진 프로의 공연이다. 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주니어의 공연도 프로 못지 않는 모습이었다.</p> <p>- 숲속처럼 꾸민 무대장치와 라이브의 악기연주는 관객이 공연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찬조 공연이었던 평균 81세의 사랑애 중창단 공연의 어린이의 공연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참신했다.</p>	<p>- 같은 또래들의 공연이어서 관심도가 높았고 예비단원의 공연 또한 참여욕구가 생겼다, 화려한 보이스의 무대는 어린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도 만족했다.</p> <p>- 하지만 어린이합창단에 걸맞는 동요 민요선곡은 다소 미흡했다.</p>
	대중적 호응도	<p>- 관객의 호응도, 행사장소는 좋았으나 행사 시기나 시간은 어린이 대상 공연인 만큼 방학 중 낮 시간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객의 대부분이 부모나 친구들이어서 일반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p>	<p>- 관객들의 호응이 꽤 좋았을 때는 유엔젤보이스 예비반의 공연 때였다. 단원의 가족이 많은 관객으로 참석해서 마치 학생들의 학예회를 보는듯했다. 다문화아이들이 단원이어서 몇몇 외국인들도 보였으나 그 수가 적고 합창단원의 가족이 대다수였다.</p>	<p>-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합창단원이라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유익했다. 친구와 자녀들을 직접 무대에서 볼 수 있어 흥미롭고 호응도가 높았다.</p>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도 있는 유엔젤보이스와의 공연이었던 만큼 어린이 합창단만으로 꾸며진 공연보다는 기획이나 진행이 돋보였다. -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과 대회는 매년 계획되고 실행된다. 하지만 다문화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공연의 기회를 갖는 것은 적을 것이다. 특히 성남은 외국인 강사와 선교사 등 다문화 가족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에게 지역적인 대한 애정,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이런 콘텐츠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기여도가 훌륭하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어린이 합창단과 프로인 유엔젤보이스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돋보였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역문화발전의 질적 향상에도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자원인 아트센터를 공연장으로 이용한 점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다문화,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성남에 대한 문화적 체험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문화예술분야에 관심도가 높다. -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다같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한 내용이고 주민들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부터 활동한 많은 노래친구들과 재단법인 유엔젤보이스가 함께 하는 사업이어서 지속적 역량이 풍부하다. - 단원의 가족만이 관객이 아니라 다문화가족들,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단원으로 연습하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켜준 장이다. 적극적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뜻깊은 의미를 두고 계속 진행 시행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 지속성	- 재)유엔젤보이스 측에서는 매년 어린이들을 위한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 회사인 엔젤스의 후원과 엔젤보이스 공연팀의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 이번 공연이 아이들의 연습부족으로 다른 공연 팀과 함께한 점이 아쉬웠 다는 음악감독님의 인터 뷰와 합창단원의 가족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 정기적인 공연이 매년 계 획될 듯 하다.	- 적극적 지원이 있다면 지속적인 공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예비단원도 활성화하고 있다.
--	---------------------	---	--	--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 지원금 350만원으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만들어 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 아쉬웠던 점은 공연관계 가족들에 비해 일반인 관객이 적었던 점이다. 앞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시설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를 참고했으면 한다.	- 1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공연을 관람했다. 무대장치, 공연 내용 모두 훌륭했다. - 다만 유엔젤보이스주니어의 공연 목표와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소외되어 있었던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활동을 함께 누리고 참여 할 수 있게 한 공연이라 생각한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각국의 어린이들이 즐겨부르는 동요, 민요를 통해 합창단 어린이들이 꿈을 갖길 바라고, 어른들도
함께 동요를 노래하면서 훈탁하고 어지러운 삶에 쉼을 줄 수 있는 공연이었다.
- ② 최초 계획은 한국과 외국의 동요 및 민요를 부르는 것이었으나, 다문화 합창단의 발전을 지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평균연령 80대의 사랑애중창단과 유엔젤보이스 남성중창단,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함
께 공연에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 ③ 공연 후 단원신청 문의가 증가하고 공연 초청이 늘어 유엔젤보이스주니어가 아닌 다문화 합창단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연을 통해 단원과 그 부모가 자부심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 ④ 재단법인 유엔젤보이스는 자립하지 못하는 음악단체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도 있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다문화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다국적의 어린이들이 함께 한 공연을 통해 이뤄보겠다는 사업목표는 매우 훌륭하나, 공연 레파토리의 한국 곡의 비중이 높았고 유엔젤보이스 주니어 단원들의 연습이 부족하여 찬조출연자의 공연시간이 길었던 점 등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 ② 공연 자체는 매우 훌륭했으며, 모 단체의 인지도 있는 유엔젤보이스와 평균 연령 80대인 합창단의 찬조출연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연기획이었다고 평가했다.
- ③ 관객층이 대다수 출연하는 어린이의 가족 및 친구 등으로, 일반인, 외국인 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기관 등의 참관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향후 홍보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④ 본 공연 후, 다문화 합창단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현재 예비단원들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단체의 자체역량 및 지속적인 의지가 충분해 본 공연이 지속된다면 문화적 차이와 이해의 차원을 넘어 교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3. 앙상블 ‘오감’과 함께하는 “Ah~! merica” _ 앙상블 오감

프로그램명	앙상블 ‘오감’과 함께하는 “Ah~! merica”
주관단체명	앙상블 오감
사업기간	2011년 9월 25일, 오후 3시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사업참여인원	6명 (관람 85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평소에 접하기 힘든 미국의 현대음악을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소개한다. 듣기 편한 음악에만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화음, 음색, 그리고 퍼포먼스를 선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5월 : 연주회 방향 정립 / 멤버간의 의견, 일정 조율 및 프로그램 확정

6월 : 대관신청과 연주일정 확정

7월 : 연주자 섭외

8월 : 현대 작곡가 곡 구입, 리허설 시작,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후 배포

9월 : 리허설 완성, 연주자료 배포, 무대리허설, 언론 홍보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p> <p>- 출연자 : Vn.이선진, 박소영 Va.노현석 Vc.김시내 Pf.한경은,이희경</p> <p>② 공연레파토리</p> <p>- A.copland : El Salon Mexico for two piano (Arr.Bernstein) 외</p> <p>- G.Gershwin : Prelude ii 외</p> <p>- A.Dvarak</p> <p>- 현악 4중주 America</p>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9월 25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내 앙상블시어터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공연의 목표는 평소 접하기 힘든 미국의 현대음악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하여 그동안 익숙한 음악이 아닌 다양한 화음과 음색을 들려주어서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 하지만 방학 때인 8월 중에 공연일정을 잡으려 하였으나 이미 공연장의 대관이 끝나 9월 말일에 공연을 했다.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부분은 실현이 되질 못했다. - 관객들은 대부분이 지인과 동호회분들이었고 청소년들은 보기 힘들어 아쉬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사업대상이 방학을 맞은 초,중, 고생 및 일반인데 공연날짜가 시험기간 앞이라 학생들은 보기 어려웠다. (공연장소 대관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날짜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부는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그 다음은 미국의 현대 음악이 연주되어 색다른 실내악의 모습을 보았다. 중간중간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어서 어려운 음악을 편하게 들었다. - 전체적인 행사 진행에서 무리가 전혀 없었다. 공연장소도 실내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진행요원이 10 명이 있어서 공연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웠다. 다만 홍보가 많이 되질 않아서 관객의 수가 적은 것이 안타까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축소되어 홍보예산이 적어져 언론홍보 및 사인물을 제작하지 못했다. - 공연장소가 전철역 인근이라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문공연장소라 안내원 및 편의시설이 좋았다. - 프로그램순서가 변경되었으나 대중에게 익숙한 곡을 먼저 함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유도했다. - TV출연으로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객원연주자가 공연중간 곡 설명을 해주어 곡의 이해를 도왔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으로 클래식이 아니면서도 고전적이며 현대음악의 색다른 감각이 느껴졌다. -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연이었지만 프로의 전문적 연주라서 큰 공연을 본듯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연주가 뛰어났다. - 대중에게는 흔치 않은 미국의 현대 음악을 접할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 객원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관객 수가 적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지 못했다. 지인과 친인척을 빼고 나면 극소수의 대중만이 즐긴 듯하다. - 또한 사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부분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지 거신의 작품에서는 호응이 있었으나 아론 코플란드의 작품은 지루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현대 음악을 접하는 대중의 일반적 반응이라고 보인다. - 객석의 1/3 정도 (약 100여명)이 관람했으며 여성관객의 비율이 높고 초등생 소수를 제외하고는 학생층이 없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히 지역의 이미지를 높힐 수 있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대중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현대음악의 전파라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 리더가 성남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성남지역에서의 활동이 용이했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아트센터를 이용한 것 말고는 어떤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음악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인터뷰 시 여건이 된다면 지역 내 여러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보임.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자 개개인의 연주 실력은 전문가였다. 개성도 강하고 연주 실력 프로그램의 구성력도 굉장히 높은 듯 하다. - 연주자들의 관계가 오래된 사이여서 결속력도 좋아 보였다. - 후원 단체가 없어 금전적 지원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색깔이 다른 멤버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강한 결속감이 보였다.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째 열린 정기 연주회이며 지속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결혼과 출산, 육아문제가 있어서 다음 연주회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형태의 기금을 받아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의 내용은 너무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실제 사업목표였던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부분은 공연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특히 후원회를 갖지 못한 공연단체일수록 홍보비용의 부담이 커서 제대로 공연을 알릴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소 때문에 늦어진 공연날짜로 인해 주요 대상인 청소년을 놓친 것이 가장 큰 홍보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라 체계적인 지원(기획,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성남에서 뿌리내릴 의욕이 강한 연주팀이라 생각된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여름방학 중 청소년 음악회로 기획하였으나 사업지원이 확정된 후 대관할 수 밖에 없어 9월 말로 연주회가 열렸다. 청소년들의 중간고사 일정과 겹쳐서 참관 유도가 어려웠다.
- ② 미국 작곡가들의 현대음악을 모아 공연 레파토리로 삼아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연주회였다.
- ③ 양상블 오감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팬층과 국내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음악 동료들의 관람으로 성남뿐 아니라 타 지역의 관람까지 유도했다고 본다.
- ④ 연주 준비에 집중하느라 해설 등의 매끄러운 진행이 부족했다. 다음 기획 시 보완하려 한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단원 모두가 전공자, 전문연주인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었으며 주변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미국 현대음악을 레파토리로 해서, 새로운 공연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 ② 하지만,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공연장소를 대관하여 청소년들이 관람하기 어려운 기간에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홍보부족까지 겹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는 사업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 ③ 일부 전문연주단체의 경우, 후원 확보, 공연 홍보 등의 행정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전문대행사에게 높은 대행료를 지출한다. 자금 지원 이외에 홍보 및 행정지원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4.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_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프로그램명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주관단체명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기간	2011년 9월 4일, 오후 7시 30분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사업참여인원	169명 (관람 약 70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평소 클래식을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클래식 음악문화 저변확대 및 정서함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을 벽을 허무는 공연을 개최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6월 : 프로그램 및 출연진 확정, 연습 시작

7. 1. ~ 8.31. : 주 1회 합동 연습, 각 파트별 연습

8월 :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발송

9. 4. : 리허설 및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진 :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 박용준) - 민사고 오케스트라, 정자초등학교 오케스트라 - 성악 : 김현홍(은행초 5학년), 정기영(성남시의원) - 중창 : 유엔젤보이스 <p>② 공연레파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토벤 심포니 제 5번 운명 4악장, 비록, 아리랑, 프론티어, You raise me up 등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9월 4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평소 클래식을 접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공연은 기획 의도에 적합하다고 본다.	- 평소 클래식을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관람하게 했다. (공연장에서 초청된 장애인들의 숫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인터뷰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진행의 수월성	-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공연이어서 수월한 진행이었다.	- 아트센터 내에서의 진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되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성남 시내 초·중·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민사고생들의 협연이었고 장애인 2인의 성악공연이 있었다. -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장애인 연주를 결합해 사업을 기획한 아이디어는 뛰어나다.	- 연주자들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줬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초청된 다른 팀들의 공연이 함께 있어 공연이 다양했다. - 그러나 다소 비슷한 곡들이 연주될 때 지루함을 느꼈다.
	대중적 호응도	- 공연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 대중적인 곡을 연주할 때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관내 초 중 고 오케스트라단원들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의식을 높여주었다고 생각한다.	- 지역 내의 학생들이 클래식공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청소년 및 그 가족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했다고 본다.	- 학생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	--	---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사업주체가 노하우가 있어서 공연 기획 및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 공연 팸플렛에 따르면,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의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 - 함께 참여한 단체 중 민사고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나, 당시 민사고 교복을 입은 학생은 3명이어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프로그램 지속성	-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여서 사업은 지속 가능하다고 봄.	- 정기연주회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평소 클래식을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연례적으로 개최, 클래식음악 문화 저변 확대 및 정서 함양,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 마련했다.

② 청소년들의 연주 실력에 관객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지역 내 시의원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찬사가 있었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클래식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고 소통하는데 목적이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라서 장애인들을 관람객으로 초청하는 연주회 형식으로 인식했는데, 무대에 올라가는 협연자들이 장애인이었다. 이 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연주회의 목적을 더욱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② 뛰어난 실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연주자로서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5. 도시에 핀 들꽃전 _ 들꽃미술가회

프로그램명	도시에 핀 들꽃전
주관단체명	들꽃미술가회
사업기간	2011년 6월 9일 ~ 17일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별관 1, 2실
사업참여인원	22명 (관람 약 49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들꽃을 소재로 한 미술가들의 작품전시와 함께 해당작품의 소재가 된 세밀화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들꽃의 형태적 특성과 미술가의 미학적 해석을 비교, 경험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한다. 더불어 지역 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들꽃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 자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다.

- 사업추진일정

2011. 5.31. : 도록 발송. 성남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단체관람 초청

6. 9. : 작품 반입 및 디스플레이, 현수막 및 포스터 설치.

6.10. : 들꽃 화분 전시, 전년도 들꽃그리기 참여 우수작 전시, 전시 오프닝.

6.11~16. : 관람 후, 화가 1인 지도 하에 들꽃그리기 참여행사 진행.

6.17 : 작품반출.

7월 : 사업평가. 사업진행과정 평가 및 우수체험 참여자에게 기념품 발송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22명의 작가가 본인이 선택한 들꽃으로 세밀화 1점, 본인의 성격으로 작품화한 1점, 총 2점을 제출. ② 도록에 식물도감처럼 꽃의 정보와 세밀화를 함께 수록 ③ 단체관람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시된 야생화를 보고 작가들이 지도하여 우수작은 내년 전시에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할 예정임.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일시	6월 10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별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 들꽃을 화폭에 담으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술가들 전람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들꽃 그림을 볼 수 있었으나, 자연보호의 차원과 개념에서는 얼마나 근접했는지는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들꽃 나눠주기 행사 및 이름 알려주기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면 사업목적에 조금 더 부합되었을 것이다.
	진행의 수월성	- 오전에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들꽃 그리기 체험이 있었다고 한다. - 오프닝 및 전시 진행 등은 원활하게 이뤄졌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실제 작가들의 작품이라 작품 수준이 무척 높았다. - 한쪽 벽에 어린이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전시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해 어린이 그림 전시작품은 작년 우수작품이라고 함.) - 22명 작가마다 2점, 어린이 작품 약 10점해서 총 45점 정도 전시되었음. - 들꽃을 미술소재로 삼고 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여 좋았다.
	대중적 호응도	- 실 작가들의 전시회라서 다양한 미술관계자들이 오프닝 행사에 참석했다. 오프닝 행사의 테이프 커팅도 참여자들이 동그랗게 모여 함께 참여했다. 권위적인 모습이 없었고, 보다 대중적이고 색다른 오프닝으로 진행한 점이 돋보였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참여작가 모두 성남지역 작가이므로, '성남'이라는 지역적 시각으로 전환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문화 발전 기여도	- 실제 미술작가들의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역에서 꽃필 때, '들꽃', '그림', '성남 작가'를 합친 새로운 콘텐츠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지역 예술가의 모임으로 지속적인 전시, 지원금 신청, 기금 선정 등의 모습을 보면 타 미술단체보다 주체역량이 탄탄한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 지속성	-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전시로서 지역 작가들의 역량이 뛰어나며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전년대비 어린이집 및 중학교 단체 관람의 증가하였고 들꽃그리기 대회 참여자도 증가하였다.
- ② 예산이 적어 들꽃그리기 우수작품 시상품과 화분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지역미술가들이 '들꽃'이라는 소재로 정기적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 들꽃을 알리고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라는 소재는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서 '들꽃'과 '세밀화'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기에 좋은 소재로 보인다.
- ② 참여작가 모두 성남지역의 작가이므로 '성남'에 초점을 맞추어 '들꽃'과 '그림', '성남'이 합쳐진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정기적인 전시, 지원금 선정, 기금사업 선정 등, 타 미술단체보다 주체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며 본 프로그램을 유지하여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 ④ 단순히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 학생들을 전시회에 초대해 들꽃을 그리는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형식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오프닝 행사 등은 예술을 매개로 하여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보인다.

2-6. 2011 문정숙의 色, 70년을 돌아본 색 _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

프로그램명	2011 문정숙의 色 - 70년을 돌아본 색
주관단체명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
사업기간	2011. 9. 18.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사업참여인원	40명 (관람 약 28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한평생 예인으로 살아오고 있는 문정숙선생이 지도를 해 온 제자들과 함께 악과 무의 색을 살려낸 판을 마련한다. 전통 한국춤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보존하고 잊혀지고 변형되어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예스러운 맛을 이어나가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사업추진일정

- 2011. 1. 16. : 기획단 구성
- 2. 1. : 기획회의
- 3. 10. : 작품구상 및 연습시작
- 7. 22.~ 24. : 공연준비 1차 합숙
- 8. 1. : 중간점검, 웹사이트 홍보
- 8. 15 ~ : 의상, 소품, 홍보물 제작
- 8. 26.~28 : 공연준비 2차 합숙
- 9. 1. : 공연준비 및 점검
- 9. 18. : 리허설 후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 17명의 제자들이 4팀으로 나눠 설장구 공연</p> <p>② 공연레파토리 - 첫 마당, 굿거리 178 / 두번째 마당, 파랑과 놀다 / 셋째 마당, 하늘색 물색 / 넷째 마당, 어린이 설장구 / 다섯째 마당, 박동 / 여섯째 마당, 문정숙의 색</p>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모니터 일시	9월 18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와 같이 본 공연은 악과 무의 색을 살려 전통문화의 예스런 멋을 공연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문정숙의 살풀이, 설장구 공연, 장구춤, 모듬북, 고깔 소고놀이, 경기민요, 창작무, 판굿 등으로 다양한 짜임새를 가지고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의 사업목표와 실제 행사의 실현 정도는 공연자의 지명도에 걸맞게 멋진 공연으로 관객의 호응도 좋았다. - 문정숙씨를 중심으로 설장구 영상 굿거리 등 공연구성이나 연출 특히 '문정숙의 색' 창작 춤은 공연의 짜임새를 더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문정숙의 색 공연 내용, 의도 취지 등이 일치했다. - 기존 신청서에서는 관람료를 1 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공연은 관람료는 무료였다.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중간 해설이 있어 관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 문정숙 님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무대였다. - 그러나 서브 공연진들의 공연은 서툴렀다. - 성남아트센터 계단에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고, 공연장까지 가는 길의 벽에도 안내 포스터가 부착되어 공연장까지 가는 길이 수월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의 해설이 서너 개의 공연을 한 번에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지루했다. - 홍보 책자, 안내원 배치, 포스터나 현수막이 제작, 비치되었다. - 공연장소가 성남아트센터 내에 있어서 화장실, 주차장, 휴식공간 이용에는 불편이 없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아트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므로 편의시설은 훌륭했다. 하지만 행사장을 알리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아 행사장을 찾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 대중에게 낯선 설장구를 재치 있는 사회자(김상규, 예술 감독)가 공연 중간 중간에 설장구의 의미, 곡이 의미하는 뜻 등을 친절히 설명해줌으로써 공연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였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내용은 보편적인 공연 내용이지만 ‘정성’을 쏟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 공연 중간에 일부 출연진들이 객석 옆 출입문을 통해 등장하는 등의 새로운 기획력이 눈에 띈다. - 문정숙님의 공연은 매우 수준이 높았으나, 이외 공연들은 작품성이 다소 떨어졌기에 전체 공연 완성도가 아쉬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내용은 다양했으며 흥겨웠다. - 기획이나 구성, 프로그램 완성도 좋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 설장구 장구춤, 굿거리 등 설장구의 다양한 면을 한 공연에서 보여주었다. - 설장구의 명인인 문정숙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춤을 선보여 공연의 예술성을 높였다.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내내 설장구 공연이 앙상블시어터 장소과 이질감이 느껴졌다. 객석에서 자주 튀어나온 함성때문이었다. - 처음부터 객석과 한마당 놀음을 목표로 삼았다면 장소선정을 재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의 대부분이 공연 관계자여서 관객의 호응도는 좋았으나,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못한 아쉬움이 크다. - 일반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가 비나리를 설명하며 높은 사회 물가 문제와 질병 문제 등과 곡을 연계하여 설명하여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 공연 내내 관객들이 흥에 겨워 추임새를 넣어주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장구라는 이미지가 강할 뿐 지역 이미지 기여도와는 무관한 공연으로 느껴진다.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잊혀져가는 설장구에 대한 애정을 드높이는 공연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도 있는 설장구의 대가 문정숙씨의 공연으로 지역예술인에 대한 관심은 갖게 했으나, 이번 공연이 지역에 대해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들에게 ‘성남의 문정숙’이라는 훌륭한 예술인과 설장구 연구회라는 문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고취시켰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정숙님의 소중한 인적 재량인 설장구를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 녹여 전통문화의 예스러운 맛을 관객들에게 심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 각 공연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들이 모였고 이런 공연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타 단체와의 공연은 지역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발전의 질적 향상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나,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관련단체나 공연관계자 가족끼리의 참석으로 끝나, 본 공연으로 지역문화 예술활성화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정숙 선생님이 지역 초등학교생들로 구성된 감쪽이 풍물패를 교육/공연 시킴으로써 향후 지원 문화 자원이 될 수 있는 재원을 양성하고 있었다. - 유료 공연이어도 손색없는 공연을 무료로 성남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남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켰다.
--	--------------------	--	--	--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정숙 선생님을 비롯, 수많은 제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획단 구성 및 공연을 위한 각종 준비들로 계속 활동 중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공연 구성과 타 단체의 참여 등 내용은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가 시작되었고, 회원들 모두는 수년에서 20년 이상 풍물굿을 해온 전문 연주자들이다. 지속적으로 지역 내 공연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살리기라는 시각에서 조명해 봤을 때 문정숙 설장구 공연은 전통의 계승, 전통 문화의 알림의 요소로 향후 지속적으로 공연을 진행해도 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정숙씨의 제자들과 설장고 연구회 회원들이 있어서 지속적인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정숙의 색은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정기 공연이며 설장구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어 설장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한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에 등한시되고 있는 설장구를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계속 이끌고 가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각인시켜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진 모두가 프로 못지 않은 멋진 공연이었다. 이처럼 흥겹고 멋진 공연을 홍보부족으로 객석을 70%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춤과 함께 한 문정숙 님의 70년 인생을 보여준 무대로 전통의 설장구를 현대에서 6가지로 다채롭게 재현하였다.
- ② 관객들은 설장구 6편의 공연을 보면서 비슷함 속에 서로 차이를 느끼며 흥미롭게 보았다는 평이 많았다. 또, 선호하는 작품을 회자하기도 했다.
- ③ 문정숙 선생님께 헌정하는 작품과 인사 영상, 예술세계에 대한 영상에 대한 관객 반응이 좋았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예인으로 한 평생 살아온 문정숙 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꾸민 공연으로 공연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반면에 제자들과 찬조출연 팀의 기량은 다소 떨어지고 좌석의 70%정도만 채워져 전체적인 공연 완성도와 집객에 아쉬웠다고 평했다.
- ②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그 뜻을 이어가는 모습이 무대에서 구현되었으며 꾸준한 기예 전수와 후학 양성은 전통문화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임을 일깨워 주었다고 보인다.
- ③ 공연 중간의 해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들의 의견이 상충되었다. 공연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기획된다면 관객들의 공연 이해도를 높이는데 충분히 기능한다고 보여진다.
- ④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는 설장구 연구회의 구성원은 적게는 수년에서 20년 이상 풍물굿을 해 온 전문 연주자이다.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7. 2011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_ 소리사랑회

프로그램명	2011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주관단체명	소리사랑회
사업기간	2011년 11월 3일, 오후 1시
사업장소	중원노인복지관
사업참여인원	90명 (관람 약 25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개최로 국악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악 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려 한다.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령층과 어울리는 민요, 타령, 부채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공연을 개최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9월 : 프로그램 출연진 확정

10월 : 연습, 인쇄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자료 발송, 노인복지시설 대상으로 홍보

11. 3. : 공연

11.15. : 행사 평가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공연개요 - 소리사랑회 회원 21명이 공연 - 해설 : 방영기 (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조교) - 한마음소리회, 중원복지관 경기민요팀 함께 출연 - 프로그램 : 민요, 타령, 부채춤 등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일시	11월 3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중원노인복지회관 1층 강당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기획 된 것이 아니라 매년 거의 같은 공연을 정기적으로 한 것이라 무난하게 이루어졌다.
	진행의 수월성	- 장소 대관을 1시간밖에 할애를 못 받아 미리 음향시스템 점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연이 약속된 1시 정각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의상을 입는 등 초반에 진행이 수월하지 않았다. - 소리사랑회 회원들은 프로가 아닌 주부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다음 곡을 위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공연 중간에 텀이 생기는 등 우왕좌왕하였다. -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연이었다. 다만, 진행적인 면에서 준비가 미비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무대에서 80 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활짝 웃으시며 연습 때처럼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예술적 완성도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모두가 아마추어임에도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대중적 호응도	- 방영기 선생님이 노래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공연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었다. 특히 무대에서 공연하시고 퇴장하시는 분들께 농담을 건네며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 관객이 무대에 동화될 수 있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문화생활을 자발적으로 즐기시기에 힘든 어르신들께 복지관으로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어 그 분들의 생활에 활력이 되었을 것이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무대에 참여하는 분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연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보는 관객과 공연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	-------------	--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이번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 활동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소리사랑과 비슷한 성남의 다른 단체의 게스트로 참여하는 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지속성	- 비슷한 구성의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공연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연진행 등, 공연의 질적인 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악인구 저변 확대.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우리나라에서 전래되고 있는 지방의 민요와 타령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에게 직접 교육을 받으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본 단체는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헌하는 노년의 삶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공연은 보는 사람들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즐거운 공연으로 꾸며졌다고 평가했다. 매해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나, 공연의 질적인 면에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8. '뱀' - 한국편 _ 창작그룹 오기

프로그램명	'뱀' - 한국편
주관단체명	창작그룹 오기
사업기간	2011년 8월 26일, 오후 3시
사업장소	서현청소년수련관
사업참여인원	15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뱀'은 문화소외지역 시민의 문화교육 및 치료에 근간을 두고 시작되었다. 자연물을 이용한 오르프악기와 민속공예품의 재탄생 형태를 통해 관객의 문화적 소외감을 배제시키고 시민들이 '즐겁게 듣고,' '함께 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장을 꿈꾸며 기획하였다

- 사업추진일정

- 2011. 7월. 1차 전체모임 (스케줄 조정 및 작품 방향 전달)
1차 연습시작 (대본 분석 및 테이블 작업)
1차 연습종료 (1,2막 동작선 브레이킹 및 스텝회의 진행)
- 2011. 8월. 2차 연습진행 (세부장면 조정 및 감정 훈련)
극장 셋업 1,2, 테크리허설 진행, 드레스 리허설 진행
본 공연
- 2011.11.24. 변경신청서에 따라, 서현청소년수련관 내 교육프로그램진행 1회 진행.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작 : 기리쉬 까르나드 - 각색, 연출 : 진재홍 - 공연 1시간 30분 소요 - 우리나라의 민속생활용품 중 대표적인 짚풀양식이 인도의 고유문화 카타칼리와 결합하여 오브제가 된다. 뱀이 되기도 하고, 인도의 개미탑이 되기도 한다. <p>② 짚풀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장소 : 2011. 11. 24. 서현청소년수련관 - 참여인원 : 35명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일시	8월 26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서현 청소년 수련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p>- 문화소외지역 시민의 문화교육과 치료를 근간으로 하여 극장 안에서의 소비가 아닌 길놀이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 또한 한국음악과 한국 춤에서의 움직임, 전통적 오브제를 이용하여 한국의 삶을 담아 낼 것이라 하였다. 우선 이번 공연에서는 길놀이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관객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의도나 사업의 목적에는 달성하지 못했다.</p> <p>- 실 제작비가 2000만원 들어 지원금을 제외한 1650만원을 자체 부담한 것과 해외진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원들의 노력과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p>
	진행의 수월성	<p>- 공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포스터나 전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극의 대상이 성인임을 감안하면 날짜와 시간이 적합하지 않았다.</p> <p>- 1회 3시 공연에는 수련관 측 관계자와 본인을 포함한 5명, 2회 6시 공연에는 어른1명, 아이2명이 왔으나 수련관측과 공연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막을 올리 지 못했다.</p> <p>- 정성을 들여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들이 작품 여기저기에서 돋보였으나 막상 홍보의 문제에 부딪혀 오후에 있을 본 공연을 올리지 못해 안타까웠다. 창작과 더불어 많은 관객을 유입하고 홍보하는 고민도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p>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p>- 작품을 재구성하는 단계여서 완성도가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새로운 양식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자 연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p> <p>- 이번 작품을 위해 직접 작곡한 음악과 다양한 오브제가 어우러져 작품면에서는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p>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이 시작되면 극중 연출가인 배우가 나레이터가 되어 객석에 내려와 관객들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 판소리나 마당놀이에서처럼 묻고 답하며 관객은 연극 속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관객이 많았다면 호응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연극을 통해 이야기와 소통,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성남의 문화예술에 대해 KOSAS(한국연기예술학회)에 알리고 2012 년 인도고유축제에 참여하는 등, 성남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극단이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의 작품을 만들었고 구성원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로 예술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프로그램 지속성	- 이미 마로니에 여름축제에 초청이 되었고 앞으로도 공연계획과 2012 년 인도 고유축제 Dussehra 의 경연 참가 계획이 있다고 한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변경신청서 의거, 2회 공연 분을 11월 24일 서현청소년수련관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 시행했음.
- ② 창작극 ‘뱀’은 관객호응도나 이해도 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으나, 관객동원이 되지 못했음.
- ③ 저조한 관객동원은 홍보 부족 때문임.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극단 내 전문기획인력 부재.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극단만의 개성있는 새로운 극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집객이 되지 않아서 본 공연을 무대에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기획, 홍보 등의 전체 실행단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향후 사업진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② 단원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 공연 제작 비용의 자체 부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 ③ 이후,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약 50여명과 함께 한국적인 오브제를 이용한 연극 워크숍을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였다.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④ 수년간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연극 상연, 워크숍을 개최해왔던 이력을 가진 단체로 앞으로 질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지역 내 문화발전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9. 제 16 회 이듀스매스터 코랄 정기 연주회 Singin' postcard _ 이듀스매스터코랄

프로그램명	제16회 이듀스매스터 코랄 정기연주회 Singin' postcard
주관단체명	이듀스매스터코랄
사업기간	2011년 12월 2일, 오후 7시 30분
사업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사업참여인원	47명 (관람 약 70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1998년 창단 이래 연 1~2회 정기연주회를 하는 이듀스매스터코랄은 성남시 교사들로 이뤄진 합창단으로서 합창을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폭넓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수익금을 불우한 청소년 장학금으로 마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 사업추진일정

2011. 11월 : 팸플릿 제작 완료, 장학생 선정.

: 초대권 배부, 스탭회의

12. 2. : 리허설 및 본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6회 정기연주회 - 출연진 : 이듀스매스터코랄, 게스트 3팀 <p>② 공연레파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식 합창공연 - Prayer Card 등 종교곡 3곡 및 한국가곡 4곡,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 게스트 3팀 출연 : 전문 연주가 초청 (드럼·베이스 연주 1팀, 탱고 1팀, 빅밴드 1팀)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12월 2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료의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마추어 합창단의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일반공모 중 가장 사업의 목적성 잘 들어난 공연이었다.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고 교사들로 구성되어서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관객수도 거의 700명 정도 가까이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신청서에 있던 사랑의 장학금 사업을 잘 이행하였다. 합창을 사랑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순수 아마추어 교사들이 공연을 하고 주 관객층은 교사들의 학생들로 아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공연했다.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센터의 공연 진행은 여러모로 훌륭하다.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게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관객이 보러 올 수 있었다. 진행요원도 10 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 홍보용 배너는 없었고 안내책자와 안내원들이 자리에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주차 시설과 접근성, 편의시설이 모두 훌륭했다. - 곳곳에 이투스 매스터 코랄 정기 연주회의 포스터가 붙어있었으며 원활한 공연을 돕는 직원들이 보였다. - 프로그램 순서 팸플렛이 로비 공연장 입구 옆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었다. - 정해진 시간에 공연이 시작되었고 끝났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정기연주회의 기획이 돋보였고 구성도 탄탄했다. - 전문적인 합창단이 아니고 종교곡을 감상하면서 지루할 수 있었는데 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관람객 층이 주로 학생들인 만큼 어렵고 듣기에 낯선 합창곡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나고 즐거운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p>브라스밴드의 아이들의 귀여운 공연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가곡중에서는 선생님들의 연극적인 연출이 보여져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스포츠댄스의 화려함에 사람들이 감탄을 했고 마지막 메들리의 노래는 공연의 마지막을 멋지고 인상적으로 장식했다. 	<p>합창곡이 공연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 중간에 어린이, 청소년 브라스 밴드인 푸른 초장의 공연과 스포츠댄스 공연으로 공연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 몇 곡의 합창에서는 합창 내용과 맞는 율동을 선보였다.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자신의 학교 선생님의 모습에 열띤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응원 모습을 보여주었다. - 대부분이 제자들과 학부모 동료교사와 가족들로 이루어진 관객이었다. - 일반인들의 공연관람이 좀 아쉬웠지만 공연의 호응은 뜨거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단 단원이 교사이고 주 관객층은 학생이었다. 학생들의 호응과 반응이 뜨거웠다. - 주 관객층은 학생들이었지만 연주회를 보러 온 유료 관객도 있었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 있는 교사들의 공동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예술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체의 공연이다. - 장학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힐 수 있으며 경직될 수 있는 사제지간의 관계를 좀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체벌 금지로 인해서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교사가 공연을 하고 학생들이 교사의 공연을 보러 오고 응원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이 생겨서, 공연으로 인해 좋은 사제지간이 될 것 같다. - 도움이 필요한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여 아이들이 계속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 있는 교사들 중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다. - 특히 청소년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선생님만큼 홍보가 잘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선생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합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창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안내 멘트를 함으로써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 성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댄스 듀엣을 섭외했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16 회 정기 연주회를 할정도의 경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참여인원 또한 100 여명을 가진 단체이다. 단원들의 회비와 팸플렛광고 수익금등을 자부담비로 해서 충분히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보였다.	- 홍보 팸플렛에 지역 광고를 실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듀스 메스터 코랄(구. 성남시 교사 합창단)은 1998년 창단 이래 매년 1~2회의 정기 공연을 연 역량있는 단체이다.
	프로그램 지속성	- 팸플렛과 홈페이지에 단원 모집을 하고있으며 연습시간과 장소 또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듯하다 장학금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긍지를 높이고 2005 년 부터는 '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고 음악 인재를 발굴,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합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단원을 모집/교육 하고 있다. 1998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정기 공연 이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 대중의 호응도도 좋았고 공연의 구성과 기획도 좋았다. 사업의 목표도 분명했고 진행도 수월했다. 다만 장학금전달식이 공연 전 로비에서 썰렁 하게 진행된 것이 좀 의문이었다. 일반공모사업 중 가장 교부신청서의 내용에 충실 한 공연이었다.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좋았으나, 어수선한 로비에서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공연 전에 장학금을 무대 위에서 전달했다면 아이들의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더 상승시켜주지 않을까 싶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유효관객 700여명 중 학생관객 대비 성인관객이 많았고, 2층 객석까지도 자리가 많이 찼다. 홍보 및 관객 동원은 성공적이었다.

- 호응도

① 각 스테이지마다 각 주제에 걸맞은 컨셉트로 연주했다.

: 종교곡에서는 합창의 블랜딩, 한국가곡에서는 재미있는 신작곡, 세계민요 메들리에서는 각 나라별의 특징적인 안무와 함께, 크리스마스캐롤 메들리에서는 타악기와 베이스 반주에 맞춰 다양한 캐롤을 연주하는 무대로 꾸몄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학교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활동하는 유서 깊은 합창단으로, 공연의 구성 및 기획, 완성도가 높았고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에 충실한 사업이었다고 평했다.
- ② 공연자가 교사여서 주 관람층이 학생들이었으며, 율동과 스포츠댄스 등, 눈높이에 알맞은 기획으로 공연이 이루어져 호응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인다.
- ③ 지역 내에 있는 교사들의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술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 ④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해 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2005년부터 '제자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어 음악 인재를 육성하려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지속가능한 사업주체 역량이 충분해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0. 여름방학 어린이 국악콘서트 ‘한마음’ _ 민족음악원 분당지구 운풍헌

프로그램명	여름방학 어린이 국악콘서트 ‘한마음’
주관단체명	민족음악원 분당지구 운풍헌
사업기간	2011년 8월 13일 오후 5시 ~ 6시 20분
사업장소	판교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사업참여인원	42명 (관람 20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민족음악원 분당지부 운풍헌에서 활동하는 어린이풍물패 ‘한마음’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학생들이 또래의 어린이들에게 서양음악 위주의 공연을 탈피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11월 : 팸플릿 제작 완료. 장학생 선정.

: 초대권 배부, 스탭회의

12. 2. : 리허설 및 본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진 8명, 한마음어린이풍물패 12명, 찬조출연 포함하여 총 출연진 34명 - 찬조출연 : 어린이가야금 (민예총/푸른학교 가야금반), 계원예중 8명, 판소리 (소리꾼 이효덕), 비나리 (운풍헌 대표 임수빈) <p>② 공연레파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도사물놀이 (한마음 풍물패 1, 3기) - 삼도설장고 중 덩더쿵이 동살푸리 휘몰이 (한마음 풍물패 5, 6기) - 삼도설장고 중 굿거리 덩더쿵이 휘몰이 (한마음 풍물패 1, 3기) - 웃다리 사물놀이 (한마음 풍물패 전체합주)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8월 13일	
교육 및 행사 장소	판교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사업 계획서 상의 사업 목표와 내용이 실제 행사의 실현 내용과 목표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지원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운풍헌 공연 내용, 의도 취지 등이 일치했다. - 어린이 풍물패 12 명과 전문 국악인 2 명이 공연에 참가했다.
	진행의 수월성	- 행사 홍보가 좀 미흡한 듯 하다.. - 청소년 소식란에 안내지나 주차장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가는 길 소개 등, 전혀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없었다.	- 주 관객층은 가족과 어린이 출연진의 또래 친구들 이었다. - 사회자가 호응 유도, 후원, 취지 등을 소개했다. 사회자가 공연 시작 전에 박수와 함성 등 관객들에게 국악에 맞는 추임새 등을 알려줘 관객들이 공연을 더 흥겹게 볼 수 있게 도왔다. - 현수막(총2장)이 걸려있었으며 공연장 입구에 포스터 3~4장 붙어있었다. 판교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은 좋지만 차가 없는 관객들이 접근하기에는 외진 곳에 위치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 감동적이었다. -초청된 출연진이 다양한 분야를 선보여 여러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무척 진취적이었으며 예술성도 높았다고 생각된다.	-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을 가야금, 판소리, 설장고, 비나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했으며 공연 프로그램 중간에 진도 북춤을 배치함으로써 주위를 환기시켰다. - 전문 국악인(이효덕, 임수빈)이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공연의 수준을 높였다.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래도 출연진들이 학생이다 보니, 관람객들도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대부분이었다. 출연진 입퇴장시 어수선했다. - 하지만, 작품이 시작되면 집중하게 될 만큼 열정적인 무대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가 관객들에게 사전 호응 교육을 시켜서 매 연주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이 열심히 박수를 쳤으나 공연 중에 추임새를 넣으며 흥겨워하는 관객은 없었다. - 주 관객층인 어린이들이 국악이 낯설어서인지 지루해하는 모습이었다.
--	--------------------	--	--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한국의 음악을 이해시키고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키우는 데에 지역이미지를 높였다 생각한다.	- 지역 내 학생들을 단원으로 하여 단원들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간에도 교류를 만들어 공동체 형성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어려서부터 전통음악을 체험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국악을 접하기 어려운 신도시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국악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단원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그들의 친구인 학생들이 많이 왔다. 비교적 국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악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게 된 듯 하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사업 참여자의 의지가 강하고, 국악에 대한 애정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열정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직 국악인과 국악 전공자로 이루어져 전문성을 띄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후원받고 있다.
	프로그램 지속성	- 향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선후배들간 유대관계가 지속될 듯 하다. 한마음의 여러 기수들이 모인 공연이어서 전통이 있는 팀임을 입증했다.	- 2003년부터 풍물반이 시작되었으며 다년간의 공연 경력과 수상 경력이 운풍헌의 국악 콘서트가 1회성 공연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객석을 가득 메운 200여명 관객의 뜨거운 호응 : : 판교청소년 수련관 객석이 모두 채워졌다. 수련관을 이용한 주민들의 관람도 있었다.
- ② 어린이와 청소년이 또래들을 위해 직접 공연 : : 한마음어린이풍물패, 계원예중 한국무용과 학생들, 푸른학교와 민예총 가야금반 초등 중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교류 공연했으며 이후 국악모임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 ③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친근감 형성 : :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 ④ 가족 공연문화 요구 충족 : : 가족단위의 공연 관람객이 많았다. 방학기간 청소년들의 공연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줬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같은 또래의 공연을 공연자가 되어, 관객이 되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갖게 하겠다는 사업취지가 잘 일치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 ② 하지만, 행사 장소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점이 아쉬웠다고 평했다.
- ③ 전통국악인 가야금, 판소리, 비나리, 모듬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공연을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전달했으며 본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은 국악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④ 다년간의 공연 경력과 수상경력이 있는 단체로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고 행사의 지속의지가 강해서 지역 내의 활발한 활동이 계속 된다면 소중한 지역문화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1.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이미지음악인형극소금인형’-나를 찾아서 _ 극단 로.기.나래

프로그램명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이미지음악인형극소금인형’ - 나를 찾아서
주관단체명	극단 로.기.나래
사업기간	2011년 11월 27일, 2회 공연
사업장소	정자청소년수련관
사업참여인원	12명 (관람 약 30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그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형식과 실험적 표현의 시도로 인형극의 관람 대상의 폭을 넓히고 인형극의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문화적 혜택이 비교적 적은 성남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8월 초 : 스태프회의 (공연 개요 및 진행 논의, 음악보완작업)

10월 : 연습시작 (인형의 움직임 및 오브제를 사용연습)

10월 말 ~ 11월 초 : 연습 (대본, 노래 연습, 음악과 움직임 무대를 통한 총체적 연습)

11월 26일 : 셋업

11월 27일 :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공연개요 - 사업대상 : 성남시민 (특별초청 : 청소년단체, 보육시설, 사회소외계층) - 참여예술인 : 12명 - 창작 재연 - 공연시간 총 60분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일시	11월 27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정자 청소년 수련관4층 공연장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p>-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인형극 관람대상의 폭을 넓혀 인형극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기획의도라 하였다. 사업명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청소년관객을 없었고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과 학부모들이 주관객이었다. 의도했던 관객층을 극장으로 오게 하는 것은 실패한 셈이다. 또한 철학적인 내용과 정적인 분위기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다.</p> <p>- 하지만 함께 온 부모님들에게는 자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춘천이나 가야 볼 수 있는 훌륭한 인형극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p>
	진행의 수월성	<p>- EPPLE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이미 정자청소년수련관의 곳곳에 홍보지가 붙어 있었고 수련관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있었다. 공연 당일에도 여느 공연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객석을 안내해주시는 분께서도 일일이 관객에게 좋은 자리를 친절히 안내해 주셨다.</p>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p>-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 받은 작품이고 작년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던 작품이라 예술적 완성도는 뛰어났다. 장대인형, 분절인형, 그림자인형, 각종 오브제들,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하였다.</p>
	대중적 호응도	<p>- 인형이 섬세하게 움직이고 나비와 꽃, 바다가 출렁이는 등 새로운 표현방식에는 신기해 하였으나 연령대가 맞지 않는 관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끔은 지루해하고 무서워 하기도 했다.</p>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인형극제나 가야 이런 공연들을 볼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이 지역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성남시민으로서 감사함을 느낀다. - 다만 기획의도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의 공연문화 활성화라는 점은 기여하지 못했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공연이고 작년 성남아트센터에서 유료였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공연이었다. -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미리 홍보를 통해 접수를 받았고 티켓을 모두 배부하였다. 그러나 굿은 날씨에 무료 공연이라는 점 때문에 티켓을 받아간 관객들이 반도 오지 않는 등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아직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부터 로.기.나래 만의 색깔로 꾸준히 좋은 작품을 창작해왔고 작품성으로도 인정 받고 있다.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를 통해 소금인형 뿐 아니라 로.기.나래의 여러 레파토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섬세한 인형연기가 훈련된 배우들, 무대디자인, 다양한 소품들을 극단의 구성원들이 직접 창작한 것이기에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작품 또는 사업이 문화예술적인 수준 향상 : 철학과 음악, 그림, 인형과 이미지 영상 등 서로 다른 장르인 예술 문화의 교류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작품구성을 통한 공동작업으로 인해 각 분야별 새로운 발전을 실현했다.

② 작품 또는 사업의 관객 참여성 향상과 저변 확보 : 문화와 단절되다시피 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문화의 접촉하고 지속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인형극의 저변확대와 대중적 친밀성을 유도했다.

③ 지역의 문화적 쾌적성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문화소외계층의 관객을 공연에 초대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④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창조적 계승 :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의 형태로 각기 다른 공연예술 분야간의 창조적인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인형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성남아트센터 상연 및 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전문 배우와 다양한 음악, 소품 등을 이용해 새롭게 표현한 점을 꼽았다.
- ②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함양을 하겠다는 사업목표와 다르게 실제 관람객들은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주 관객이었으며 다소 철학적인 내용과 정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인다.
- ③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공연이며 작품성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전문 극단으로 향후, 더욱 더 좋은 작품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

5) 프로그램 사진



2-12. 아카펠라와 만나다! 아카펠라 그룹 '젠틀브리즈' 창작공연 _ 젠틀브리즈

프로그램명	아카펠라와 만나다! 아카펠라 그룹 '젠틀브리즈' 창작공연
주관단체명	젠틀브리즈
사업기간	2011년 10월 15일, 오후 6시
사업장소	성남 연음홀
사업참여인원	8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아카펠라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며 교육적인 차원까지 접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도 공연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이웃들에게 재미있는 공연으로 접근하며 문화예술의 진흥과 사회복지로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가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곡으로 구성했다.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출연진 8명 ②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하였음.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일시	10월 15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연음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사업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창작공연이라고 하나, 공연장 입지가 좋지 않아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음. 사업신청서에서는 성남아트센터 대관하여 공연한다고 했으나, 장소가 바뀜. 바뀐 장소는 하우스콘서트 규모 정도의 작은 홀, 70석 규모 정도 었음. - 지역아동센터 5명, 인솔교사, 젠틀브리즈 대표, 스태프, 본인 이렇게 총 9명이 공연을 관람함.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입구는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포스터나 배너, 리플렛을 찾아볼 수 없었음. 오전 지방공연으로 인해 가져오지 못했다고 함. - 공연시작시간이 10분 늦었고, 총 공연시간은 40분 정도여서 총 1시간 안에 공연마무리됨. 마이크와 스피커 소음발생함. - 공연시간은 40 여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 공연 후, 포스터를 메일로 송부받아서 공연 레파토리를 비교해보았으나, 전혀 다른 레파토리로 공연함. - 집객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지역아동센터 등에 홍보 했으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미난 코너를 마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호응이 좋음. - 사업신청서 내의 기재된 뛰어난 경력의 멤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7명 중, 1~2명의 기량만 뛰어남.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펠라라는 장르가 관객 참여도를 높이면서 함께 소통하는 공연으로 구성되면 호응도 높고 아카펠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됨. 장년층도 가능하지만, 특히 어린이 층을 타겟으로 문화예술교육 차원으로 구성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됨.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이 생소할 수 있는 장르인 아카펠라를 소통의 매개로 공연을 기획하여 지역 내 문화향유 확대,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의 공연으로 기획했으나 홍보부족 및 떼우기식의 공연으로 실망을 주었음. - 관람한 어린이들은 공연을 좋아했음.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펠라로 특화해 지역 내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카펠라 관련 인프라와 향후 성남의 이미지와 어울릴 것인가는 재고해봐야 함.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역량으로는 충분하나, 이 날 공연한 팀은 역량이 부족해 보임. - 지원금 사업기간 안에 수행하기 위해 떼우기 식의 공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홍보에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관객동원율이 턱없이 낮아 사업단체의 전체 역량에 대해 다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펠라 공연이라는 희소성을 중점으로 본다면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것은 의미 있어 보임.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성남 시민의 음악적 소양 상승 기대 : 아카펠라라는 음악 장르가 경기시민들과 만나면서 아카펠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였다.

② 젠트리브리지의 창작력 독려와 향후 프로그램 개발 : 본 공연으로 단체 구성원들의 창작 능력을 다시 한번 독려할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욱 힘써 적극적인 공연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아카펠라 장르의 공연을 통해 성남 내 문화취약계층에게 선보여 문화향유와 더불어 아카펠라를 파급 하겠다는 사업목표를 가진 사업이었지만, 홍보 부족과 레퍼토리 부족으로 사업목적이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② 홍보부족으로 관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연 시간 및 레퍼토리가 팜플렛과 다른 점 등, 본 사업에 대한 성실성이 매우 부족한 사업이라 평했다.
- ③ 향후 사업 기획 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교육과 아카펠라 장르의 파급,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관람대상, 레퍼토리, 홍보 등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13. 송규정의 정가 ‘늦가을 그리운 정가의 향기’ _ 소석가악원

프로그램명	송규정의 정가 ‘늦가을 그리운 정가의 향기’
주관단체명	소석가악원
사업기간	2011년 11월 5일
사업장소	중원청소년수련관
사업참여인원	12명 (관람 15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한국의 선비정신이 깃든 가곡, 가사, 시조의 정가를 성남 시민에게 체험하게 하여 선조의 문화유산이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정가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정서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6~9월 : 장소 대관에 따른 협의 및 조정

9월 : 프로그램과 반주자 확정

10월 : 장소 확정 후 대관, 공연연습,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작 (인터넷, 지역신문 등)

11. 5. : 리허설, 본 공연.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공연개요 - 시조(평시조, 우조시조 외), 가사(백구사, 죽지사), 기악합주, 가곡(여창평조, 남창평조, 여창 계면조, 남창 계면조 외)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모니터 일시	11월 5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시 중원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내용은 계획서상 프로그램에 맞게 모두 진행됐음. -정가로 인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고찰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단체 관람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관객석을 대부분 채우며 어느 정도 사업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 국악 연주회로 손색이 없는 진행으로 높은 수준의 연주회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에게 정가의 향취를 느끼게 하기 위한 공연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었고, 이미 정가에 익숙하고 우리 가락에 익숙한 관객들과 관계자들(지인들)이 너무 많았다. -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변경 없이 실행하였다.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주변 시설이 잘 되어있음. -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1층 로비에 행사를 알리는 표시가 보이지 않음. - 다가가기 어려운 정가라는 측면에서 팸플릿에 공연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분야의 대가이신 용인대 이오규 교수의 감독으로 리허설부터 연주회까지 잘 진행된 편이다. 반주를 위해 초빙된 연주자들은 국립국악원에서 초청해오신 분을 포함 훌륭한 연주를 보여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홍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았다. 중원 청소년 수련관의 바깥쪽이나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1층에서도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2층 공연장 바로 앞에 가서야 홍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연은 예술적으로 훌륭했으나 홍보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음 공연장 앞 안내원이 정숙 유지와 팸플릿 배포를 담당하고 있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p>- 시조, 가사, 가곡의 순서로 공연을 하여 공연의 전체적인 구성을 맞춤. 팸플릿에 각 공연의 가사를 기재하며 사회자의 설명으로 다가가기 힘든 정가라는 분야에 관객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높이 평가를 주며 공연 전체적인 예술적 완성도는 높음.</p>	<p>-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송규정 선생 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이는 연주회였고,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분야 중 정악 부분 성악에서 시조, 가사, 가곡 등을 고루 다 알리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p>	<p>- 시조, 가사, 가곡 등 다양한 우리 가락이 연주되었다.</p> <p>- 풍물패 공연에 비교하자면 매우 조용한 정가 공연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들이 집중력을 잃는 모습이 보였다.</p>
	대중적 호응도	<p>- 주된 연령층은 50~60 세 이상 노년층이 다수를 이뤘고 대다수가 단체관람을 함. 관객수는 약 150 여명 정도로 공연장을 대부분 채움.</p> <p>- 정가라는 특성상 전 연령층에게 관심을 받는 정도와 대중성에는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로써 관람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p> <p>- 행사는 주말 저녁시간에 진행되었고 장소는 중원청소년수련원 내부 공연장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쉽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됨.</p>	<p>- 문화센터와 소석가악원의 문하생과 지인들이 참여한 객석은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연주회였다. 그러나 일반 관객은 몇 명 되지 않아 순수 예술 공연에 관심없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다.</p>	<p>- 부족한 홍보로 인해서 중 고등학생 10명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 관객인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관객의 대부분이 단체의 지인들이었다.</p> <p>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연을 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과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홍보 타겟으로 지정하여 홍보할 수도 있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p> <p>- 사회자가 정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팸플릿에 적힌 정가의 가사를 보면서 공연을 보라는 안내 멘트를 해서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했다.</p>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성남의 지역문화예술의 질을 높이는데 전문성을 띄는 예술인들이 이러한 공연을 함으로써 지속된다면 지역문화예술이 한층 더 성숙해 질것을 예상함.	-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정가를 알리고 교육하고 있으므로 다행한 일이며 지역으로선 행운이다.	- ‘국악’을 떠올리면 ‘사물놀이’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국악 중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가’를 행하는 예술가가 성남에 있고, 성남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대중이 알게 된다면 성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질 수 있겠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성남시에 기반을 둔 지역의 전문가가 직접 공연기획과 연출을 하고 진행을 하며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는 등 인프라적인 면에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함.	- 문화의 다양성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연주가에게 연주의 기회도 제공하여 자발적인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있다.	- 사회자가 공연 마지막 부분에 정가를 배우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소석가악원으로 오라는 멘트를 하며 문화 교육 참여를 유도했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분야의 전문가로 기획과 실행에 전반적인 진행능력은 높음. - 다만 아쉬운 점은 주체자가 이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정가를 알리고자 하는데 예만 목표가 치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 향후 젊은 인력을 보충하여 홍보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 수준 높은 연주자를 섭외할 수 있고 탄탄한 레퍼토리로 알찬 연주회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사업비를 충당하여 공연을 치워서 역량있어 보임.	- 연주자 10명 중 5명이 무형 문화제에 지정되어있고, 나머지 단원들도 전문성을 띤 베테랑들이다. 경기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한국국악협회, 성남시지회, 덕유풍류원, 한국 전통 예술 학회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의 연령층에 따른 특성을 보자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 - 물론 관람객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팸플릿에 정가의 가사들을 쓰고 사회자의 해설이 곁들여 졌지만 한번 관람한 관객이 두 번 관람할 가능성은 적어보임. 다만 이러한 공연을 지속 함으로써 정가라는 국악 자체를 알리는데 힘쓰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본인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계속 할 역량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로 송규정의 정가 공연은 여섯 번째 공연을 맞이했다. 일회성 공연이 아닌 매년 돌아오는 정기 공연이다. - 소식 가악원에서 정가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
--	-------------	--	--	--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 ‘정가’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며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분야의 특성상 대중성이 높지가 않았고 관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함.	- 중앙 무대에서도 쉽게 열지 못하는 우리 정가 연주회를 성남문화재단의 뒷받침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송규정선생이 계심으로 할 수 일임을 생각해야 할 일이다.	좋은 공연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 공연 장소가 청소년 수련관인 만큼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공연을 제공했다면 일반 관객들(특히 청소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적은 사업비로 축소된 공연의 규모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 ② 프로그램 구성이나 전체적인 연주가 아주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
- ③ 정가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대중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 자주 공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 ④ 공연 요일과 시간이 집객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 ⑤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성화가 어려운 정가의 발전과 광범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합당한 사업비 지원을 바란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한국의 시조, 가사, 가곡의 정가를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로 관람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주자 절반이 무형 문화재 이며, 다른 단원들도 전문성을 띤 연주자로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었다고 평했다.
- ② 사회자의 세심한 설명, 정가의 가사를 팸플릿에 기재하는 등, 정가라는 분야를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했다. 이런 공연이 지속된다면 정가를 알리는 수단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인다.
- ③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행사였으나 관람객 중, 중고등학생을 보기 어려웠으며, 수련관 특성상 제일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홍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사업진행 시 참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④ 향후, 꾸준한 교육으로 젊은 인력을 발굴하고 찾아, 지속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자산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4.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지컬 _ EPPLLE

프로그램명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지컬
주관단체명	EPPLLE
사업기간	2011년 6월 1일 ~ 2011년 11월 12일
사업장소	정자청소년수련관
사업참여인원	30명 (관람 60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성남시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뮤지컬 정기연습과 정기공연, 수련관 연합공연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 사업추진일정

6월 ~ 8월 : 월 5~6회의 정기 연습, 1회 길거리 공연, 매월 1회 정기회의, 뮤지컬 ‘빨래’ 관람

9월~10월 : 주 2회의 정기연습, 매월 1회 정기회의

11월 : 11일, 12일 정기공연. 평가 겸 정기회의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뮤지컬 ‘빨래’ - 일시 : 2011년 11월 11일, 12일. - 장소 : 정자청소년수련관 - 소요시간 : 2시간 - 공연목적 : 성남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뮤지컬 ‘빨래’를 통한 재미와 감동 선사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10월 29일, 11월 9일, 12일	10월 29일, 11월 12일
모니터 횟수	3회	2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정자 청소년 수련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동아리 활동학생들이 작품의 다양한 배역으로 많은 인원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지원금은 부족했지만 아르바이트와 후원, 용돈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충당했다.	- 사업계획에 맞게 연습과 공연이 잘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 임박한 연습 막바지에는 완성도를 위해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 리허설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거의 정시에 막을 올리고 기술적인 실수도 거의 없이 공연을 마쳤다.
	진행의 수월성	- 직접학교 학생들에게 공연을 알리고 공연 전 공연장소 1주일 무대를 빌릴 수 있어 공연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청소년 수련관은 학생들의 문화의 장으로 접근이 수월했다.	- 늘푸른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정자 청소년수련관이라 주 관객인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바로 공연장으로 올 수 있기에 편했다. 프로그램과 포스터는 관객이 눈에 잘 띄게 부착되었고 정자 청소년수련관측 청소년 공연기획동아리 '루도'와 연계가 되어 공연 진행 및 기술적인 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빨래' 라는 작품이 지금 학생들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으나 직접 무대 위에 올려진 연극을 관람하는 열의를 보이며 연습하면서 배역과 가까워지도록 연습을 했다고 한다. 보는 학생관객입장에서는 크게 흥미를 가질 수 없는 작품일 수 있다.	- 고등학생들 스스로가 거의 주도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느껴진다. 무대세트, 노래와 대사, 동선, 기술적인 면이 완성도 있게 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느껴졌다. 다만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대사, 액팅, 노래 등의

			연습이 있어야 관객, 배우 모두에게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중적 호응도	<p>-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도 함께 자리했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학생들이었다.</p> <p>친구 선배 후배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공연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2시간의 공연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중간에 자리를 뜬 학생관객도 있었다.</p>	<p>뮤지컬 공연장이라기 보다는 고등학교축제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관객들이 대사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시기 또한 주 관객인 고등학생의 중간고사를 마친 다음이라 중극장 이상의 규모임에도 객석의 90%가 채워졌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졸업한 대학생들, 인근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아왔다.</p>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p>- 동아리가 늘푸른 고교에서 출발해 지금은 분당,죽전,수지 등 인근 고등학생으로 이뤄져 단순히 학교 동아리보다 더 나아가 여러 학교 학생들의 커뮤니티로 이뤄졌다.</p>	<p>- 관객으로 찾아온 분당의 고등학생들에게 달동네의 쪽방촌과 이주노동자의 삶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알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p> <p>-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연극동아리활동을 통해 공동작업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고, 공연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p>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p>- 지역내 수련관에서 지역 학생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연이다. 학생들이 주변 음식점에 후원을 받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도왔다. 수련관 강당의 개방으로 마음껏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또 관객은 가깝고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p>	<p>- 5년째 해를 거듭하면서 EPPLE의 공연이 가을이면 인근 고등학생들의 기다려지는 정기 공연이 되었다. 처음에는 늘푸른고등학교 연극동아리였으나 정자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모집공고를 해서 지금은 죽전, 수지까지 인근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 건강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p>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연극인 전문가의 지도하에 활동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동아리 선배의 지도에 따른 공연준비라 역할 분담과 소품준비 등 미흡한 점이 보인다. 하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2 회 공연을 이뤄냈다.	- EPPLE의 구성원이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재정적 역량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5년간 작품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과 졸업한 선배들의 도움으로 해왔다. 현재 토요일 CA 시간에 연습할 때는 담당선생님께서서 참관하시는 등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프로그램 지속성	- 2007 년부터 시작된 동아리활동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선배가 되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이번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담당자도 이 동아리 출신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매년 정기 공연을 해왔고 참여자들의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인터뷰 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응원해 주신다고 하시니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 3년 이상 동아리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했고 기획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작품이 요즘 학생들의 이해를 얻을만한 소재가 아니었고 2시간이라 조금은 지루한 면이 있었지만 무대에 오른 많은 학생들의 적극성과 또 같은 또래 친구들의 관객 호응도는 높았다. 선후배 관계로 계속적으로 전통이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공연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등학생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연극적으로도 지금보다 완성도 있게 작품을 만들어 낸다면 더욱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될 것이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성남지역 청소년들의 뮤지컬 공연 및 기획 등의 경험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
- ② 청소년 층의 뮤지컬 장르에 대한 관심 증가
- ③ 뮤지컬 배우 지망생 발굴의 의미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성남시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뮤지컬을 배우고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고등학생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 그 과정을 통해 보여진 의지와 노력, 동아리를 졸업한 선배들의 참여,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실함과 순수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 ② 늘푸른고등학교 동아리에서 경기지역의 고등학교 연합 커뮤니티로 발전된 모습은 청소년문화의 청소년커뮤니티 형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매우 바람직한 좋은 사례로 보인다.
- ③ 관객석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졸업한 대학생들, 인근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약 90%의 객석이 채워졌다.
- ④ 다만,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대사, 액팅, 노래 등의 지도와 연습이 있어야 향후, 더욱 더 발전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 ⑤ 매년 정기공연을 가졌고,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안정된다면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5. 미디어여행프로젝트 <길이 나에게 묻다> _ 찬란한 일상

프로그램명	미디어여행프로젝트 <길이 나에게 묻다>
주관단체명	찬란한 일상
사업기간	2011년 5월 ~ 7월
사업장소	성남시(함께여는청소년학교, 성남시청), 강원도 정선군 동강 일대
사업참여인원	25명 (관람 10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사회소외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여행 프로젝트로서 2박 3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카메라, 녹음기, 4B연필과 스케치북을 도구 삼아 자연의 언어를 느끼고 예술적 체험을 한다. 자연의 언어를 배우고, 감각을 발견하며 풍경을 기록하면서 일상과 다른 감성을 깨우는데 주목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5월 : 답사 후, 여행지 확정 (강원도 정선군 동강길, 예미역)
 멘토 모임 (분야별 멘토들이 모여서 사업일정 및 세부계획 논의)
 청소년 + 멘토 첫번째 모임 (사업 설명 및 모둠 나누기)
 6월 : 길이 나에게 묻다 여행 (2박 3일간 미디어+생태 여행)
 : 여행 후 1차 모임 (전시 및 상영회 준비 / 문화예술연구소 놀다 강의실)
 : 여행 후 2차 모임 (전시 세부 계획, 최종 전시작품 선정 / 함께여는청소년학교)
 7. 13. : 여행발표회 (전시, 다큐멘터리 상영 / 성남시청 한누리홀)
 7. 22. : 프로젝트 평가회 (기획자, 멘토, 교사 등이 모여 프로젝트 평가회)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참여인원 : 청소년 14명, 멘토(교사) 11명</p> <p>② 세 가지 테마로 모둠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모둠 : 녹음기와 헤드폰으로 여행길에서 담을 수 있는 정선의 소리 담기 - 스케치 모둠 : 연필과 드로잉북으로 정선의 풍경을 담고 여행을 스케치함. - 사진 모둠 : 디지털카메라로 정선과 여행 모습을 담음. <p>③ 도보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여행지 30km를 2박 3일동안 모두 도보로 이동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모니터 일시	7월 13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시청 한누리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젝트를 통한 기대 효과는 걷는다는 행위를 통한 아이들의 성찰과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있다.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 영상물을 통해 묵묵히 힘든 길을 걷는 아이들과 영상 촬영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아이들이 걷는 행위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 스케치와 사진,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을 오랜 시간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 보여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도를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교부 신청서 내용에 첨부된 다큐멘터리 내용에 멘토모임 풍경 등을 넣는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없어 사업내용의 과정(여행-학생/멘토 모임-여행발표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어 아쉬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여행을 통해 스스로 느끼는 작은 깨달음을 목표로 둔 사업이다. - ‘길이 나에게 묻다’는 사업 기획의도와 목표에 충실한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사업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청소년전문가들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감성적 역할에만 치우치지 말고, 자연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의 안목도 키워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시작 이후의 진행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행사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웠다. - 행사의 포스터나 현수막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진행은 예정 대로 진행되었음 -홍보용 현수막이 2개 예정이나, 1개만 있었음. 포스터 확인할 수 없었음. -성남시청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던 만큼 화장실, 식수대, 휴식공간 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청 한누리홀은 관람객을 수용하기에 공간규모가 적당했다. 반면, 시청 입구에서 행사 장소를 안내하는 표지가 눈에 띄지 않아 행사장 유입에 불편함이 있었고, 행사장을 알려주는 행사 관련자 역시 보이지 않았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에는 계획서에 명시되어있던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사진과 스케치는 그 행위 자체에도 높은 평가를 줄 수 있겠지만, 수준도 뛰어났습니다, 영상물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추어 촬영되었기에 프로젝트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 무엇보다도 '소리'를 사용한 것이 실험적이며 독창적이었다 아이들이 녹음한 자연의 소리를 눈을 감고 감상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에 대한 결과물가 사진,그림,영상,녹음 4가지로 표현됨. 여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것을 영상 상연 전에 행사장의 불을 모두 소등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들려주는 것이 흥미로웠음. -사진이나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 보였음. -행사가 진행된 장소의 제한 때문에, 사진을 크게 보거나, 벽에 직접 걸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치 수행 길을 떠나는 듯한 학생들의 편안한 모습에 관람객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행사내용이 참신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참신했음은 흥미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일으켜서 매력적이었고, 전반적인 기획력은 발상은 좋았으나, 영상물 도입부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초반 시선잡기에는 실패한 듯 보였다.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들은 프로젝트 참가자와 친구가 대부분이었다. 학부모님들이나 외부 관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행사가 주말이었더라면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일반인과 학생들이 알게 될수록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에 참여한 학생의 친구들이 관객의 대부분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대다수가 행사참여 학생들이었기에 사업수행에 따른 대중들의 호응도를 따지기가 애매모호하다. - 일반인들에게 보여도 흡족한 행사였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아쉬웠다. 이 행사는 범시민적, 범대중적 코드로도 안성맞춤이라고 본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기여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사회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 이는 아이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 뿐만 아니라 성남의 지역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에 있는 사회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여행을 하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함.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행사 장소와 시간대가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시간대가 아니었다. -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대상자인 아이들에게 그림, 영상과 같은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행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청소년들이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 문화예술활동에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끼리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홍보와 발전에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행사를 이끈 선생님들의 직업이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사진작가, 다큐멘터리작가 등 전문 분야 이기에 앞으로도 그 전문성의 퀄리티를 더욱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성남시문화자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콘텐츠라고 본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지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업 주체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 참가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다음에도 기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의 테마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무한히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예) 청소년들의 명상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은 행사공연 내내 관심을 가지고 지켜다. 그만큼 매력있고 차별성있는 사업이기에 '즐거움과 감동'의 테두리 안에서 형태 변주를 통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된다면 재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보며, 홍보가 잘 이뤄진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지속성	-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표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보였다. 단체의 지속적인 추진 능력 또한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	-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의지가 있음을 확인.	- 공연 행사날에 보인 사업주체의 팀워크를 보니 끈끈해 보였다. 향후 사업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3
- 전반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 만큼 성남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과물도 매우 눈여겨 볼만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나 상영회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홍보가 널리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이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학생들이 주인공인 행사인 만큼 행사준비단계부터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자칫,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 자체의 문제로밖에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았음.	- 사업비 대비 효율 (재미와 감동)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본다. ‘여행’ ‘길’이 던져주는 화두가 꽤나 의미심장하고 (사업)여행장소와 상관없이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속적인 시행이 의미 있을 만큼 매우 값지다고 본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여행은 어떤 것을 주는지, 감수성이 한창 풍부한 나이이지만 표현방법을 몰라 어색하기만 한 자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렇듯 많은 것을 멘토들에게 나눠주고 길 위에서 만난 것, 느낀 것을 사진 매체에 잘 담아주었다.
- ② 여행 참여했던 아이들은 6월의 기억을 자주 이야기했으며 이런 여행이라면 졸업 이후에도 꼭 참여하겠다고 했다.
- ③ 여정이 담긴 다큐멘터리, 자신들의 사진이 액자로 전시된 모습이 꽤 즐거웠으며 3일간의 여행은 아이들과 멘토들 모두에게 ‘삶은 곧 여행’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사회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도보여행을 통해 길이 주는 의미를 각자 깨닫고, 그 과정을 소리와 스케치, 사진으로 남겨 함께 전시와 상영회를 가졌다. 예술적 감성을 깨우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건강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획의도와 목표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라 평했다.
- ②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사진작가, 다큐멘터리작가 등 전문가 들이 멘토로 역할하여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아닌, 멘토와 멘티의 만남으로 구성하여 보다 자유롭게 참여청소년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을 도왔다.
- ③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으며 여행의 테마와 장르의 다양함에 따라 여러 형태로 기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④ 하지만, 발표회 당일, 홍보부족으로 참여학생과 친구들 외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관람이 없는 점, 행사 장소까지 유입시키는 안내 부족 등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 ⑤ 본 사업지원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생들도 재참가의 의사를 밝히는 등,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성남시 문화자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6. 행복한 영화 _ 포토펠리스

프로그램명	행복한 영화
주관단체명	포토펠리스
사업기간	2011년 6월 ~ 12월
사업장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놀다(교육), 분당노인종합복지관(상영)
사업참여인원	6명 (관람 20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영화창작, 상영회를 통해 모든 세대가 서로의 감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포토펠리스는 61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미디어 관련 동아리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과 창작작업을 통해 모임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업추진일정

2011. 6~7월 : 영화의 기본 요소에 대한 교육

9~11월 : 집단 스토리텔링 및 교육

12월 : 촬영 전 최종점검, 영화촬영

: 마침 시사회 (내부시사회, 12월 15일,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놀다)

2012. 1월 : 외부 상영회 (1월 13일, 분당노인종합복지관)

: 전 과정 평가회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① 결과물 - 총 단편영화 2편 제작. (초기 습작 1편, 최종 창작품 1편) - 사진 슬라이드 쇼 1편, 영화촬영 과정을 기록한 메이킹 영상 1편 제작 - 위의 모든 결과물을 모아 DVD로 제작해서 총 100장을 지인과 유관단체에 배포. - 제작된 영화는 2012년에 개최될 제 5회 노인영화제에 출품할 예정.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11월 10일, 12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모니터 횟수	2회	2회
교육 및 행사 장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놀다, 촬영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사업진행이 많이 늦춰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촬영을 하는 부분까지였다. 그래서 사업목표인 세대간의 공감과 상영회를 통한 분위기를 볼 수 없어 평가가 모호하다. 시나리오 작업과 촬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외부의 전문적인 강사의 진행과 도움이 없이는 이 사업의 진행은 힘들다는 점과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의 열정이 뜨거웠다는 점이다.	- 사업일정이 매우 늦어졌다. - 참여하신 분들 모두 적극적이었고 교육과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놀다’가 교육에 능숙하여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다.
	진행의 수월성	- 상영회 전이라 평가가 어렵다. - 매주 목요일 10 시에 놀다 연구소에서 정기모임을 여섯분의 회원과 강사가 만나서 진행하고 12월 10일 주인공 할아버지 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월하게 촬영했다..	- 일정 내에 마치지 못하여 아쉽지만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었고 상영회가 잘 끝난다면 무난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시나리오와 촬영의 콘티로 봤을 때 너무 무난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추어들의 영화를 보지 않은 나의 편견일 수 도 있지만 모두 사진만	- 완성된 영화를 보지 못했으나 시나리오와 촬영 현장에서 느낀 점은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야기를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잘

		접하신 분들이어서 영화의 촬영 자체가 신기하고 정신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요즘 노인분들의 미디어분야의 교육은 복지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획이나 구성의 참신성은 떨어지는 듯하다.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특히 대본 집필과 주연을 맡으신 할아버님의 연기를 볼 때 배우의 연기 그 이상의 감정과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인생의 무게가 절로 느껴졌다.
	대중적 호응도	- 상영회날짜와 행사장소가 1월 중순 중이라는 관계자의 이야기만 전해들은 상황이어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있지 않은 것 같다. 또한 공개오디션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더욱 대중적인 반응을 알 수 없었다.	- 상영회를 아직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노인들의 성취감, 공동체 형성 등에 도움을 준다.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알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노후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다. 이번 영화를 찍는 분들은 다른 단체나 문화센터의 강의에 많은 참여를 하고 계셨다.	- 복지관에서 상영을 하였고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셨다면 노인문제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 이러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매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해 볼직한 것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 이번엔 참여하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본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성남에 있는 노인 복지관에서 상영회를 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사진동아리 포토펄리스의 회원이 영화를 만들 수 있기 까지는 지역 전문가의 도움과 노인분들의 열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참여하신 노인분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 계획했던 대로 복지관의 연극동아리를 통해 오디션을 거치는 등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지원금의 대부분이 강사비로 지출되었는데 강사비를 줄여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두 팀 정도 나뉘어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p>- 포토펠리스가 스스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였다. 영화는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시나리오 작업과 촬영 진행도 계획하기에는 어려운 듯 했다.</p> <p>이 부분은 전문단체인 '놀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p>	<p>- 회원들이 각자 사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실력을 두루 갖췄고 새로운 것에 거침없이 도전하시려는 의욕이 강하셔서 이번에 '영화'창작을 택하신 것 같다.</p> <p>하지만 영화라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놀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p> <p>- 또 이번에 영화를 처음 접하는 것이라 창작에 앞서 교육을 받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늦춰진 것 같다.</p>
	프로그램 지속성	<p>- 이 부분도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다면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듯하다. 특별히 사업을 지속하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듯하고 일회성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p>	<p>-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나 편집 등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마추어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p>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p>- 촬영 당일날 컷소리, 카메라 위치 잡기, 주인공 배우의 어색한 연기, 몇 번의 계속된 NG장면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다. 모니터하면서 내내 즐겁고 혹시 나 때문에 NG날까봐 숨죽이고 지켜보는 모습도 흥미로웠다. 장면 하나에 좀 더 잘 찍고 싶은 노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였다. 다만 진행이 너무 늦게 되어서 상영회를 보지 못하고 평가를 한 점이 무척 아쉽다.</p>	<p>- 도전하신 분들께 감동 받았고 그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약속된 일정에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영화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p>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은 실기 위주의 기능 교육이 절대로 많다. 출연은 물론 시나리오, 촬영까지 직접 다 해보고자 했기에. 강사는 멤버들한테 모두 맡겼다. 속도는 더뎠지만 그렇게 영화 한 편을 만들었고, 이는 '포토펠리스 구성원들의 작품'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다.

② 각자의 사정으로 처음 멤버가 모두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섯분이 끝까지 함께 만들었다. 끊임없는 토의와 집단 작업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화에는 노인분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③ 여름에 잠시 쉬는 기간을 가지면서 제작이 늦춰졌지만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꼼꼼하게 만들어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초기 습작 1편과 최종 창작품 1편, 총 두 편이다. 여기에 전 활동과정을 기록한 사진슬라이드쇼 1편, 영화촬영 과정을 기록한 메이킹영상 1편을 모아 DVD를 제작, 총 100장을 제작해 배포했다. 아울러 영화는 2012년에 개최되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으로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영화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배우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작의 기쁨을 맛보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하지만, 영화는 여러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교육을 맡은 ‘문화예술연구소 놀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사업단체가 포토펠리스가 아닌 ‘문화예술연구소 놀다’로 보여졌다는 점, 사업시기가 늦어져 영화 완성작을 감상하지 못한 채 평가지를 작성해야 한 점을 아쉬워했다.

③ 성남 내 노인복지관에서 상영회를 가져서 노인대상의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며 참여자 모두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완성된 작품을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라 한다.

5) 프로그램 사진



2-17. 마을배움터 형성을 위한 10 대 창의예술 아카데미 _ 성남청소년창의스쿨

프로그램명	마을배움터 형성을 위한10대 창의예술 아카데미
주관단체명	성남청소년창의스쿨
사업기간	2011년 11월
사업장소	성남시 일원 (수진초등학교, 북정고등학교)
사업참여인원	10명 (관람 약 60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개최로 국악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악 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려 한다.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령층과 어울리는 민요, 타령, 부채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공연을 개최한다.

- 사업추진일정

2011. 10월 : 세부프로그램 기획, 진행 학교 섭외

11월 : 디베이트 청소년 토론자 섭외, 훈련 (마을배움터 2회 진행)

: 행사 전 보도자료 배포

11. 25.: 첫 행사 - 성남오리뜰농악 시연 (수진초등학교)

11.28.: 두번째 행사 - 디베이트 시연 및 특강 (북정고등학교)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행사개요</p> <p>- 마을 전통예술로 만나는 창의예술 : 첫 행사(11월 25일)는 수정구 수진초등학교 4학년 학생(470명) 및 교사(10명)을 대상으로 성남오리뜰농악을 선 보임.</p> <p>- 소통 능력과 문화주체자 역량 강화 : 두번째 행사(11월 28일)은 수정구 북정고등학교 1,2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문화를 쟁점으로 디베이트 시연 및 특강 행사 진행.</p>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11월 25일, 11월 28일	11월 25일, 11월 28일
모니터 횟수	2 회	2 회
교육 및 행사 장소	수진초등학교 / 복정고등학교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지원금 축소로 인한 사업축소로 인해 기존에 기획했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하지만 오리뜰 농악과 토론을 통한 문화예술이해를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한 개개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침.	- 지역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전통예술활동과 디베이트를 통해 창의적 문화예술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획의도이다. 농악시연, 디베이트 모두 새로운 경험 통해 문화예술적 역량을 높이기에 매우 부족함이 많았다.
	진행의 수월성	- 오리뜰농악 시연과 체험은 수진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문화를 쟁점으로 한 디베이트시연 및 강연은 복정고등학교에서 진행됨. 복정고등학교의 경우 교통편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어려운 측면을 보였으나 대상자가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음. 오리뜰농악 시연과 체험에서 쉬는시간과 수업을 통제하는데 있어 학년주임선생님의 숙련된 통제로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됨.	-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수업시간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하였고 큰 움직임없이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되었다. - 일부만 참여할 수 있어, 모두가 참여하고 체험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오리뜰농악시연의 경우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호응도가 높았으나	- 오리뜰 농악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였고 각각의 장단을 알아

		<p>체험시 300 여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소 부족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쉬움이 남음.</p> <p>- 디베이트 시연같은 경우 예술적 완성도를 측정하기에 애매함. 하지만 100 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이란 생소한 분야를 강의했으며 4 명의 학생을 사전교육하고 정식 토론의 방식으로 시연을 하는 등 프로그램은 잘 짜여짐.</p>	<p>볼 있었다. 하지만 공연은 짜임새가 없고 완성도면에서도 부족하였다.</p>
	대중적 호응도	<p>- 오리뜰농악 시연과 체험에서 초등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교육 전반적인 면에서 재미를 느끼며 흥미를 가짐. 또한 오리뜰 농악의 공연을 보고 인상깊어 함.</p> <p>- 디베이트 시연 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전문 디베이트 강사의 설명에 잘 이해하고 들었으며 친구들이 직접 시연하는 토론을 보고 흥미를 느낌. 직접 시연을 한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었으며 자기계발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줌. 다만 학생들이 토론이라 지루해 하는 모습도 있었음.</p>	<p>- 오리뜰 농악에서는 비교적 아이들이 즐거워했고 참여도도 높은 편이었다. 상모모자를 써보는 시간에는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줄을 서서 10초 가량씩 써보았다. 많은 아이들이 써보기엔 모자가 두 개 밖에 없어서 아쉬웠다.</p> <p>- 디베이트 시간에는 주제가 “스크린 독과점 규제”이었는데 공감하기 힘든 주제여서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료에 근거한 원고를 읽는 정도였고 이를 관람하는 아이들은 공감하기에 힘들었을 것이다.</p>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p>- 처음 의도대로 사업이 지속되었다면 지역을 위한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보임. 그러나 지원금의 축소로 인해 문화적 체험으로 그쳤음.</p>	<p>- 오리뜰 농악, 디베이트 모두 하루 공연으로 무언가를 얻기에 힘든 것들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1회성으로 끝나다면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p>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p>- 성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의 오리뜰농악 시연과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의 연계로 지역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였고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문화자원의 활용은 좋았으나 지역문화 활성화의 측면에서 교육이 단기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음.</p>	<p>- 오리뜰 농악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p> <p>- 디베이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디베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p>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사업주체의 역량은 높음. - 네트워크 구성 측면에서 성남에서 근간을 이룬 단체가 연계하여 높은 역량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청소년창의스쿨이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실험이 장소를 기증하고 학교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 수업제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자체로 보자면 예상보다 적은 지원비에도 불구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과 시스템에 있어 변화를 주고 보완한다면 충분히 처음 의도한 기획대로 성남문화예술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임. 사업진행자들은 전문가들로 성남지역에 많은 방면에서 일하고 있으며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 - 전반적인 지원제도와 사업진행자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악시연이나 디베이트 수업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다. 성남청소년창의스쿨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속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10대 창의예술아카데미는 행사 소주제를 총 4회로 구성하였으나, 예산 신청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 횟수를 2회로 줄여서 진행하게 됨.

② 지역사회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거점으로 전 지역을 문화예술로 엮어내는 마을배움터 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살리려고 노력함. 총 4회로 진행되었다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방식을 접하고, 문화주체로서 10대의 역량을 키우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아쉬움을 남김.

③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지역 전통문화예술을 직접 본 청소년들은 가까운 마을배움터에서 보낸 공연 예술인을 만나면서, 성남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됨. 교사들도 내년 방과후수업과 주 5일제 프로그램으로 적극 추진키로 함. 마을배움터 활동으로 함께 준비한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팀도 마을 거점으로 중심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활동에 유의미함을 깨닫게 됨. 향후 지역전통문화예술을 학생들이 교육공간에서 직접 전파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낀 자리가 됨.

④ 디베이트라는 형식을 도입한 예술교육을 시도했는데, 사전 선발된 학생팀 간의 토론시연과 디베이트 특강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호응을 얻음. 아울러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디베이트 형식은 주제에 따른 창의적인 예술교육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를 확인함.

⑤ 소규모 예술문화공간의 활성화, 생활 속 문화배움을 실천하는 마을배움터 활동은 향후 건강한 문화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창의적인 방식을 활용한 예술교육 진행이 지역에서 꼭 필요함. 일정기간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주제별 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아카데미로 진행되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① 지역 내 소규모 공간들을 거점으로 전 지역을 문화예술로 엮어내는 마을배움터를 기획하였으나 예산의 축소로 초등학교 대상의 성남 오리뜰 시연과 고등학교 대상의 디베이트 시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체험으로 그쳐 아쉬웠다고 평했다.

② 초기 사업계획서에서는 교육대상을 10대 청소년 수강생으로 정하고, 소셜문화기업의 특강, 오리뜰농악 시연을 통한 전통문화 예술활동, 소통기술을 배우는 문화주체 디베이트 활동, 기록과 보존을 위한 글쓰기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예산축소로 수정된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10대들을 문화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면에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주체는 성남에서 근간을 이룬 여러 단체와의 네트워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량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초기 사업계획과 같이,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과 밀도 있는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지역 내 문화역량을 키우고, 참여한 10대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문화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8. 은행주공아파트 제5회 문화배움터 _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프로그램명	은행주공아파트 제5회 문화배움터
주관단체명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사업기간	2011년 6월 8일 ~ 9월 30일
사업장소	은행주공아파트 내 ‘풀장환상’
사업참여인원	40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2007년부터 진행된 은행주공 문화배움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에서 생활 속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경험을 축적시키며 5년간 진행되었다. 문화공동체를 꿈꾸며 이웃간 관심과 소통을 가지고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끼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즐거운 삶을 영위하며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업추진일정

2011. 6~ 9월 : 주민대상 문화예술교육 (컬트, 수채화 각 12차시 진행)

10. 15. : 은행주공 마을문화제 (풀장환상 어린이 벼룩시장과 함께 개최)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주민대상 문화예술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대상 컬트, 수채화 진행 : 각각 12차시, 마을문화제에 전시. <p>② 동네 커뮤니티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어린이 대상 : 풀장환상 어린이 벼룩시장 (연 1회) <p>③ 은행주공 마을문화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벼룩시장과 함께 개최. - 문화배움터 결과물을 전시 - 비누만들기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9월 29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은행주공 아파트 내 '풀장환상'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주제를 생태 미술로 하고 있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이어서인지 단순 그림수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따라서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 진행되는 것 같다.	- 생태 미술을 수업의 큰 주제로 잡았지만 그보다는 그냥 그림수업으로 보였다. 하지만 퀼트 수업 경우에는 강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다. 추가 수업이 계획된 것 외에는 사업계획서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었다.
	진행의 수월성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과거 수영장시절 탈의실로 쓰였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싸늘한 날임에도 난방이 되어 무척 포근하였다. 시설면이나 관리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준다고 한다.	- 프로그램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설은 과거에는 탈의실로 쓰였던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페인트칠과 장판을 새로 해서 깨끗했다. 책상, 화장실, 커피 포트 등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퀼트와 미술, 어린이 벼룩시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었다. 모니터링을 나간 날은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는 지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 '영화 따라 그리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회원들은 식물 및 동물 도감을 보고 그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크로키 수준이 상당히 높은 회원들도 있었다.	- 본 프로그램은 퀼트와 미술, 어린이 벼룩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당일 수업은 미술수업이었는데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있는 것 같다. - 강사가 한 명씩 직접 지도해주셨고, 완성된 그림은 그 수준이 높았다. 지난 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대중적 호응도	<p>-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비가 오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넘는 출석률을 보였다.</p>	<p>- 대중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날 수업은 추가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오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풀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수강생의 대부분이 주부인 것으로 보아 시간대와 장소 모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부를 제외한 다른 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아 프로그램이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p>
--	------------	---	--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p>-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버려진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문화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이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보인다.</p>	<p>-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 사회 전반을 바탕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지역 내에서의 소외와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 본 프로그램 및 풀장 환상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p>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p>- 본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모두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도 가 크다고 본다 .</p>	<p>- 본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모두 지역 주민이고, 지역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주부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p> <p>-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 강사 섭외 등의 문제로 수강할 수 있는 회원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서로 간의 소통을 늘린다면 전반적인 지역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p>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로 지불 등 예산상의 문제로 수업 기간을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 후원금이나 기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강사의 재능 기부 등의 형식을 빌었다면 좋겠다 생각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업 기간을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다. - 수업을 진행시키는 강사는 수강생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고, 또 가르칠만한 역량이 되었다.
	프로그램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의 호응으로 보아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 단 교육대상을 아파트 지역주민에 국한 하지 말고 좀더 광범위하게 넓혀 보기를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배움터는 정기 프로그램이다. 사업 주체의 의향과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호응으로 보아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구성면에서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었고,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업 주체와 수강생의 만족도는 높아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 없을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주체와 프로그램의 수강생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재원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충하여 더 많은 이들이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문화공간과 참여를 통해 주민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 지역과 주민간 커뮤니티를 형성해 은행주공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에 기여함.

② 문화배움터의 활동으로 문화예술 동호회가 형성됨.

③ 어린이, 주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술 기회 부여, 문화예술 활동 능력이 향상됨.

- ④ 문화, 예술 활동으로 은행동과 중원구, 성남 지역문화 활동에 기여함.
- ⑤ 벼룩시장과 작품전시회(퀼트,수채화 전시) 등 꾸준한 행사 개최로 ‘동네문화 만들기 행사’로 자리매김.
- ⑥ 서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영어멘토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문화배움터가 되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음.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본 사업주체와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5년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② 하지만, 아파트 내의 주민들로 한정되어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점과 그간 진행되었던 생태 미술이 아닌 일반 미술 수업을 진행한 점이 아쉬웠다.
- ③ 주민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어서 타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동네안의 커뮤니티가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원 확보가 된다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19. 제 3회 줌마날다 _ 성남여성회

프로그램명	제 3회 줌마날다
주관단체명	성남여성회
사업기간	2011년 11월 26일 오후 3시
사업장소	중원청소년수련관
사업참여인원	100명 (관람 200여명)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성남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고취를 위해 동아리별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발표하며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다. 여성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의 주인의식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사업추진일정

2011. 9월 : 각 동아리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부설기관 대표 및 단체 자문위원,

각 여성단체 대표로 준비위원회 선임.

각 동아리 활동 지도(글쓰기, 디카, 동극, 오카리나, 기타, 인형극동아리)

10월 : 주 1회 사업집행회의와 점검 (사업기획안 확정 및 역할분담)

11월 : 홍보 및 조직화 실무진행 점검, 장소 및 공연 섭외, 홍보

11.26. : 본 행사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동아리 : 디지털카메라, 어린이 동화연극, 오카리나, 기타 - 찬조출연 : 댄스 (분당여성회), 라인댄스(수정지부), - 초청공연 : 전문댄스 공연, 솟대 대동마당 <p>② 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전, 인형전시, 독후감, 어린이 POP와 종이접기, 미니벼룩시장 등.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2
모니터 일시	11월 26일	
교육 및 행사 장소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 여성 회원들의 생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꾸며 본 것이 좋았다.	- 여성회의 각 동아리들이 지난 1 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의 전시와 발표무대로 꾸민 무대로 참여한 어린이들과 여성회원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이 됐을 자체 행사이었다.
	진행의 수월성	- 동아리로 조직화와 분업을 하여 다양한 아이টে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 성남여성회와 관련된 곳에만 자체홍보만 한 듯 일반인 관객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연도 30분이나 늦게 4시30분에 시작하는 등 일반인 관객을 배려하지 않았다. - 공연장에는 음식물 반입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게해서 뒷처리가 안 돼 공연장 바닥에 과일 껍질 종이컵 등이 방치되었다.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 예술적 완성도를 이야기 하기엔 너무 미숙한 상태이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싶다.	- 어린이들이 꾸민 동극이나 엄마들의 공트는 참신했고 분당여성회의 맘마미아, 함주부의 기타 공연 등 다양한 구성이 흥미로웠으나 공연은 학예회 수준정도 였다.

	대중적 호응도	- 회원과 회원 가족들의 무대라 청중의 호응도는 무척 좋았다. 출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무대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자신감과 경험을 갖게 했다고 본다.	- 관객의 대부분이 성남여성회 관련자나 출연자들의 가족이어서 호응은 좋았으나, 일반인 관객이 적어 대중적 호응도를 측정하기가 애매하다.
--	------------	--	---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 지역 주민과 함께 준비하고 많은 회원들이 직접 행사준비에 참여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 여성회 동아리들의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행사로 지역내 공동체 형성에는 도움이 되는 행사였으나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없었다.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무대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마을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모여 준비했으므로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 지역문화자원 활용과 아이와 엄마가 함께 꾸민 무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보여진다.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모니터 2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로 모인 단체로 보이며 이미 여러 번 개최하여 역량을 축적한 단체임.	- 사업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후원확보나 타 단체 참여가 적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도 사업성격에 맞는 적절한 구성은 아니었다.
	프로그램 지속성	-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녀들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계속할 역량이 있다.	- 여성회 자체 행사로는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⑤ 총평

모니터 1	모니터 2
-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 모든 것이 좋았다고 보지만 이런 행사는 여성가족부나 다른 부서에서 후원받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 관계자나 공연자 그리고 관객까지 모두 아마추어다운 행사였다. - 이날 행사는 특정 정당이 강조되어 관객들은 외면하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 ① 성남시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개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여성 주간 행사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하였으며 전시와 프로그램, 사진공모전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했다.
- ③ 여성 문화예술동아리들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성남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초청공연 등으로 지역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으며 전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주민이자 주부, 엄마로서 한데 모여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여성회의 네트워크는 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촉매제 이자 매개자임이 분명하다.
- ②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만든 것을 ‘여성, 아줌마’라는 테마를 가지고 함께 전시·공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즐거운 하루를 만든다는 테마를 가진 축제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신감과 추억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보인다.
- ③ 하지만, 축제와 공연의 예술적 측면과 공연시작 시간의 지연, 특정 정당의 강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보완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2-20.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_ 한울 어린이 기자단

프로그램명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주관단체명	한울 어린이 기자단
사업기간	2011년 5월 1일 ~ 11월 30일
사업장소	태평4동 주민센터
사업참여인원	50명 (사업기간 내 신문발행부수 총 10,000부)

1)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표

어린이가 만들고, 어른이 읽는 마을신문 발간사업을 통해 마을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꾸준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마을 사랑의 정신을 키워간다. 선후배기자단의 만남, 작품전시 및 주민발표회 등을 통해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간다.

- 사업추진일정

2011. 5.28. : 기자 발대식 (신입기자 12명)

6월~10월 : 매월 신문 발행 (회당 2,000부)

10. 23. : 태평4동 주민발표회 ‘한울신문’ 참여

12. 24. : 한울어린이기자단 메리크리스마스! 개최

- 프로그램 세부내용

진행과정 및 내용	<p>① ‘한울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이 만드느 우리동네 마을신문 - 3월 중 선출한 신입기자 12명이 지속적으로 활동 - 주 1회 신문 편집회의 - 취재 및 기사쓰기 - 발간 및 배포 <p>② 태평4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및 후원회장 위촉 - 학부모 모임 시작 (매월 첫째주 토요일 7시) - 작품 전시 및 주민발표회 참여 (신문 전시 및 영상물 상영)
-----------------	---

2) 현장평가

- 모니터링 인원 및 회차

	모니터 1
모니터 일시	11월 26일
교육 및 행사 장소	태평 4동 주민자치센터 강당

① 평가항목 - 사업수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모니터 1
사업 수행	사업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초기 목적과 계획량을 정확히 달성함. -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되어 장소 및 지원환경이 안정적. - 주민공동체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기자들의 부모들과 모임자리를 만들고, 행사를 알리는 등, 참여를 유도하며 실행 중임.
	진행의 수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의 역량이 뛰어나 신문 교육 및 취재기획 등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음. - 주기적인 교육과 외부 취재 등도 잘 이뤄지고 있으며, 기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신문도 월별로 차질없이 발행되었음.

② 평가항목 - 예술적 내용

평가 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예술적 내용	예술적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직접 쓴 기사를 교사의 큰 개입없이 그대로 신문에 담는다고 함. -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것에 큰 점수를 줄 수 있음. - 사진 등의 교육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4컷 만화의 경우, 어린이 기자가 직접 컴퓨터 그래픽프로그램으로 그려서 연재 중임. - 신문기사 폰트, 레이아웃, 편집 등이 좋아지고 있음.
	대중적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4동과 인근학교, 기자들이 다니는 금빛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음. -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척 긍정적인 반응이며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신문이라는 인식도도 높은 편임. - 태평 4동이 재개발지역이라 지역에 대한 애정도 또는 정주의식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 후원회 조직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③ 평가항목 - 지역적 공헌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역적 공헌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역의 이야기를 지역어린이들이 직접 쓰고 전달하는 의미에서 꽤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됨. -신문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취재, 인터뷰, 글쓰기 등)이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사고 증진, 글쓰기 기능 향상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재개발지역으로 다소 삭막해질 수 있는 환경에 하나의 윤활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됨.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어린이기자단이라는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가져갈 수 있음. -연계가능한 지역 예술가, 타 동네 커뮤니티 등과도 교류 중이며 동네와 동네, 동네와 지역을 잇는 역할을 태평4동의 어린이기자단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④ 평가항목 - 지속적 역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모니터 1
지속적 역량	사업주체 역량측정	- 강사의 역량이 뛰어나며,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름. - 발행인 2명 모두, 지역활동이 활발한 주민과 예술가로서 한울신문 초기 창간 때부터 많은 지원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후원 중임.
	프로그램 지속성	-금빛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꾸준히 기자들 배출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분명하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문 발행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후원회 조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⑤ 총평

모니터 1
지역 내 소식을 어린이 기자단이 직접 전하는 모습은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어줄 뿐만 아니라, 동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본요소 및 색다른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란다.

3) 사업단체 자체평가

- 계획 대비 성과분석

①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② 학부모 모임을 매달 첫번째 토요일 저녁에 진행하며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노력.

- ③ 한울신문 ‘우리동네 사람’ 란을 통해 주민공동체 강화.
- ④ 사업 완료 후에도 어린이 기자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태평4동만의 특색있고 자발적인 문화로 자리매김.
- ⑤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광고 후원 등 참여의 장 확대.
- ⑥ 기자증 발급을 통한 아이들의 책임성을 높여주고 금지를 심어줌(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명예기자증 수여).
- ⑦ 태평4동 주민자치 센터 수정구 프로그램 16개 중 우수상 수상, 중원청소년수련관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

4) 모니터링을 통한 시사점

- ① 지역 소식을 어린이들이 직접 취재하고 전한다는 점, 신문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 사업이다.
- ② 어린이 기자들은 취재과정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현황을 알게 되고, 기자로서 갖추게 되는 인터뷰 기술, 글쓰기 능력이 올라가게 된다. 무엇보다 기사를 작성하며 지역의 현황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지역신문이라는 콘텐츠의 장점과 순기능을 모두 갖추었다.
- ③ 기자들의 의지와 강사의 역량이 충분하나, 안정적인 신문 발행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사진



IV. 향후 과제

1. 제언

■ 성남시는 시민주도의 지역문화정책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1년 10월에 발간한 지역문화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는 성남문화재단을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둔 정책을 선도해 왔다’고 평가하고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와 ‘문화통화사업’을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문화정책의 대표적 사례로서 소개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2012년 1월년 문화예술계 전망 보고서에서도 “마을 및 공동체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되어 있는 등 특히 선거와 연관되어 올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성남의 시민주도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임.

■ 성남시는 시민주도의 문화정책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정책수립을 단계별 발전단계에 따라 2006년~2008년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1단계 3개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공동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 세우는 2단계 5개년 추진과정에서는 핵심과제로 설정했던 시민주체의 사업방식의 안정화와 각 개별 사업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어려움에 겪고 있음.
- 따라서 2단계 추진과정의 반환점을 지난 2012년에 그 동안의 정책구현 과정을 평가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도시 문화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시민주체 사업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함.

- 시민주도의 문화정책은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예술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문화정책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영화감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문화공간 공연에 연간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에 비율은 3.8%로 지나지 않는 등 성남시민의 예술

활동 참여수준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운영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흐름이 이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시민주체의 사업방식에 체계화 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특히 사업평가 부분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는 기획-수행 과정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함.

■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활동이 목적인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이 추진됨.

- 2011년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중 협력시군 매칭사업이 성남문화재단과 추진되면서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지원사업은 성남 소재의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과 커뮤니티 아트를 지원하는 기획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기획지원사업은 시(지역)의 문화를 혁신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반지원사업은 예술가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게 현실임.
- 그러나 사업시행결과, 시민들과 더불어 시(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대부분 참여 중임이 밝혀짐. 다만, 예술성 측면에서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의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짐.
- 사업시행과 함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2008년에 이어 시민주도 문화정책 모니터링을 재시도 하였음.

■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는 시민주도 문화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임.

- 시민주도의 문화정책 모니터링은 이미 2008년도에 시도된 바가 있는데 2008년도에 문화정책 모니터링에 관심 있는 시민 20명을 선정하여 성남문화재단의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룹별 활동을 통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당시 문화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지원사업에 대한 감시성격보다는 문화정책과정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기획자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 2011년도 모니터링 시민교육프로그램 성격을 넘어서 지원사업을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시민 정책 감시 기능을 시도한 것이 특징임

■ 2011 년은 시민주도의 문화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가시화되었음.

- 2008년 <사랑방문화클럽구축사업>, <우리문화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문화통화시

스텝 기반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했던 모니터링 운영에서 2011년에는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기획지원사업 6개, 일반지원사업 20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였음.

- 15명의 시민모니터링 단을 선정하고 3차에 걸친 교육과 4차에 걸친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서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6개월에 걸친 실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모니터링단들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성남문화정책 운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높은 수준의 열정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모니터링에 못지 않은 모니터링 수행 역량을 증명하였음.
- 2008년, 2011년 시민 모니터링 운영경험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모니터링의 방법론은 일정 정도 체계화 되었다고 평가함.

2. 향후 과제

1) 모니터링 운영 개선의 측면

■ 사업방식에 따라 각각의 현장평가지가 개발되어야 함.

: 사업기간 및 방식이 다른 기획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을 동일한 현장평가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사업의 속성이 반영된 각각의 현장평가지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 예술적 내용, 지역적 공헌, 지속적 역량으로 구성된 평가지표가 개념 및 조목화가 명확하지 못한 면이 발견됨. 평가자마다 점수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보완 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평가자간의 평가 격차가 큰 '예술적 내용'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각 지표의 배점간격을 등간으로 고정화하거나 참여한 평가자들의 합의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

■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올해 모니터링단의 구성을 보면, 30~40 대 여성의 참여가 지극히 높음.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의 대다수 주부임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더욱 더 다양한 연령층 및 직업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문화인력의 인큐베이팅을 담당해야 함.**

: 향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각자의 Needs 에 맞춰 관심사를 가진 정책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시민들이 수혜자를 벗어나 촉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접근의 첫 시작 및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개선

■ **향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시민과 더불어 시(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즉, 현재와 같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의 개선 또는 시민 여가 및 문화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공공적 형태의 지원을 통해 성남지역이 발전하는 한편, 성남 지역 예술가들은 지역과 더불어 최근 패턴화하는 ‘공공예술’, ‘지역예술운동’ 등, 앞서나가는 문화예술활동 형태의 공진화 유발 필요함.

■ **이러한 전략적 변환은 일순간에 이루기보단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순간 지원사업을 바꾸기 보단, 예술가의 성장과 공진화의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남문화예술이 갖는 하나의 스타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선 일반지원사업은 철저히 예술가 중심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획지원사업은 유연한 형태로 지역예술인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전체 지원사업을 ‘장르지원사업’과 ‘지역문화사업’으로 분류하여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장르지원사업’은 예술가의 개별적 창작작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며, 이를 통해 성남문화예술의 발전을 유도함.

: 반면, ‘지역문화사업’은 예술가의 작업을 지역에 결합시키며, 지역의 혁신과 시민생활의 변화유발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당분간 ‘장르지원사업’을 강화하되, 그 성과를 시민 및 지역사회 내에서 전시토록 하고, 부분적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추진, 지역의 혁신 및 시민생활 변화에 조력하도록 하는 노력 필요함.

: 이 두 사업을, 현재와 같이 ‘장르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사업’은 기획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성남예술의 발전 및 예술의 지역화 및 시민 생활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 **기획지원사업의 형태는 기초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일반지원사업의 형태는 중앙 또는 광역지역재단에서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일반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방침에 따라 성남시 발전기금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실행과 교육을 나눠 실행은 역량 있는 사업자를 집중지원 해야 할 것이며, 그 외는 교육 또는 공동사업을 기획해 컨설턴트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이후, 각각의 지원사업별로 사업단체에게 3 년간의 비전 수립 및 달성의 과업을 준 후, 그에 합당한 평가체계를 만들어 매해 도달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함. 사업자와 문화재단 양측 모두 서로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중장기 측면에서 지역과 예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성남문화재단의 주도가 아닌, 예술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즉, 예술가들의 창작작업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지역과 시민의 일상 속에 다가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적 유도나 지원방식의 변경 등의 강제적 분위기를 띠고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경우, 오히려 반발을 낳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사업 자체가 일회적 작업으로 그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예술가 스스로 작업적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현재 사전지원체제에서 사후지원체제로 더욱 강화해야 함.

: 준비역량지수를 계발하여 기획지원사업의 경우, 각 지역마다 지원사업의 역량이 적합한지 측정한 후 사업대상지로 선정함. 또,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예비 사업자 공모선정을 해서 컨설팅 후, 사업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면 계속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사업수행 2~3 년간, 지역 및 유사 사업단체에게 컨설팅을 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함.

: 지역의 예술가와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함.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고민하며 기획하는 동안 과정학습이 되어 지역 내 자생력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마련할 수 있음.

3) 성남문화정책에 대한 개선의 측면

■ 성남문화정책 및 비전의 재정립이 필요함.

: 성남문화재단 스스로 성남을 어떤 문화적 지형으로 가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문화정책과 문화비전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시점임.

■ 지적인 바와 같이 성남문화정책의 핵심은 시민주도 정책의 수행에 있음.

: 성남문화정책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특징임.

: 모니터링의 목적을 사업운영 상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남예술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는 환류체계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때문에 이들 시민중심의 활동을 어떻게 더 체계화할 것인가와 시민들에게 지원효과가 어떻게 더 많이 가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임.

■ 지역예술가들과 더불어 성남을 설계하고, 성남의 문화비전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함.

: 지역예술가들과 더불어 성남지역을 이해하고, 성남의 문화를 설계토록 함으로써 모두가 동의를 갖고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과 ‘지역’ 영역의 예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과정에서 지역과 시민 속으로 결합하는 것이 하나의 정형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이 시민생활 혁신 및 지역의 변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예술가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 교육과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 등이 필요함. 또, 성남문화재단은 이들이 지역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거나 계기, 이유, 동기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V. 부록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보고대회 요약

2011년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단 네트워크 파티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활동보고대회

-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오후 2시

- 장 소 :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

- 참석자 : 기획공모지원사업 대상단체 : 6개

그림마을, 다울영상미디어, 라반움직임연구소, 중앙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연극놀이 해마루, 학교밖청소년공동체 디딤돌학교

일반공모지원사업 대상단체

문정숙설장구연구회, 문화교육연구소 놀다, 성남여성회, EPPLE 외

심의위원

백령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성호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부지부장)

‘모니터링 및 평구연구’ 연구진

라도삼, 전수환, 이초영

모니터링단

이길순, 정경숙, 권혁주, 류혜연, 임경덕, 이상민, 이은경, 심희주, 김수현, 채수현, 고웅

성남문화재단

하동근, 박승현, 박지훈, 오희영

○ 순서 (사회 : 오희영)

- 기획공모지원사업 6개 사업 발표 (각 사업단체 대표자)
- 기획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이초영)
- 일반공모지원사업 중 우수사례 4개 사업 요약 발표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심의위원 총평 (백령, 이성호)
- 모니터 요원, 활동소감 발표
- 연구위원 총평 (라도삼, 전수환)
- 외부인사 총평

1. 색깔있는 대문, 칼라대문 _ 그림마을 (발표 : 한유진)

성남지역 미술작가들의 모임인 '그림마을'은 '건물 생김새가 거의 같아 이 골목이 저 골목 같다'는 수진동의 골목마다 변별력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문에 그림을 그려 골목마다 특색을 주었다.

10,11월 2개월 동안 7명의 작가들이 서른 집의 대문에 골목마다 테마를 정해서 꽃과 동물, 전통문양을 그렸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더불어 집집마다 예쁜 우체통을 만들어 달아줬다.

[사업단체 발표 요약]

- 처음에는 어떤 작업인지 몰랐던 주민들은 무관심했으나 작업이 진행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30곳을 하게 되었음. (초기 계획은 40곳이었으나, 작업진행도와 예산을 대비해보니 적정가구수가 20곳으로 산정됨.)
-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집 현관문이나 계단 등에 직접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와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
- 오픈식의 경우, 주민들과 함께 동네잔치로 진행했다. 대금, 사물놀이 등도 연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골목 분위기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 집주인이 외지에 있는 경우, 섭외하기가 어려웠다. 대문도 작업하기 까다로운 요철 등이 많아서 실제 작업시간도 오래 걸렸다.
- 재개발 지역이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 꺼려하기도 했고, 본 작업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사업목표에 충실한 사업이며, 예술적 완성도에 대해서 기획단 구성, 작가회의, 주민들과의 소통과정 등을 거쳐 진행된 사업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생활 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주민들도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지역 예술가들을 통한 문화예술적 분위기 향유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지역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점도 좋았다.
- 사업주체는 지역작가, 단체, 기관 등의 네트워크가 원활했으며 역량이 충분히 하다고 평가했다.
- 지역환경개선을 원하는 동네라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2.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 _ 다울영상미디어 (발표 : 지경해)

다울영상미디어의 ‘실버미디어교육,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는 성남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들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편집기법을 배우고 영상을 공동창작 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말 최종상영회를 열었다.

[사업단체 발표 요약]

- 보통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나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런 현실과 다르게 노인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 미디어교육을 하게 되었다. 디지털 문화를 노인들이 숙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가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 교육 중간에 본인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 본 활동 외에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함께 보면서 즐거워했다.
- 노인들에게 본인들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디지털문화에 적응하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 취재하고 동네 속에서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는 면에서는 사업목적과 일치하나, 공동 창작이나, 미디어 창작 발표회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교육이 더 필요해 보인다.
- 함께 노력해서 합동작품을 만드려 한 점, 지역 명소를 이용한 점도 좋았다. 하지만, 전체발표회가 교육생들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그쳐, 향후에는 공개발표회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고령의 연령대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을 촬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강사와 수강생들의 소통이 원활히 잘 이뤄졌고, 수강생들은 강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큰 고마움을 가졌으며 향후, 프로그램이 지속적되길 바랐다.

3. 중앙시장 ‘通’프로젝트 _ 중앙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발표 : 정병인)

중앙시장 ‘通’ 프로젝트는 태평동 중앙시장 상인회와 성남 작가들이 함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공동체를 꿈꾸는 사업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교육 등을 기획해 상인과 주민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름동안 시장 내 유휴공간을 이용한 무대에서 상인들은 에어로빅을 배웠고, 11월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목공강좌가 열렸다. 사물놀리와 사자춤, 주민노래자랑, 가족요리대회 등이 월별 행사로 진행되었다.

[사업단체 발표 요약]

- 주민, 시장상인, 지역예술가가 함께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가의 고민에서 시작했다. 시장의 무대를 세우고 나서, 그 무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 상인들과 ‘한번 하고 같꺼면 하지마라.’고 했다. 성적표가 아니라, 내일 또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초단계라고 생각한다. 더 발전시키고 화합시키며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작가들이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면
- 상인들과 지역작가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크게 고민에서 벗어났다.
- 교육 중간에 본인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 본 활동 외에 동영상도 직접 만들어 함께 보면서 즐거워했다.
- 노인들에게 본인들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디지털문화에 적응하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초기 사업과 몇 가지 내용면에서 변화가 있으나 전통시장발전 및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는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오픈행사부터 마지막 행사로 갈수록 프로그램내용이 점점 풍성해지고 지역주민, 상인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시장 내 상인 약5~60명, 지역주민 2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유, 초등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모여, 여러 공연 및 주민참가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즐긴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중앙시장 상인회가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으며, 중앙시장의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장과 변화”라고 할수 있다고 평가했다.

4.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 _ 학교 밖 공동체, 디딤돌학교 (발표 : 신소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배움터인 ‘디딤돌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음악, 미술, 사진, 글쓰기 등을 익혀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거리 발표회를 가졌다. 시민들의 참여코너를 만들어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 ‘디딤돌 달거리 발표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한다. 발표회는 신흥역 지하상가, 수진동 거리, 분당구청 앞 등에서 열렸다.

[사업단체 발표 요약]

- 디딤돌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로서, 일반학교에서 교우관계, 가정의 어려움 등의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다.
-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미술, 미디어, 음악 등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취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나누려 길거리 달거리 발표회를 기획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회를 준비하고 여는 과정도 소중했다.
- 음악수업에 대한 선생님과 자원이 없었는데 본 사업을 통해 6개월 가량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고, 거리 발표회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요약]

-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자립심과 사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인 사업이었고 점차 아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려는 시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능적인 교육의 미흡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 아이들이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고 학교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는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이 발표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끼리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은 것이 이 발표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고생들의 문제를 크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게임중독,대인기피등으로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오랜 경험이 있는 단체이며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적극성을 보면서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술기능교육에 더욱 초점을 두어 아이들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시켜주고 발표회를 하면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기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5.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 어린이창의예술교육 _ 라반움직임연구소 (발표 : 김재리)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의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2011 놀자! 움직이자! 생각하자!’는 신체 움직임을 주요로 한 예술체험활동을 통해 성남에 소재한 2곳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창의성,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데 초점이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미술관, 몸으로 읽는 동화, 몸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7월에 시작된 본 사업은 11월까지 진행 후, 어린이들의 가족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일반 시민들을 관객으로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사업단체 발표 요약]

- 통합예술교육을 지향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모티프 라이팅 메소드 (Motif Writing Method), 기호로 인지해서 창의적인 표현의 도구로 사용해서 진행하였다.
- 움직이는 미술관, 몸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몸으로 읽는 동화, 움직임 오케스트라, 4가지 주제로 진행했는데, 움직이는 미술관을 예로 들면, 움직임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미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그리는 수업으로도 진행되었다.
- 다양한 예술을 감각활동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공연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 몸, 생각들을 발표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 경험중심의 프로그램이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교육효과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원한다.

-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매번 주체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직접 움직임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장려하며 한 회차의 수업에 준비운동부터 모든 아이들의 발표 준비, 본 발표까지 이뤄지는 수업은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 진행에서는 사업단체 담당강사 외, 보조강사 1분과 복지관의 담임교사,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방과후학생 자원봉사자선생님들이 참관하고 보조교사로 활동, 진행하여 수월했다고 평가했다.
- 문화 예술교육에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아동들이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접해서 그들의 수업에서는 창의성을 키우며 자질향상에 기여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6. 판STORY교 _ 연극놀이 해마루 (발표 : 정재은)

‘판story교’를 진행한 ‘(사)연극놀이터 해마루’는 연극놀이 전문교육연구집단이다. 새롭게 조성된 판교 삼평동에 사는 ‘엄마’ 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을 곳곳을 탐색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야기를 동네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10월에 연극과 미디어를 결합한 ‘판교 이야기’로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사업단체 발표 요약]

- 이주된 이 마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일 많이 고민했다. 이 지역은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다. 고향이라는 곳이 무엇인가, 학교라는 곳에 왜 오는 것인지, 학교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 제일 고민했다.
- ‘학교라는 곳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져주었다. ‘각자 개인에게, 지역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가?’, ‘서로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 ‘지역성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했다.
- 학교에서 2번 공연, 지역축제에서 1번 공연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스스로 마을주민 주체로 참여했고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스스로 동호회 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어머니들은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내 어린 시절을 돌이키며 성장의 희로애락을 겪고, 아이들과 직접 소통을 했다.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사업목표와 실제 진행수업의 실현은 잘 이뤄졌으며 담당강사의 교육(내용, 예시 등)과 보조강사들과 실습 및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 손을 이용한 미디어 드로잉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이끌어내는 기법이 참신하며 주어진 틀 없이 자유자재로 신체를 움직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템이 흥미로워 향후 사업도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을 거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 자신의 학교생활의 추억, 자녀들이 학교, 그리고 동네의 여러 생활공간을 활용함으로 교육진행에 있어 참여자가 지역에 대한 애정도를 높일 수 있게 기획되었으며 발표회도 학교축제인 붓들마을축제와 연계해서 열린 점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 참여자들끼리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여 교육자료 및 내용공유,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했으며 지속적인 지역동호회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어 지속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했다.
-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발전과 커뮤니티 형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견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반공모지원사업 우수사례 4곳 (발표 : 이초영)

1. 길이 나에게 묻다. _ 찬란한 일상

사회소외계층 중학생대상 미디어여행 프로젝트로서 2박 3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카메라, 녹음기, 4B연필과 스케치북을 도구삼아 자연의 언어를 느끼고 예술적 체험을 한다. 자연의 언어를 배우고, 감각을 발견하며 풍경을 기록하면서 일상과 다른 감성을 깨우는데 주목한다.

2. 한울신문 _ 한울신문 기자단

지역어린이들이 직접 동네의 갖가지 이야기를 취재하고 기사로 써서 지역신문을 발행한다. 2007년 9월 창간, 2010년 한 해 잠시 휴간하고, 2011년 새롭게 발행되고 있는 한울신문은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 내 정식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업 지원금으로 신문이 총 5회 발행되었다. 더불어,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태평4동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3. 문정숙의 '색' _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

설장구의 명인인 문정숙 님과 문정숙 설장구 연구회의 공연을 통해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풍물굿패 두령, 모듬북패 아침울타리, 깜찍이 풍물굿패 등이 함께 무대에 참여해서 창작무와 더불어 연희극 형식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공연 중간 해설도 덧붙여 졌다.

4. 서울기타과르텟 10주년 연주회 _ 서울기타과르텟

클래식 기타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기연주회로서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기타에 알맞게 편곡을 했다. 멤버 모두가 전문연주인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 내용 참조)

심의위원 총평

이성호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부지부장)

성남문화예술지원금 심사를 할 때, 사업주체가 전문가집단이면서 교육사업이 많았고 프로그램도 훌륭했다. 심사위원들은 성남이라는 지역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의견을 모았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을 보니, 지원금사업을 단체별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곳으로 지원이 간 것으로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이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웠다. 향후 교육내용이 훌륭한 라반, 해마루 등이 지역 내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한 후, 지역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기획사업은 강사활동 중심의 예산이 높은 편이었다. 강사비가 전체 예산에 반을 넘는 것이 아쉽다.

격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지원금 사업은 향후 지역문화 활성화와 창작사업 (전문인 공연)을 이 두 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백령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오늘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심사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사실 성남문화재단에서 처음하는 지원금 사업이라 조심스러웠다. 앞으로 재단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지역화 하는가, 지역과 지역민, 예술가까지 협력체를 만들어 정착할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와 더불어 재단의 역할까지 고민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선정했다. 오늘 발표를 들으니 글로 봤을 때와 결과물을 봤을 때의 느낌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다.

본 사업들의 중심에 있는 생각들처럼 ‘지역을 변화시키겠다’, ‘지역민들과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사업들의 여건이 2,3차년도에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재단의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외부 인사 총평

이진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지원담당)

지역 커뮤니티, 문화예술인, 시장 상인, 주민들이 화합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잘 수행하신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았다. 2011년 8개 시군과 협력사업이 이뤄졌는데, 성남이 첫 해인데 불구하고 사업수행이 잘되어 담당자로서 뿌듯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획공모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니 경기문화재단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공고가 났다. 지역민과 여러 개의 단체가 협력한 신청에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주관단체만 경기도라면 가능하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모니터요원 소감 발표

심희주

시민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큰 성과에 일희일비 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사업단체, 참여자,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지역사업이 있어야 하며 평가가 좋지 않아도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지역 문화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김수현

주부로서 있다가 나와보니 느낀 점이 많다. 첫째, 이렇게 지역 예술 활동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둘째,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여건이 열악하다,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사업 하나하나에 애착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셋째,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사업의 주체적 역량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홍보 등) 때문이라면 문화재단이나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라고 느꼈다.

이은경

처음에는 ‘이 사업을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도움이 될까, 좋은 점만을 강조해서 칭찬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 아닌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다. 시작하고 나니,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다. 안타까웠던 점은 10년 이상으로 진행한 단체들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을 텐데, 신생 단체들은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런 정보공유가 왜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일 큰 변화는 단순히 평가자에서 이제 단체들을 걱정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성남에 이런 단체들이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안 했으면 겪어보질 못한 경험을 주었고, 올 한해 하반기에 한 일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연구위원’ 총평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그간 평가하는 자리 중에 오늘 행사가 제일 재밌었다. 사업단체들의 발표를 들으며 ‘본 사업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생겼다. 성남문화재단은 연속성을, 사업단체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와 이후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고민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자리가 각 단체들의 고민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시간상 어려운 것 같다. 기획공모 사업단체는 성남시에 대한 고민을 모아가고, 신생 단체들의 컨설팅, 고민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 기획공모 6개 단체는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남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작업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간 사업내용이 무척 뜻깊은 작업내용이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은 사회에 자꾸 알려야 한다. 성남이 새로운 예술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전수환 (한국문화예술종합학교 교수)

역시 성남은 문화적인 새로운 시도가 많다. 본 사업은 예술의 변화를 위한 사업이다. 노후 공간의 문제, 노인, 청소년, 전통시장 문제 등, 이런 사회적 문제에 예술이 다가가고 풀어가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스템이 지역과 만나서 기여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중, 모니터링 파트는 예술의 변화와 함께 시민참여에 대한 역할이다. 정책기획은 집중과 선택 및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에 고민해야 할 것이며 운영파트는 투명성 있는 운영, 평가는 시민들의 역할로 가져가야 한다.

시민모니터에게 중요한 것은 학습시스템이다. 모니터 활동을 하다 보면 예술적 전문성은 늘게 마련이다. 평가연구는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향후 평가지표의 틀거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역량으로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성남에서 한 여러 시도가 다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2011년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단 네트워크 파티

8 월 이야기.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내용 공유 _ 이야기꾼. 전수환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책임연구위원)

일시 :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성남문화재단 뮤즈홀

참석자 : 김수현, 정경숙, 심희주, 임경덕, 안해지, 이길순, 이은경, 양희정, 이은주, 채수현, 고웅,
이상민 (이상 모니터링단) / 전수환, 이초영 (본 평가연구 연구진) / 오희영 (성남문화재단)

이초영 : 유엔젤 보이스 주니어 공연, ‘길이 나에게 묻다’ 상영회에 대해 수거된 현장평가지를 기초로 각 지표별 발표.

김수현 : 지역성의 세부지표인 ‘지역적 공헌도’와 ‘지역문화발전 가능성’의 개념이 모호하다. 쓰다보니 앞의 내용을 포장해서 내놓는 느낌이었다. 명확한 기준안이 제시되는 편이 오히려 평가지를 작성할 때 편하다. 아니면 대안으로 A 안과 B 안을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끝으로 평가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을 내릴 때 좋다는 이야기가 의문이다.

전수환 : 연구진들도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일관성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대략 5개월 동안 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각각의 평가가 본인은 일관적이어야 한다. 절대 한 방향으로 우겨도 된다. 서로 평가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연구에 좋다. 명확히 색깔이 드러나면 반영할 것들이 많다. 지역적 공헌도는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에 대한 사업은 예술적 수월성이 떨어져도 우리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적 공헌도는 대한 현재 우리지역의 현안, 이런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느냐이다. 삶의 문제가 예술이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든 예술은 그 사회와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점,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 지역 현안에 대한 본인의 시각과 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 발전기여도는 가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을 모두 이용하자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끌어내야 한다. 지역에서 행사했을 때는 지역네트워크를 찾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자는 것이다.

오희영 :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단체가 있다. 하지만 사업목적에 의미를 두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변화된 단체들이 있다면 꼭 밝혀줘야 한다.

정경숙 : 유엔젤 보이스 행사를 모니터링했다. 350만원의 지원금으로 그렇게 훌륭한 공연이 치뤄진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심희주 : 유엔젤 보이스 행사는 훌륭했다. 이전에 공연도 봤는데 이번 행사도 수준이 높았고, 공연이 상시적으로 마련된다는 점, 예비단원들을 꾸준히 육성한다는 점도 높게 사고 싶었다.

김수현 : 서면인터뷰보다 궁금한 점을 과감히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기획공모의 경우, 솔직히 아직은 무엇이 원지 잘 모르겠다. 지나가다 보면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든다. 평가자의 첫 줄을 어떻게 써야 하나 했는데, 첫 줄을 쓰니까 마지막 줄이 나오더라. 모든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든다.

임경덕 : 어르신들 실버미디어를 맡게 되었는데, 아직 시작 전이다. 모니터링단을 한다고 했을 때, '너 성격상 딱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세 있는 분들께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하실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지 못한 솔직한 성격이라, 날카로운 질문을 조금은 완화시켜 정확하게 물어봐야할 듯 하다. 지금부터도 감이 안 온다. 자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나는 꿈도 꾀다. 시작 전부터 며칠동안 생각만 하고 있다. 일단은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이야기로 알겠다.

안해지 : 길이 나에게 묻다 프로그램과, 기획공모로는 라반움직임연구소를 다녀왔다. 두 프로젝트 모두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형편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좋게 다가왔다. 개인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경험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길순 : 평가 잘하는 것보다,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획자라면 어떻게 기획했을까 하는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직접 실행하면 애로사항이 많다. 날카롭게 집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랬을까?'하는 시각으로 둘러서 쳐다보고, 냉철함을 잃지말고, 모니터링은 우리밖에 없으니 자긍심을 가지자. 성남에서 최고의 모니터링단인 듯 하다.

이은경 : 처음하는 모니터링이다. 중앙시장 오프닝을 처음 갔는데, 함께 팀인 이길순 단장님, 양희정 선생님은 아는 분들이 많더라. 개인적으로 조금 위축되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한국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어렵고, 두루뭉수리하게 좋게좋게 하는 것을 버리고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모니터링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도움을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보자는 생각을 했다. 거기서 상인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지역재래시장들의 붕괴가 직접 피부에 와 닿더라. 제가 성남에 살면서 재래시장을 갈 일이 거의 없었다. 주민생활 또는 가까운 마트를 이용한다. 재래시장을 오랜만에 갔는데 다시 여기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마트가 생겼다 하더라. 이것이 지역의 문제이고 문화사업이지만, 훗날엔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많이 배우고 왔다.

양희정 : 모니터링단을 온 이유가 어떤 사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함주부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역안에서만 소규모로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폭넓은 사업에 지원이 된 듯 하다. 내년엔 상대원지역의 공동체에 도전해보겠다.

이은주 : 주말에 속초 아야진 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니 정신이 없다. 나는 '나는 모니터요원이다'라는 자긍심이 생겼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해마루에 다녀왔다. 지역의 현안을 가장 먼저 알아야지만 정확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현안 공부가 나에겐 우선인 듯 하다.

채수현 : 모니터링을 아직 활동하지 않아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모니터링단을 하면서부터 이십몇년 꾸준히 살아온 성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겼다. 방학동안 구미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어릴 때 읽었던 동화를 다시 읽으니 새로웠다.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한다. 주말에 대학생 행정체험, 구미도서관의 도서관의 유아실에 배치받았다. 동화책을 한권한권 사고 있다. 내일부터 4박 5일동안 지산 락 페스티벌로 휴가를 간다. 페스티벌은 3일인데 먼저 가고 나중에 올라온다. 캠핑을 할 건데 비가 너무 내려서 걱정이다.

고웅 : 부모님 가게 일을 돕고 있다. 명함이 나왔다. 충북 전에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 기획지원사업 담당이 해마루인데, 모니터링을 나가보니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고충이 있고, 이런 행로가 있구나를 많이 배웠다. 무조건 콕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 때 동아리에서 일을 기획하고 하다보면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입장과 시각에서 찾아보려 한다.

이상민 :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번주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처음이라 내가 무엇을 봐야하는지 떨린다.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공연을 보러 다니지만, 이 사업을 지역사회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조금은 다른 맥락이라 생각이 든다. 공연들도 만들어서 결과물까지 가져가기까지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연 끝나고 '너 그 부분이 이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수고했다'는 말을 한다.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나의 한 글자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떨린다. 내가 잘못 봐서 글 한줄 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들지만, 겸손한 자세로 잘 읽어보고, 잘 가서, 잘 보고, 잘 작성하겠다.

<마침>

9 월 이야기.

홍대앞 그 문화를 읽다. _ 이야기꾼. 김상윤 (문화기획자, 내용연구소 대표)

일시 : 2011 년 9 월 7 일 수요일, 오전 10 시 30 분.

장소 : 성남문화재단 뮤즈홀

참석자 : 이은주, 임경덕, 이상민, 권혁주, 이길순, 정경숙, 류혜연, 이은경, 김수현, 심희주
/ 이초영 (본 평가연구 연구원) / 하동근, 박승현, 오희영 (성남문화재단)

홍대앞이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대학을 가진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일컫는다.

홍대지역의 특성

1960 년대 후반 ~ 1970 년대 초반 주거지역으로 성장

1976 년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석탄 공급 중단 (가스 대체)

지역 내 경제성의 변화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주거형 지역

당인리화력발전소의 석탄저장고였던 서교동 365 번지 '홍통'은 작업실과 공방을 가지고 싶지만 돈없고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아지트였다.. 그 건물에서 젊은 예술가, 기획자, 작가들은 작업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함께 전시를 열었다.

2004 년, 마포구청에서 허물려 하자, 이들은 함께 '365 번지 홍통'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 결과, 2005 년 마포구청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 때의 그 작가들은 모두 떠나고 지금은 각종 옷가게와 술집들이 늘비해 있다. 그 앞은 서울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형 재래시장인 '서교프라자'가 있다. 홍대의 경제중심지역이었으나 기차길이 사라지며 몰락했다.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홍대의 시작

문화소비자층과 생산자층의 혼재 공간으로 1988 년 일렉트로닉카페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 금누리와 안상수의 조합은 새로운 홍대앞의 시작을 알렸고, 그 공간에서 젊은이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나갔다. 최초의 '공간을 기반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간 기반 문화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됨을 알렸다.

1994 년~1999 년 홍대앞

홍대앞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다. 음악, 출판물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공간의 결합이 나타나는데 그 예로 오차드 마마, 일렉트로닉 카페, 발전소, 곰팡이, 언더그라운드 등의 클럽 등이 생겨난다. 이 곳에서 많은 뮤지션들과 작가들의 결합, 해체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 때는 IMF 시절이며, mp3 의 등장으로 음악시장이 구조화되어가는 시기였다.

홍대앞 뮤지션들은 TV 중심화에 반대에 서며 언더그라운드, 홍대앞 인디씬을 개척해 나갔다.

홍대앞은 700 개의 출판사와 1,500 여개의 예술관련 작업실, 70 여개의 미술학원이 자리잡고 있다.

식견있고 재미난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소비자 그룹들이 등장했고, 저렴한 공간 임대료, 대형 미술학원과 미술전문 도구점, 저렴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홍대앞에 모여들었다. 이러한 여러 wannabe 들의 등장을 통한 지역 내 경제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세대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SES의 노래를 듣고 슬램덩크와 오디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 새로운 실험에 가까운 일들에 대한 knowledge 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홍대앞에 오면 문화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 이 때 때마침 문화에는 서열이 없다는 '문화상대주의' 관점이 등장했다. 그 결과 모두가 자기의 서열을 스스로 만든다는 '주체적 우월감'이 등장했고, 맞물려 인디, 키치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각도 보편화되었다.

1999 년~2004 년 홍대앞

1999 년 마포구청 홍대앞 2 종 주거지역의 일부를 상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지역 내 주거지역을 상업공간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상수역까지 '홍대앞'이 넓혀지게 되었다. 또 초기 상업중심가를 가운데에 두고 댄스클럽이 확산했다. 수익율이 낮은 라이브클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2004 년 유서깊은 홍대앞 실험극장인 '씨어터제로' 사태가 일어났다. 자본에 예술이 휘둘리지 말자는 홍대앞 사람들은 씨어터제로를 지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다. 마포구청과 공청회를 열고, 길거리 퍼포먼스를 했으며 후원의 밤 등을 열어 뜻과 마음을 모았다. 마포구청에서는 홍대앞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했다. 따라서 지역 내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지원하며 '홍대앞'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때의 홍대앞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문화공간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개발 모델의 구현, 둘째 상업적인 공간 확장을 통한 지역 내 세수 증대, 셋째 지역 내의 문화적 역량의 지속적 확대라 할 수 있다.

2005 년부터 현재의 홍대앞

지역적으로는 당인리발전소를 포함하여 상수역, 합정역 부근 일대, 동교동 삼거리 부근까지 확장되어 있다. 상업소비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구조의 완성했고, 지역 문화 생산자는 치솟는 임대료에 외각으로 이전되었다. 소형 브랜드, 독립적 아이덴티티의 브랜드의 재확산이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는 예술가의 자생성이 높아졌으나, 홍대를 찾던 초기 문화소비층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월 이야기.

모니터링의 중요 요소 _ 이야기꾼 : 안이영노 (문화컨설팅트, 기분좋은 트랜드하우스 QX 대표)

일시 : 2011 년 10 월 7 일 금요일, 오전 10 시 30 분.

장소 : 울동생태학습원

참석자 : 고웅, 이상민, 임경덕, 심희주, 이은경, 이길순, 류혜연 (이상 모니터링단)

/ 이초영 (본 평가연구 연구원) / 하동근, 박승현, 박동기, 유상진, 오희영 (성남문화재단)

성남하면 떠오르는 사례는 사랑방문화클럽이다. 축제가 만들어지는 방법부터 사랑방문화클럽의 결성은 일반 커뮤니티들의 이합집산과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질적 활동의 집단들이 만나서 다이나믹한 형태로 바뀐다. 역동성을 가진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했던 시도이지만, 공공분야 문화사업으로는 거의 처음 있는 시도였다.

여기서 매커니즘, 작동장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 ‘Camp’이다. 저마다 ‘Doing camp’, Living life, 이것을 Camp 라 부르는데, 장소성이 생긴다. 여기서의 정신, 합동활동방식, 바로 이것이 ‘Campaign’이다. 하나의 생각들을 모고 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Camp 라는 방식이 축제를 보여주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축제의 한 예일 수 있다. 장소성을 기반으로 군락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대화를 나누는 등, 가을이면 캠프가 열린다는 축제가 사랑방문화클럽이다.

문화행사와 축제평가가 다른 이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멤버들이 축제라는 캠프장으로 부른다. 잔치를 만들고, 난장을 만든다. 주기의례가 생긴다. 주기의례는 세시풍속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지역축제들이 세시풍속과 비슷하다. 1 년간 씨 뿌리고 추수하듯이 준비하고 거두는 것이다. 반면에 이벤트는 즉시적, 찰나적, 임기응변을 하고 효율화, 표준화된 방식을 개척하는 것이다. 행사기획은 정형화된 패키지를 여러 가지를 계속 진행해나가야 한다. 이벤트를 보고 평가할 때, 상투적이라는 평가는 안된다. 생산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평가를 할 때,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저렇게 제작, 기획되었나 까지 헤아려야 한다. 전문성 면에서는 생산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모니터링단 여러분, 행사 경험이 없다하더라도, 순연한 사람들의 이치로 볼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적수준이 되는 분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를 할 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 내 가치관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축제’라고 할 때, 너무 높은 기준과 전제조건을 상상한다. 이런 태도가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평가 후, 다시 만드는 중간조작은 대책이 안 선다. 이상이 높으면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을 요구한다.

만약 사랑방문화클럽을 예로 든다면, 양적인 평가 전에 얼마나 많은 동아리가 참여했는가, 또 준비과정에 참여했는가, 동아리가 원하는 개선사항은 무엇인가가 핵심일 것이다. 반대로 여수 엑스포의 핵심은 첫째 국가브랜딩, 둘째 관광 이다. 따라서 축제평가는 어떻게 생산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어떻게 만들었어요?’라고 기획자와 성남문화재단 등의 담당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법이 좋다. 축제마다 면접자가 달라진다. 사랑방문화클럽은 동아리, 시민, 기획자 등, 예술제는 지역예술단체, 환경관련 행사는 지역생태 NGO 등이 그 대상이다.

축제들마다 목표를 못 정하고 가는 축제가 있다.

자라섬 재즈축제의 생산자들이 이 축제의 목적은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 그리고 중심 코어워커들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관광, 지역통합형, 문화예술, 국제 재즈네트워크 만드는 것, 등으로 모두 달랐다. 현재는 자리잡은 지역 대표축제로 잘 진행되고 있다.

수 많이 열리는 지역축제 중에서 지자체의 CEO 부터 담당 공무원, 축제 총괄 기획자나 주변인들의 목표를 정해 계획서 안에서 캠페인 해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창조적 혼돈이 아니라 전략기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영 아닌 기획이다. ‘따로 또 같이’가 아니라, ‘같이 또 따로’이다. 축제가 가진 생리를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QX 만의 컨설팅 틀, 평가틀을 풍부히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없을 때가 있었다. 평가틀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평가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분도 축제를 보는 몇 개의 안경이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 쉽게 예산규모 1~2 억 단위의 주민통합형 축제와 적게는 5 억부터 몇 십억까지 드는 지역관광축제로 나눠보니, 기준 2 개에 평가틀 2 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 이치다. 주민통합형 축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하느냐, 참여하게 하느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느냐 등, 실제로 주민을 위해 만든 축제인가를 평가해야 한다.

관광형 축제는 관광객을 얼마나 모았는가 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접객할 마음가짐이 되어있는지, 지자체가 갖춘 위락시설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경북 봉화장이 관광시장으로 변화 중이다. 1 박 2 일을 묶을 곳이 없다는 평가는 시장, 관광여행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 평가는 봉화군이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것은 평가지표를 만드는 연구자들이 입장이다. 모니터링도 두가지로 나뉜다. 참여관찰, 불개입 관찰이 있고, 인터뷰 또는 면접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뷰를 할 때, 이것이 주민축제이던 관광축제이던 ‘생산자가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략)

틀 지어진 것, 잣대를 정확히 가지고 보자.

예술비평으로 넘어가면 의도주의 비평(작가주의적 비평)은 ‘내가 아티스트라면?’을 고민한다. 20 세기에 모더니즘에서 내용비평과 형식비평이 쟁전다. 모니터링의 사후 토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가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그 자체, 간격을 두고 봐야 한다. 틀 지어진 것, 잣대를 정확히 가지고 보자. 이것이 평가지표이다. 여러분들의 안경으로 잣대가 공유되어 있어야 한다. 수용미학에서 모든 평가는 수용자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예술은 사람들이 수용하기에 따라서 감수하는 것이다. 축제평가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 축제평가는 객관성이 중요해 진다. 내년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평가도 그런 것인가. 내년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곳들 중에 잘한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평가목적이 있을 수 있다. 개선요소를 찾는 것은 컨설팅이다. 평가목적에 따라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이 달라진다. 생산자와 주민들 인터뷰도 필요하다. 생산자 사전인터뷰, 사후 인터뷰, 이해당사자, 민간단체 등의 인터뷰도 모두 필요하다.

모니터링 평가는 객관성, 대표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모니터링 평가는 아우스의 수용미학처럼 다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객관성, 대표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가야 한다. 그 안에서 목표가 달라진다. 평가에서 검정해야 하는 것인가, 개선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의 목적도 달라진다.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인지(내년도의 기대와 수요를 묻기도 하지만, 만족이 중심이다.), 반면에 마케팅조사 (내년에 더 팔리는, 효과를 파악해 내년의 기획에 도움을 주는 조사) 일수도 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연구팀에게 물어봐야 한다.

전문평가자는 전문평가자답게, 시민모니터링은 시민모니터링답게 해야 한다. 내가 성남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치를 잘 파악하고 발견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오늘은 동기유발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 생각한다. 바늘로 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진짜 좋은 기획자는 조사부터 한다. 이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그래서 기획을 하다가 컨설팅을 하게 된 것이다. 진짜 좋은 평가자는 내년도 기획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책임을 진다. 내년 개선사항을 빨간펜 작업을 해줘도 참여자가 받지 않거나 문화재단이 연결하지 않아서 피드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년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진짜 좋은 평가자는 내년 기획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니터링단으로서는 원리와 이치에 맞게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엔 시민으로 돌아가서 실행이 되는지 바라봐야 한다. 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나중에 할 일이 더 중요하다. 시민은 주인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진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풍요로운 우리나라와 현재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늙은 자본주의가 되었다. 서구보다 낮은 취업률과 쾌속 고령화, 사회안전망과 보장제도가 없고 시장에서 경쟁한다. 자본주의가 가진 구조적 모순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우리 스스로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똑발라져야 한다. 시민으로 돌아가서는 모니터링 기술을 잊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노력하는 일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1990년대에 나온 낡은 시민모니터링의 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다.



11 월 이야기.

모니터링의 중요 요소 _ 이야기꾼 : 김지연 (프락시스 PRAXIS 대표)

일시 : 2011 년 11 월 9 일 수요일, 오전 10 시 30 분

장소 : 성남문화재단 뮤즈홀

참석자 : 김수현, 심희주, 권혁주, 정경숙, 이상민, 이은경, 임경덕 (이상 모니터링단)

/ 이초영 (본 평가연구 연구원) / 하동근, 박지훈, 오희영 (성남문화재단)

(이하 김지연)

나는 교육연극연구소에 있다. 강사는 아니지만, 연극적 방법들을 알고 있어서 재미있게 시작하고 싶어 '인터뷰 게임'을 제안한다. 덜 친한 분들끼리, 2 분이 1 쌍으로 짝을 이뤄주시길 바란다.

(3 분간. 3 번의 파트너를 바꾸면서, 1.이름 교환, 2.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일, 3.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4.가장 기억나는 모니터링사를 질문하고 대답을 주고 받았다. 이후, 3 번째 만났던 최종 파트너에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인터뷰 게임을 제안한 이유는 들어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내가 나의 해석으로 듣는가, 한번쯤 생각해보는 가벼운 시작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학전에서 5 년 정도 일을 했다. 연극관련 일을 하면서 대학로 작품들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 원인을 교육으로 봤다. 사다리교육연구소를 거쳐 지금에 달랐다. 직접 일을 하고 기획자로서, 오랜 시간동안 모니터, 컨설팅 일을 해왔다. 그런데 조심스럽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업의 평가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세와 입장으로 나가야하는가 항상 고민스럽다. 최근 모니터를 했던 2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2010 년에 한 경기문화재단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은 일반시민 모니터링은 아니고, 전문가 모니터링이었다. 나는 전문가와 시민 모니터링의 시각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전문가일수도 있고, 시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컨설팅 개념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 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모니터링이었다. 공연과는 차이가 있다. 단순한 모니터링은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깊이있게 보면 연출의 의도가 반영되었는가, 작업가들의 사이에서 문제가 잘 풀어졌는가를 살펴보면 무게감이 있는 모니터링이 된다.

[질문 & 소감] 이상민 : 80 세 이상의 노인들 관객의 민요공연을 봤는데, 무대에 선 분들이 아마추어 공연자들이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있는 60 대 이상 되는 분들이었는데, 무대에 설 만한 실력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다가, 공연의 측면에서는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 갈등이 된다. 평가지표에 따라, 갈 때마다 어디에 기준을 뒤편할 지 정말 고민이다.

이상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아마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1 회만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준비했던 사람과 이야기해보지 않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등을,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평가일까?’

‘우리가 하는 것이 평가일까? 오히려 사람들이 의미 있게 나누고, 교감과 공감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고, 널리 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반대로 부족한 지점을 찾아 보완하면 내년엔 상대방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지만, 생각처럼 안될 때도 있다. 그리고, 공연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지만, 공공예술, 또는 소통의 예술적인 접근에서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일하느냐, 어떤 교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전환들이 이뤄진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O,X 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나도 받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누군가가 평가하러 왔을 때, 우리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그런데 참가자들에게 ‘내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잘 해야한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사업은 경기도 공연장과 협업관계를 맺어서 예술상체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예술적 역할을 사업으로 연결하자는 움직임을 반영한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평가를 했다.

두 사업 전부, 마음이 맞는 팀들과 함께 일했는데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 사업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가’에 대해 교감을 나눴다. 한 팀과 4,5 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 사업 시작, 중, 후반. 평가를 위한 평가글이 아니라, 4,5 번의 만난 느낌을 써주자고 했다. 7 개 단체의 7 명 모니터링이 1 개월에 1 번씩 방문했다. 이후에는 4,5 회 정도 되면 누구에게나 익숙해진다. 강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교사와 학생, 둘 다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학생 만족도 조사도 강사들에게 맡겼다.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질문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자들이 그냥 질문을 던지면 정확한 만족도가 조사되지 않을 것 같았다. 강사들에게 맡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만족도를 느꼈을 시점이 언제인지 강사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과정들이 단체와 교사들에게 ‘평가자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면서 신뢰의 성과를 최대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7 개 단체의 모여서 워크숍을 했다. 각 단체들은 프로그램 맛보기 체험을 준비해와서 서로가 참여했다. 전문가 모니터도 워크숍에 참여해서, 향후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모습을 봤던 단체들과 ‘관계’가 생겼다.

기본적인 평가지표를 가졌고, 그 지표에 준해서 평가의 잣대를 가지는 것은 옳다. 하지만, 너무 강박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떠오르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만 모니터요원의 시각에서 해석해서 봐야 한다. 모니터링단에게 분석적인 글이 아니라, 수필과 같은 글을 부탁했다.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길 원했다.

평가지표는 꼭 필요하다. 거리를 두고 관찰자처럼 봐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질문들 때문에 오히려 평가로 잡아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나는 평가지표를 받으면 그 평가지표에 따라 돌아본다. 스스로 피드백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피드백도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모니터요원들이 사업진행자를 만난다면 훨씬 더 독려가 되고 교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까 ‘가장 기억에 남는 모니터’를 발표하신 예를 보니 ‘참 하나하나에 흥미롭게 봐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듯 하다.

모니터링은 구조의 방식

평가의 방식보다는 구조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권해주고 싶다.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술에 가까이, 교육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관찰할까를 중심으로 삼아, 1 개의 공연에 대해서도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공연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느끼고 전달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선생님이 본 사업의 경우, 기획서의 핵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대해 잘 봐야 한다. 공연기획을 하신 분이 기획서를 잘 못 쓰는 분일 수도 있다. 내년에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모니터링의 역할이다. 분명히 담벼락처럼 막혀있는 단체들도 있다. 하지만 말이 통하는 단체들은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따라 다른 방법도 제안하는 모니터가 되도 좋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모니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의 문화예술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교감의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역신문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모니터링 결과문이 실린다면 대중적이며 보다 객관적인, 인간적인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추측해본다. 따뜻한 모니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예술가가 지역과 만날 때, 조금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모니터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단체, 모니터링단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것은 재단에 제안하고 싶다.

질문과 답변, 소감

김수현 : 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번 방문하면서 낮은 차원의 관계가 형성되긴 하지만, 일반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연날짜에 가서 공연을 보고, 인터뷰 하는 정도이다. 내년에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약 관계를 맺고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김지연 : 두 가지 모두 해보셨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김수현 : 일반지원사업은 공연이나 행사를 보고 서면인터뷰를 했을 때는 평가자 입장이다. 기획지원사업은 완성도가 있지 않아도 인터뷰와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입장이 와닿았다. 이것이 교감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평가지 작성을 하면 두 가지 지원사업의 결과를 크게 다르게 적지는 않지만, 바라보는 자세가 확실히 다르다. 기획지원사업 평가지를 쓸 때가 더 편했다. 궁금한 점은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몇 번을 보다보니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혹시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김지현 : 답은 없는 것 같다. 방식은 시선 밖에 없다.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대해서는 많이 겪고 보는 수 밖에 없다. 작품을 보는 자기 시선이 다양해지는 것이다. 다양한 시선을 가지면 어떤 것을 봐도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혁주 : 아마추어지만, 분석면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을 가져가야 한다. 어설픈 공연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지역사회의 기여가 되어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반움직임연구소의 모니터링을 했는데, 참 두 가지 생각이 든다. 과연 사업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냉철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과정을 보진 못했지만 그 과정의 노력을 바탕으로 깔고 봐야할 것 같다. 그들과 함께 하는 교감이라는 시각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평가하는데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된다. 그리고, 교수자들을 이해하고 관점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로 들렸다. 다음엔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모니터링이 처음에 시작될 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동근 : 최근에 ‘광언’이라는 일본의 전통극을 봤다. 년버벌도 아닌 공연 내내 말로 주고받는 정극이었다.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중간에 극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고 통쾌함도 느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깐, 그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소도구 하나까지에도 집중하게 되더라. 극이 끝나니 자연스럽게 객석과 함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모니터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영어로 적었다. 말을 못 알아 들으니깐, 극의 내용을 모르지만 극의 여러 미세한 변화에 신경을 쓰게되며 굉장히 흥미로웠다.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인가. 진정한 소통은 같은 언어를 공감하는 게 아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형식적인 것을 많이 거둬버리고, 날 것,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소통의 관점에서 통했다고 생각한다.

이은경 :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모니터를 하는 입장이니깐, 의욕을 가지고 처음부터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도, 사업단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참여자가 되기도, 관찰자가 되기도 싶은데 어려운 일인 듯 하다. 경험이 많으시니,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노하우에 대해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 그래서 모니터 모두가 워크숍에 참여한 것이다. 나누는 워크숍을 하고 저녁 술자리도 함께 했다. 이런 것들이 1차 교감이라고 생각한다. 공감하고 칭찬하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초영 : 지난 달, 안이영노 선생님의 강연은 차갑고 냉철한 모니터링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은 따뜻한 모니터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김지연 선생님께 강연을 부탁드렸다.

그리고, 네트워크 파티의 개념을 교류의 시간과 함께 색다른 문화이야기, 재미있는 강연들로 채우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니터링에 대한 시각과 관점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 지난달부터 ‘모니터링의 관점’에 초점을 맞췄다. 권혁주 선생님의 의견처럼, 향후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강연과 교육은 활동 초기에 꼭 기획,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오늘 시간이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열강을 해주신 김지연 선생님과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2011 년 모니터링단 명단

이길순

정경숙

권혁주

류혜연

임경덕

이은경

이은주

김수현

심희주

이상민

양희정

채수현

이나경

안해지

고웅 (이상 15 명)

2011 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결과보고서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발행일 : 2012 년 1 월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가치창조공동체 곰곰꼼꼼